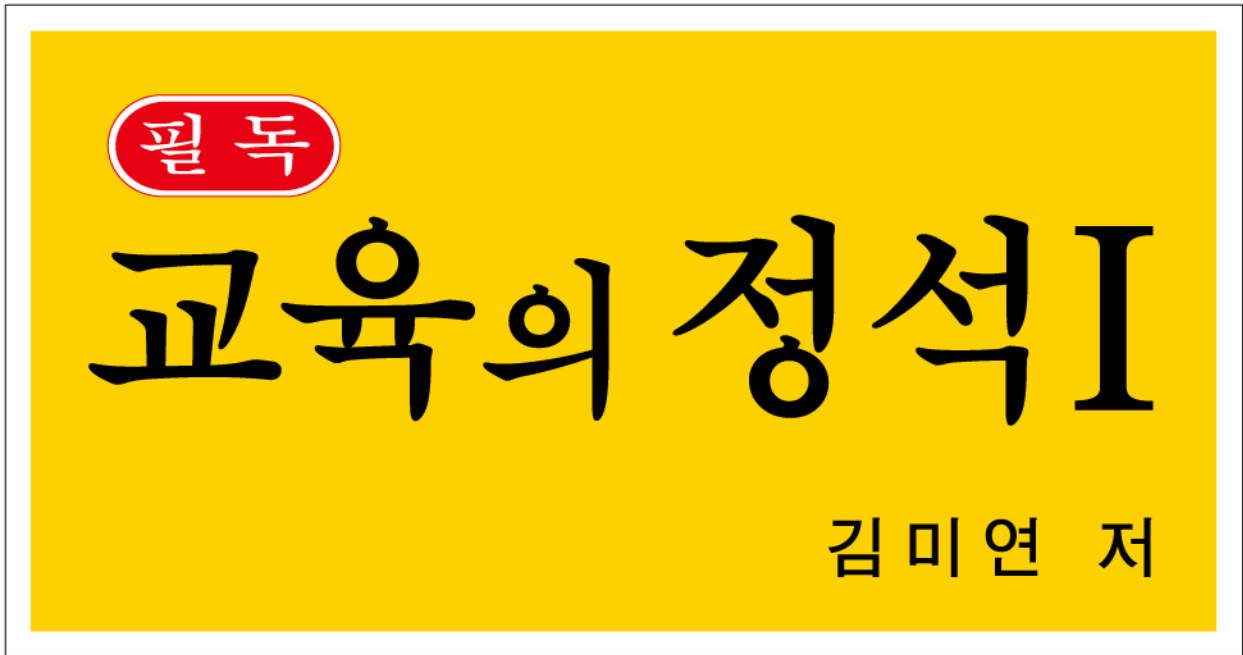


당신의 자녀! 명문고/명문대 보내드립니다



Tel. 368-6177
huhu@eugenefn.com

2011. 05. 16

유진투자증권 

Prologue

교육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육주에 대한 질문도 많지만,

“어떻게 해야 OO 학교 보낼 수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입니다.

그 무엇보다 ‘자식농사’ 만큼 중요한 농사가 없고

자식농사를 잘 짓고 싶지만 최근 고입, 대입 입시전형이 많이 변하면서

잘 짓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보다는 급변하는 고입, 대입 입시전형에 대한 분석자료 입니다.

Chapter 별로

고등학교 입시(특목고-외고, 과고, 과학영재고 / 자율고)

대학교 입시(수시, 정시, 논술, 수능, 입학사정관)

Appendix: 교육시장 규모 및 초/중/고 과목별, 채널별 사교육 시장

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향후 교육산업에 있어 중요한 Point 가 되는 Issue 에 대해 Series 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교육 애널리스트로서 교육주에 대한 분석과 전망뿐만 아니라

공교육, 사교육 트렌드와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교육/제지, 유통 담당 김미연

2011. 05. 16

교육의 정석 I

외고/과학고/자율고 가야 하나요?



교육/제지/유통 김미연
 Tel. 368-6177
 huhu@eugenefn.com

교육/제지/유통 설유진
 Tel. 368-6174
 yoojin.sul@eugenefn.com



Contents

당신의 자녀 외교/과학고/자율고에 합격시킬수 있나요?	5
고등학교 현황	7
Section 1. 외교/국제고	9
외교/특목고 입시변화로 경쟁률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강자 서울대합격자 '특목고, 서울 강남' 쏠림 현상 여전 외고도 부익부 빈익빈 격차 확대 : 서울/경기권 외고의 상대적 우세 일반고 출신의 부진 원인은? 특기자 전형 확대, 어려워진 수능에 기인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소개 및 분석	
Section 2. 과학고/과학영재고	29
외고 입시 어떻게 변했나? - : 외교 갈려면 영어내신 + 입학사정관 준비하세요 과학고 입시 어떻게 변했나? - : 과학고 갈려면 과학,수학내신 + 학습계획서 + 과학캠프 준비하세요	
Section 3. 자율형 사립고	37
자사고라 해서 다 똑 같은 자사고가 아니다 - 부익부 빈익빈 현상 지속전망	



당신의 자녀 외교/과학고/자율고에 합격시킬수 있나요?

1. 외교입시를 준비하려면 중학교 국/영/수/사/과 5과목 내신 대비에 충실해야 한다. ()
2. 외교입시에서 경시대회 성적을 제출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
3. TOEFL, TOEIC 점수 고득점 획득시 외교입시에 유리하다. ()
4. 외교입시 1차 통과자는 2단계에서 영어 Speaking 및 Listening 시험전형을 봐야 한다. ()
5. 외교입시 입학원서에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경험을 기술해서 써야 한다. ()
6. 과학고와 과학영재고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 ()
7. 과학고 입시는 자기주도학습전형과 과학창의전형으로 구분된다. ()
8. 과학고 입시에서 전과목 내신성적이 전부 필요함으로 전 과목 내신향상에 신경써야 한다. ()
9. 과학고 입시에서 영재성 입증자료에 외부 경시대회 입상실적 및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여부 등은 가산점 요인이다. ()
10. 용인외고를 진학 할려면 중학교 2,3학년 영어내신성적만 필요하다. ()

7점 이상 : 외교/과학고/자율고를 보낼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4~6점 : 학부모로써 노력을 요합니다.

**3점 이하 : 아들, 딸에게 이렇게 공부해서 외교/과학고 갈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기 전에 본인부터 공부하셔야 합니다.**

*** 정답은 뒷면을 보세요**



정답 및 풀이

정답: 1. X / 2. X / 3. X / 4. X / 5. O / 6. X / 7. O / 8. X / 9. X / 10. X

1. 외고입시를 준비하려면 중학교 국/영/수/사/과 5과목 내신 대비에 충실해야 한다. (X)
 → 외고입시는 총 200점 만점으로 160점의 영어내신성적과 40점의 입학사정관 면접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2~3학년 영어내신 대비에만 만전을 기하면 됩니다.
2. 외고입시에서 경시대회 성적을 제출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X)
 → 일체의 인증 시험 및 경시대회 성적 기재 불가능입니다.
3. TOEFL, TOEIC 점수 고득점 획득시 외고입시에 유리하다. (X)
 → 일체의 인증 시험 및 경시대회 성적 기재 불가능입니다.
4. 외고입시 1차 통과자는 2단계에서 영어 Speaking 및 Listening 시험전형을 봐야 한다. (X)
 → 기존 외고입시에서 시행되었던 영어 구술면접과 듣기 평가는 폐지되었습니다.
 → 오로지 외고 입시 면접은 입학사정관 면접으로 구성되며, 입학사정관 면접은 지원동기,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5. 외고입시 입학원서에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경험을 기술해서 써야 한다. (O)
 → 외고 입시 면접은 입학사정관 면접으로 구성되며, 입학사정관 면접은 지원동기,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을 평가함에 따라, 본인에 큰 영향을 미쳤던 봉사활동과 독서활동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6. 과학고와 과학영재고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 (X)
 → 가능합니다. 과학영재고는 과학고보다 전형이 먼저 실시되고,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학영재고를 지원해 보는 것이 과학고 입시전형을 대비할 때 유리합니다.
7. 과학고 입시는 자기주도학습전형과 과학창의전형으로 구분된다. (O)
 → 네 그렇습니다. 또한, 2012학년도는 기존 30%였던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비중이 50%로 확대되었습니다.
8. 과학고 입시에서 전과목 내신성적이 전부 필요함으로 전 과목 내신향상에 신경써야 한다. (X)
 → 중학교 2,3학년 수학, 과학 내신만 반영됩니다.
9. 과학고 입시에서 영재성 입증자료에 외부 경시대회 입상실적 및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은 가산점 요인이다. (X)
 → 전부 기재 불가능입니다.
10. 용인외고를 진학 할려면 중학교 2, 3학년 영어내신성적만 필요하다. (X)
 → 대표 외고중 한 곳인 용인외고는 2011년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인외고는 2,3학년 국/영/수/사/과 내신성적이 필요함으로 국/영/수/사/과 내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현황

도표 1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구분	구분	현황(교)	목적	모집단위	입학전형
일반고		1,299		지역/광역단위	평준화: 추첨/배정 비평준화: 내신+선발고사
특목고	과학고	18	과학인재양성	광역단위	자기주도학습전형+과학창의성 전형
	외고/국제고	40 외고 (33) 국제고(4)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 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광역단위	자기주도학습전형
	과고+외고 +국제고	58			
	예술고/체육고	40 예술고(25) 체육고(15)	예술인 양성(예술고) 체육인 양성(체육고)	전국단위	내신, 면접, 실기 등
	마이스터고	21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국단위	내신, 면접, 실기 등
특성화고	특성(직업)	670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광역/전국단위	내신, 면접, 실기 등
	체험(대안)	23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	광역/전국단위	내신, 면접, 실기 등
자율고	자율형사립고	50	학교별 다양한 교육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광역단위	평준화: 추첨 등(내신성적 반영) 비평준화: 자기주도 학습전형
	자율형 공립고	58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구현	광역단위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학교자율(필기고사 금지)
총합		2,21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이 페이지는 편집 상 공백입니다.



Section 1. 외교/ 국제고



외국어 고등학교 현황(31개교)

도표 2 전국 외국어 고등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	시/도	학교명
서울	대원외고	부산	부산국제외국어고
	대일외고		부산외고
	명덕외고		부일외고
	서울외고	대구	대구외고
	이화외고	인천	미추홀외고
	한영외고		인천외고
경기	과천외고	대전	대전외고
	김포외고	울산	울산외고
	등둔천외고	강원	강원외고
	성남외고	충북	청주외고
	수원외고	충남	충남외고
	안양외고	전북	전북외고
	경기외고	전남	전남외고
	고양외고	경북	경북외고
		경남	경남외고
		제주	김해외고
		제주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주1: 충북 중산외국어고는 2011학년도에 일반고(충주중산고등학교)로 전환

주2: 경기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는 2011학년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국제고(6개교)

도표 3 전국 국제고등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	시/도	학교명
서울	서울국제고(공립)	경기	청심국제고(사립)
부산	부산국제고(공립)		고양국제고(공립)
인천	인천국제고(공립)		동탄국제고(공립)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주: 경기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는 2011학년도 개교



외고/과학고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외고/특목고 입시변화로 경쟁률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강자

Q) 명문대 진학에 여전히 '외고/과학고'가 강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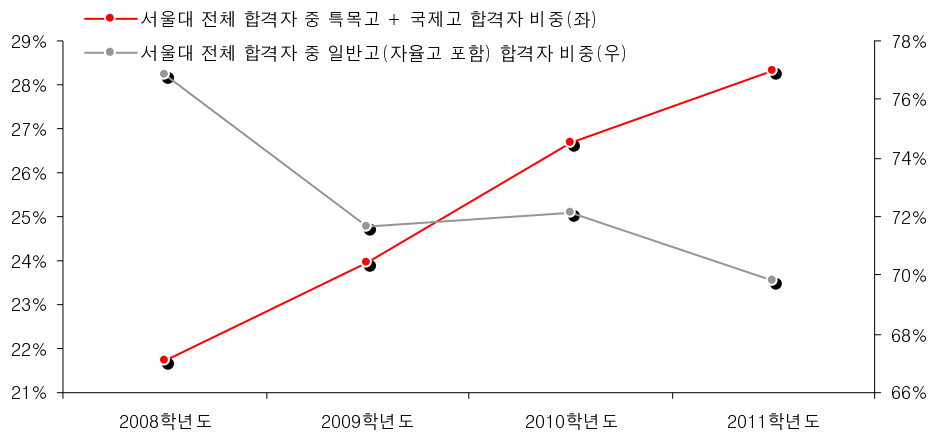
A) 서울/경기권 외고와 과학고는 여전히 강자입니다.

최근 교육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외고/과학고'가 여전히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가요? 이다. 실제로 2011학년도 전국 31개의 외국어고 경쟁률은 1.7:1로 2010년 2.9:1에 비해 40%가량 떨어졌다. 서울지역 외고 경쟁률도 3.3:1에서 1.3:1로 58%정도 낮아졌다. 이는 '외고/과학고' 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입학사정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과거 '외고'입시에서는 영어구술면접 영어 듣기평가 등이 실시되었으나,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고 입시를 전면철폐하고 200점 만점 중 160점은 '영어내신'으로 40점은 '입학사정관 면접'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외고 입시에서 '영어내신'성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영어내신이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 및 '입학사정관 면접'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이 자체 포기한 점도 상당 폭 외고 경쟁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경기권 외고 및 과학고는 SKY 진학에서 단연코 우세하다. 서울대학교 합격자 중 특목고(외고, 과고, 예체고)와 국제고 출신 비중은 2008학년도 21.7% → 2009학년도 24.0% → 2010학년도 26.7% → 2011학년도 28.3%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체 서울대학합격자 중 자율고를 포함한 일반고 합격자 비중은 2008학년도 76.9% → 2011학년도 69.8%로 감소세 기록하고 있다(도표 4참조).

도표 4 서울대 합격자수 전체 중 일반고(자율고 포함)출신 합격자 비중 지속적 감소 반면, 특목고(외고, 과고, 예체고)와 국제고 비중은 꾸준히 상승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1: 일반고는 전체 고등학교중 특목고(외고, 과고, 예체고, 영재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자율고 포함)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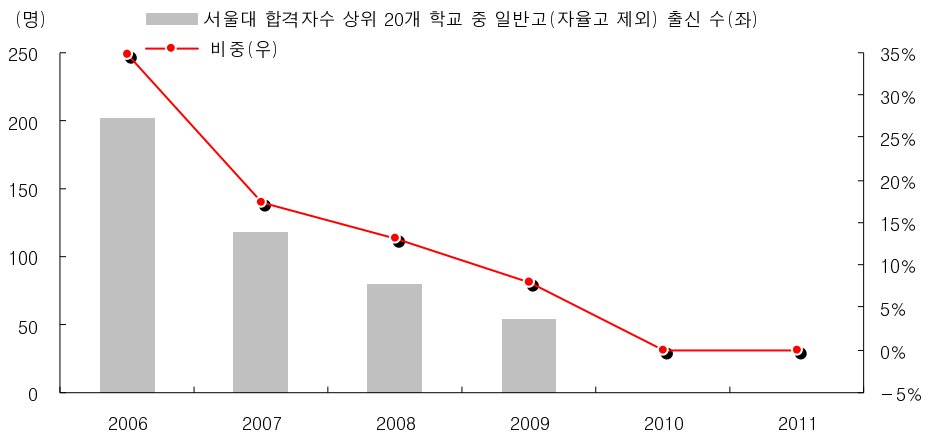
주2: 선발 및 모집인원 총계는 정원외 전형인 수시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정시의 특수교육전형 제외



서울대합격자 '특목고, 서울 강남' 쏠림 현상 여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학년도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20위권 고교 중 15개가 특목고, 5개가 자율고로 순수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다. 상위 25위권 학교를 보면 2009학년도 8개, 2010학년도에 3개였던 순수일반계 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위권 학교들 중 일반고와 특목고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도표 5~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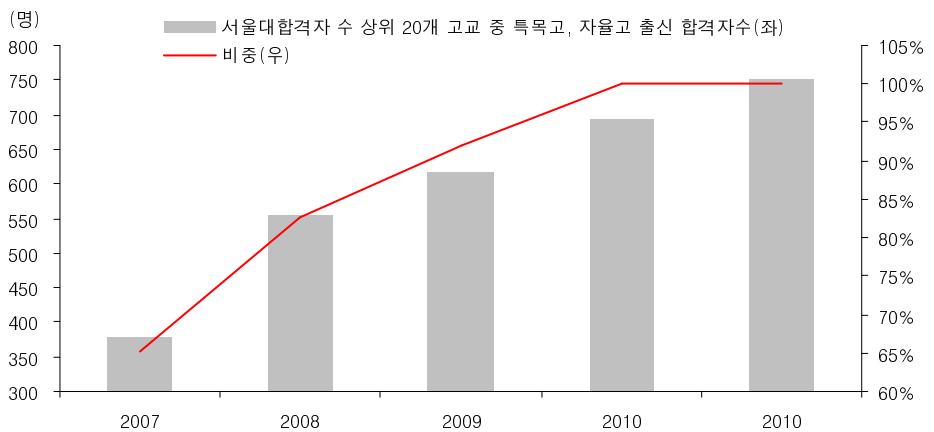
도표 5 서울대합격자수 상위 20개 고교: 2010학년도부터 일반계고(자율고 제외) 전무



자료: 각 언론사, 유진투자증권

주: 일반고는 특목고(외고, 과고, 예고, 영재고)와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도표 6 서울대 합격자수 상위 20개 고교 중 특목고, 자율고 출신 합격자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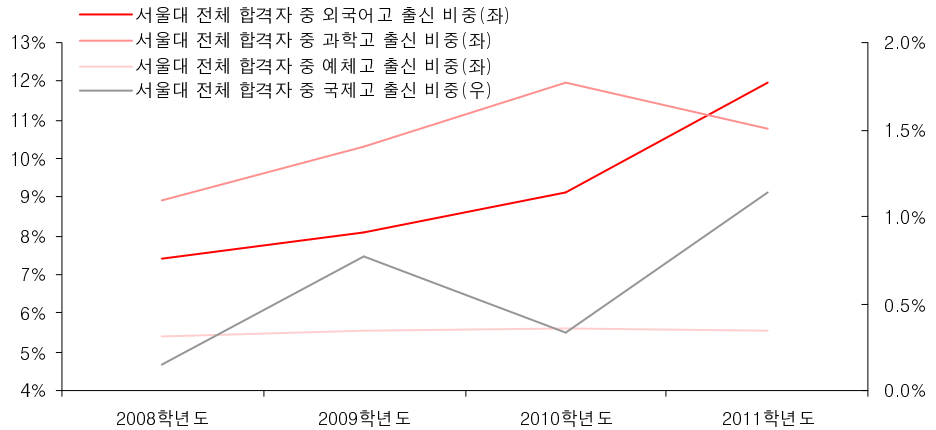


자료: 각 언론사, 유진투자증권



또한,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2008학년도 7.4% → 2011학년도 12.0%로 가장 약진했으며, 과고는 2008학년도 8.9% → 2011학년도 10.8% 소폭 증가했고, 예고는 3년간 5.4~5.6%로 동일한 비중을 유지했다. 참고로, 1명 이상 서울대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 수도 2010학년도 1,013개 → 2011학년도 958개로 55개 감소가 감소했다

도표 7 전체 서울대합격자 중 외국어고, 국제고 출신 증가세 뚜렷



자료: 서울대학교, 각 언론사, 유진투자증권

주: 선발 및 모집인원 총계는 정원의 전형인 수시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정시의 특수교육전형 제외

2011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중 서울 지역 일반고(외고·과고·예고 등 특목고 제외) 출신 합격생은 모두 686명으로, 이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292명이었다. 또한, 서울대 합격생 배출 상위 10개 일반계고 중 7곳이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다.

중동고가 20명을 배출하면서 2위를 기록했고, 휘문고 17명, 단대부고 16명, 영동고 15명, 중산고 14명, 반포고 14명, 보성고 12명 등 강남소재 고등학교가 여전히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강남 3구 가운데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강남구로 160명(23.3%)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145명보다 10.3% 증가한 수치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서초구 75명(10.9%)과 송파구 57명(8.3%) 순이었다



도표 8 2009~2011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 상위 25개 고교

(단위: 명)

2009학년도 서울대 합격자수 고교순위					201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수 고교순위					2011학년도 서울대 합격자수 고교순위				
순위	출신고교	분류	지역	합격 인원	순위	출신고교	분류	지역	합격 인원	순위	출신고교	분류	지역	합격 인원
1	서울과학고	과	서울	94	1	서울과학고	과	서울	90	1	서울예술고	예	서울	89
2	서울예술고	예	서울	90	2	서울예술고	예	서울	76	2	대원외국어고	외	서울	70
3	대원외국어고	외	서울	62	3	대원외국어고	외	서울	69	3	세종과학고	과	서울	49
4	한성과학고	과	서울	50	4	선화예술고	예	서울	47	4	한성과학고	과	서울	46
5	용인외국어고 (한국외대 부속외고)	외	경기	44	5	세종과학고	과	서울	40	5	용인외국어고 (한국외대 부속외고)	외	경기	44
6	선화예술고	예	서울	39	6	명덕외국어고	외	서울	34	6	한국과학영재학교	과	부산	41
7	상산고	자	전북	28	7	한성과학고	과	서울	33	7	서울과학고	과	서울	37
8	경기과학고	과	경기	26	8	경기과학고	과	경기	27	8	대일외국어고	외	서울	36
	한국과학영재학교	과	부산	26		상산고	자	전북	27		9	명덕외국어고	외	서울
10	국악고	예	서울	24	10	경기북과학고	과	경기	26	11	민족사관고	자	강원	34
11	대일외국어고	외	서울	23	11	국악고	예	서울	25	11	안산동산고	자	경기	33
12	명덕외국어고	외	서울	21		한국과학영재교	과	부산	25	12	상산고	자	전북	31
	휘문고		서울	21	11	용인외국어고 (한국외대 부속외고)	외	경기	25	13	경기과학고	과	경기	30
14	민족사관고	자	강원	19	14	대일외국어고	외	서울	24		포항제철고	자	경북	30
	인천과학고	과	인천	19	15	민족사관고	자	강원	23	15	고양외국어고	외	경기	28
17	한영외국어고	외	서울	19	16	고양외국어고	외	경기	22	16	한영외국어고	외	서울	27
	경남과학고	과	경남	18	17	한영외국어고	외	서울	21	17	국악고	예	서울	26
18	세화고		서울	17		인산동산고	자	경기	21	18	선화예술고	예	서울	24
	포항제철고	자	경북	17	19	경남과학고	과	경남	20	19	인양외국어고	외	경기	22
20	강서고		서울	16	20	인천과학고	과	인천	19	20	중등고	자	서울	20
	경기북과학고	과	경기	16	21	휘문고	자	서울	17	20	한일고	자	충남	20
25	세광고		충북	16	21	한일고	자	충남	17	22	부산과학고	과	부산	19
	안산동산고		경기	16		23	경기고		서울		15	경남과학고	과	경남
25	인양외국어고	외	경기	16	23	포항제철고	자	경북	15	23	계원예술고	예	경기	18
	경기고		서울	14		상문고		서울	14		23	과천외국어고	외	경기
	서울고		서울	14	25	숙명여고		서울	14					
	은광여고		서울	14	25	장영실과학고	과	부산	14					
중산고		서울	14											

자료: 국회, 유진투자증권

주1: 분류 외-외고, 과-과고, 예-예체고, 자-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학교) / 미분류는 일반계고등학교를 말함

주2: 진한 붉은색은 특목고(외고, 과학고, 예체능고), 옅은 붉은색은 자율고, 하얀색은 일반고임



외고도 부익부 빈익빈 격차 확대 - 서울/경기권 외고의 상대적 우세

최근 전국 31개 외고중 서울/경기권 외고의 상대적 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1학년도 서울대 합격자중 대원외고는 70명을 배출하며 전국 학교 중에서 예술고인 서울예술고 89명을 제외할 경우 1위를 차지하였으나, 충남외고 4명, 경남외고 4명, 제주/부일/청주외고는 0명에 그치는 등 외고도 서울/경기권과 지방 외고의 격차가 확연하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외고는 경남의 김해외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서울/경기권 외고이다. 대원외고, 경기외고의 경우 졸업생중 50% 이상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합격하였으며, SKY를 제외한 서강대, 성균관대 등 중 상위권 명문대까지 합칠 경우 졸업생 중 명문대 합격비중은 70~80%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고 내에서도 서울/경기권 외고 및 일부 명문 지방외고와 기타 외고와의 부익부 빈익빈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9 외고 서울대,고대, 연대 합격비중 (2011학년도 진학 기준)

(단위: 명,%)

학교명	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SKY 합계	외고 졸업생(2011)	SKY 합격비중(%)
1 대원외고	서울	71	119	101	291	439	66.3%
2 경기외고	경기	19	75	82	176	347	50.7%
3 인양외고	경기	24	82	101	207	418	49.5%
4 명덕외고	서울	36	70	110	216	437	49.4%
5 용인외고	경기	44	72	62	178	364	48.9%
6 한영외고	서울	29	81	69	179	369	48.5%
7 고양외고	경기	34	80	106	220	486	45.3%
8 대일외고	서울	37	75	76	188	432	43.5%
9 김해외고	경남	10	19	29	58	147	39.5%
10 수원외고	경기	8	40	34	82	234	35.0%
11 과천외고	경기	18	69	66	153	442	34.6%
12 대구외고	대구	6	33	21	60	179	33.5%
13 이화외고	서울	9	14	42	65	219	29.7%
14 서울외고	서울	4	40	59	103	364	28.3%
15 성남외고	경기	14	32	25	71	253	28.1%
16 김포외고	경기	3	30	36	69	315	21.9%
17 부산외고	부산	9	38	39	86	397	21.7%
18 대전외고	대전	17	23	29	69	330	20.9%
19 동두천외고	경기	14	21	14	49	237	20.7%
20 충남외고	충남	4	12	11	27	171	15.8%
21 경북외고	경북	1	17	5	23	146	15.8%
22 부산국제외고	부산	4	15	7	26	259	10.0%
23 인천외고	인천	2	14	18	34	349	9.7%
24 전남외고	전남	1	7	5	13	141	9.2%
25 전북외고	전북	2	5	3	10	116	8.6%
26 경남외고	경남	4	7	3	14	225	6.2%
27 제주외고	제주	0	4	0	4	93	4.3%
28 부일외고	부산	0	8	2	10	255	3.9%
29 청주외고	충북	0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230	미공개
30 미추홀외고	인천	2010년 개교					
31 울산외고	울산	2010년 개교					
32 강원외고	강원	2010년 개교					
외고 SKY 합격자수(명)		424	1,102	1,155	2,681	8,394	31.9%
각 대학 입학정원수(명)		3,255	4174	3,793	11,222		
외고 각 대학 합격비중(%)		13.0%	26.4%	30.5%	23.9%		

자료: 각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 유진투자증권

주1: 미추홀외고, 울산외고, 강원외고는 2010년 개교

주2: 대구외고, 제주외고는 2011학년도 진학률 미발표로 2010학년도 기준임

주3: 청주외고는 미공개



일반고 출신의 부진 원인은? 특기자 전형 확대, 어려워진 수능에 기인

Q) 2011학년도 입시에서 명문대 진학에 '일반고' 출신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A) 1) 수시-특기자전형 확대, 2) 어려워진 수능, 3) 자사고 확대에 기인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별 분석

일단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분석해 보자. <도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학년도 정원 내 전형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크게 수시 2개 전형, 정시 1개 전형으로 총 3가지(1) 수시-지역균형선발전형, 2) 수시-특기자전형, 3) 정시-일반전형)로 분리된다.

도표 10 2010~2012학년도 서울대입시안 비교: 내신(교과)비중 감소, 수능비중 상승

전형 및 요소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계획안)
수시-지역균형선발전형	1단계: 내신성적(80)	1단계: 내신성적(100)	1, 2단계 통합 입학사정관제 100% 전형 * 고교당 2명 추천
	2단계: 1단계 성적(80)+ 서류평가(10) + 면접 및 구술고사(10) * 고교당 3명 추천	2단계: 서류평가 + 면접(100) * 고교당 3명 추천 * 구술고사 폐지	
선발인원(비중)	753명(23.5%)	729명(23.5%)	710명(22.9%)
특징	* 고교당 2~3명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 → 특목고 불리 < 일반고 유리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중이 99.9%(2011학년도)		
수시-특기자전형	1단계: 서류평가(100)	1단계: 서류평가(100)	1단계: 서류평가(100)
	2단계: 1단계 성적(100) + 면접 및 구술고사(60) + 논술고사(40)	2단계: 1단계 성적(100) + 면접 및 구술고사(60) + 논술고사(40)	2단계: 면접(100)
선발인원(비중)	1,150명(36.9%)	1,155명(37.3%)	1,173명(37.9%)
특징	1단계 서류평가: 학업능력, 모집단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및 관련활동, 기타 교과 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심 및 관련활동, 교과 외 활동에 교내수상경력 및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 각종 외국어 인증 시험 성적 등에 의해 평가 → 지역균형선발전형대비 특목고 학생들 유리한 전형 → 2011학년도 기준 일반고: 특목고(국제고 포함) 출신 합격자 비중은 69.8% : 28.3%		
정시-일반전형	1단계: 수능	1단계: 수능	1단계: 수능
	2단계: 학생부 (50 = 교과 40, 비교과 10) + 수능(20) + 논술(30)	2단계: 학생부 (50 = 교과 40, 비교과 10) + 수능(20) + 논술(30)	2단계: 학생부 (40 = 교과 30, 비교과 10) + 수능(30) + 논술(30)
선발인원(비중)	1,211명(38.9%)	1,215명(39.2%)	1,213명(39.2%)
특징	1단계에서 수능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점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 수능이 어려울수록, 상대적으로 수능점수가 높은 특목고생들에게 더 유리		
입학정원 총원(명)	3,114명	3,099명	3,096명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1: 정원외 전형 제외

주2: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대상 전형 기준, 미대/음대/사범대의 경우 전형 상이



1) 수시-지역균형선발전형: 특목고생 불리

지원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이 필수이다. 1단계에서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영역(내신)의 석차별 등급에 의해서 2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기반한 서류평가와 면접을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1단계에서 내신 석차에 의한 등급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고대비 학생수가 적은 특목고생들에게 불리한 전형으로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중이 99.9%이다.

2) 수시-특기자전형: 특목고생 유리

특기자 전형은 지원자격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로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로 광범위하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학업능력, 모집단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및 관련활동, 기타 교과 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관심 및 관련활동, 교과 외 활동에 교내수상경력 및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 각종 외국어 인증 시험 성적 등에 의해 평가하고, 교과영역(내신)에 대한 평가 역시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달리 일부 과목만 전반적으로 평가해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외 경력이 많은 특목고생에게 1단계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대비 유리하다.

또한, 2단계에서 인문계는 면접 및 구술고사(60)와 논술고사(40)를 시행하며, 자연계는 면접 및 구술고사(100)가 있기 때문에 대상계열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2011학년도 기준 특기자전형의 일반고 : 특목고(국제고 포함) 출신 합격자 비중은 69.8% : 28.3%로 특목고 출신 합격자가 1%내인 지역균형선발전형보다 특목고생들에게 유리함을 볼 수 있다.



3) 정시-일반전형: 수능시험 어려울 경우 특목고생 유리

정시 일반전형은 1단계 수능성적에 의해 2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교과영역(내신, 40%)과 비교과영역(10%), 수능(20%) 논술고사(30%)으로 선발한다. 1단계에서 수능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점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09년까지 2단계에 포함되어 있던 면접 및 구술고사가 폐지되고 수능이 반영되면서, 수능의 중요도는 상승했다. 수능이 상대적으로 쉬웠고, 면접 및 구술고사가 폐지된 2010학년에는 일반고 출신의 합격자 비중이 전년대비 1.4%p 상승했다. 반면, 수능이 어려웠던 2011학년은 일반고 출신의 합격자비중은 72.1%으로 전년대비 4.3%p 하락했다. 따라서, 수능이 어려울수록, 상대적으로 수능점수가 높은 특목고생들에게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2012학년도는 2단계에서 교과영역(내신) 비중인 30으로 줄어든 반면, 수능의 비중은 기존 20에서 30으로 상향되면서 수능의 영향력이 더 상승했다.

4) 미대 및 음대

서울예고는 2007, 2008, 2011학년도에 전국 고등학교 중 가장 많은 합격자 수를 기록했다(2009, 2010학년도는 서울과고에 이어 2등, 매년 70~90명 이상 합격). 서울대학교의 미대 및 음대 전형은 타 계열대비 예고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음대, 무용은 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콩쿠르의 수상경력이 지원자격에 필수이고, 정시에서도 타계열대비 학생부 반영 비중은 낮은 반면, 실기고사와 면접 및 구술이 전체 전형 200점 중 100~150점으로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특목고 출신 분석

한편, 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사정에서 특목고 대비 일반고 출신 합격자 수의 감소는

1)수시-특기자전형 확대, 2)어려워진 수능, 3)자사고 확대에 기인한다.

1) 수시전형 중 특기자전형 확대

2011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발전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영역으로 교과영역(내신)으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교과영역 80점, 서류평가 10점, 면접 및 구술고사 10점을 반영한다. 교과영역의 점수 환산이 과목별 석차에 의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어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 출신의 합격자는 전무함을 볼 수 있다.

반면, 특기자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100)에서 특정교과목 이수단위, 각종 올림피아드 및 대외 수상경력을 기준으로 선발,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60점, 논술고사를 40점 반영하기 때문에 교외활동과 수상경력이 화려한 특목고 출신이 유리한 전형이다. 그런데, 서울대 수시(정원내)의 지역균형발전전형은 선발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특기자전형은 2008학년도 928명 → 2011학년도 1,155명으로 선발인원 지속적 확대됨에 따라, 특기자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의 비중도 높아짐을 볼 수 있다

2) 2011학년도 어려워진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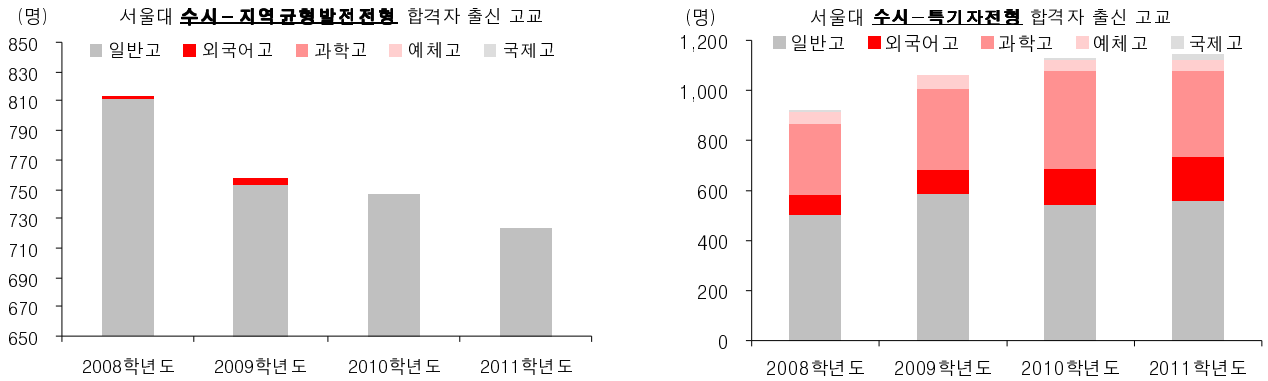
정시전형에 존재했던 면접 및 구술전형을 수능으로 대체한 2010학년도를 제외하면, 특목고 출신 비중은 꾸준히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정시는 1단계에서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수능점수가 높은 특목고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수능이 어려웠던 2011년에는 면접 및 구술전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출신이 강세를 기록했음을 볼 수 있다.

3) 2010년 자율고 지정 본격화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자립형사립고 6곳(하나고, 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고, 2010년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본격화(2009년 25개 → 2010년 총 51개)됨에 따라 일반고 출신 합격자수는 더욱 감소했다.



도표 11 서울대 수시: 특기자전형은 지역균형발전전형보다 특목고 및 국제고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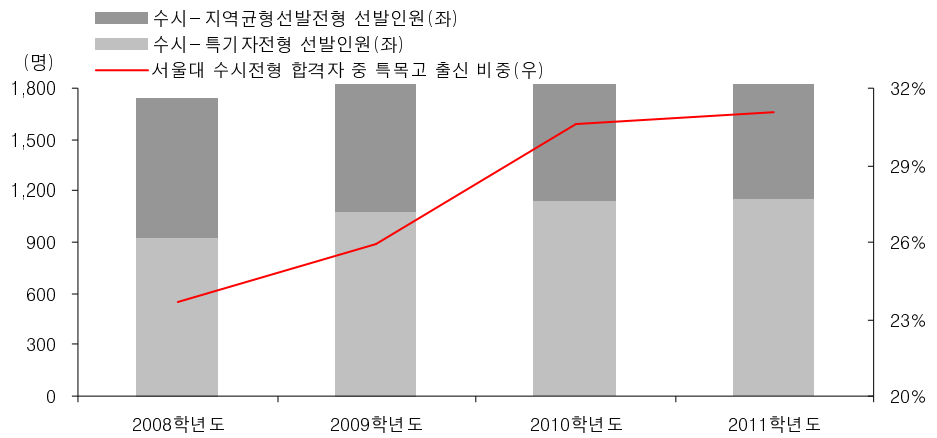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1: 일반고는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포함

주2: 선발 및 모집인원 총계는 정원의 전형인 수시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정시의 특수교육전형 제외

도표 12 수시-특기자전형 선발인원 수 확대 → 전체 서울대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 비중 확대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1: 일반고는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포함

주2: 선발 및 모집인원 총계는 정원의 전형인 수시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정시의 특수교육전형 제외



도표 13 2011학년도 전국 서울대합격 고등학교 상세(1명 합격 제외)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서울예술고	종로구	89	광주인성고	남구	10	대전대신고	서구	6	가락고	송파구	4
대원외국어고	광진구	70	김해외국어고	김해시	10	동래고	동래구	6	강동고	강동구	4
세종과학고	구로구	49	동북고	강동구	10	동아고	사하구	6	거창고	거창군	4
한성과학고	서대문구	46	오성고	수성구	10	양정고	양천구	6	거창대성고	거창군	4
용인외국어고	용인시	44	진선여자고	강남구	10	오산고	용인구	6	경남외국어고	양산시	4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진구	41	경북고	수성구	9	마포고	강서구	6	경일여자고	남구	4
서울과학고	종로구	37	대구과학고	수성구	9	배재고	강동구	6	경주여자고	경주시	4
대일외국어고	성북구	36	양재고	서초구	9	세화여자고	서초구	6	공주고	공주시	4
명덕외국어고	강서구	34	울산과학고	울주군	9	청담고	강남구	6	광양제철고	광양시	4
민족사관고	횡성군	34	이화여자외국어고	중구	9	청원고	노원구	6	대이고	진주시	4
안산동산고	안산시	33	동화고	남양주시	9	충주고	충주시	6	대원여자고	광진구	4
상산고	전주시	31	서울고	서초구	9	해운대고	해운대구	6	대일고	강서구	4
경기과학고	수원시	30	수지고	용인시	9	경기여자고	강남구	5	대전고	중구	4
포항제철고	포항시	30	창덕여자고	송파구	9	경상고	북구	5	대전문산여자고	서구	4
고양외국어고	고양시	28	현대고	강남구	9	경신고	종로구	5	덕원예술고	강서구	4
한영외국어고	강동구	27	고려고	북구	8	광주과학고	남구	5	동덕여자고	서초구	4
국악고	강남구	26	공주대시대부고	공주시	8	광주대동고	남구	5	동인고	동래구	4
선화예술고	광진구	24	대기고	제주시	8	김포고	김포시	5	양명고	안양시	4
인양외국어고	안양시	22	덕원고	수성구	8	낙생고	성남시	5	양신제일고	양산시	4
중동고	강남구	20	은광여자고	강남구	8	논산대건고	논산시	5	영남고	달서구	4
한일고	공주시	20	명덕고	강서구	8	대구외국어고	달서구	5	영신여자고	수원시	4
부산과학고	연제구	19	부산외국어고	연제구	8	대성고	중구	5	영일고	강서구	4
경남과학고	진주시	18	서현고	성남시	8	대전중앙고	중구	5	영흥고	목포시	4
계원예술고	성남시	18	숙명여자고	강남구	8	대진고	노원구	5	웅산고	용인구	4
과천외국어고	과천시	18	중앙대시대부고	강남구	8	인동고	안동시	5	우신고	남구	4
휘문고	강남구	17	진성고	광명시	8	입구정고	강남구	5	이화여자고	중구	4
경기외국어고	의왕시	16	경북고	종로구	7	언남고	서초구	5	저동고	고양시	4
단국대시대부고	강남구	16	대진여자고	노원구	7	연수고	연수구	5	전남과학고	나주시	4
대전외국어고	서구	16	양서고	양평군	7	영동일고	송파구	5	전북과학고	익산시	4
영동고	강남구	15	유성고	유성구	7	예문여자고	남구	5	전일고	전주시	4
부산국제고	부산진구	15	의정부고	의정부시	7	오현고	제주시	5	전주솔내고	전주시	4
동두천외국어고	동두천시	14	인천국제고	중구	7	잠신고	송파구	5	등촌고	강서구	4
반포고	서초구	14	불암고	노원구	7	잠실고	송파구	5	배화여자고	종로구	4
성남외국어고	성남시	14	서강고	북구	7	재현고	노원구	5	백영고	안양시	4
종산고	강남구	14	서초고	서초구	7	둔촌고	강동구	5	복자여자고	천안시	4
현대청운고	동구	14	수원외국어고	수원시	7	명덕여자고	강서구	5	부산국제외국어고	해운대구	4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시	13	송덕고	광신구	7	명지고	서대문구	5	부천고	부천시	4
경신고	수성구	13	신성고	안양시	7	문성고	남구	5	삼성여자고	사하구	4
인천과학고	중구	12	정화여고	수성구	7	배명고	송파구	5	상계고	노원구	4
보성고	송파구	12	창현고	수원시	7	배문고	용인구	5	서대전고	서구	4
서울국제고	종로구	12	충남과학고	공주시	7	북일고	천안시	5	서울외국어고	도봉구	4
강서고	양천구	11	충북고	청주시	7	상문고	서초구	5	서일고	유성구	4
강원과학고	원주시	11	개포고	강남구	6	서문여자고	서초구	5	성광고	북구	4
경기고	강남구	11	광명북고	광명시	6	세광고	청주시	5	세일고	부평구	4
대륜고	수성구	11	금호고	북구	6	조선대부속고	동구	5	수리고	군포시	4
대전과학고	유성구	11	능인고	수성구	6	진주동명고	진주시	5	순천매산고	순천시	4
서리별고	노원구	11	대광여자고	남구	6	청주고	청주시	5	신목고	양천구	4
세화고	서초구	11	대덕고	유성구	6	춘천고	춘천시	5	중경고	용인구	4
한영고	강동구	11	대성고	은평구	6	충남고	서구	5	창신고	마산시	4
광남고	광진구	10	대연고	남구	6	학익고	남구	5	창원남고	창원시	4

자료: 국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2011학년도 전국 서울대입격 고등학교 상세(1명 합격 제외)(continued)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가락고	송파구	4	창원문성고	창원시	4	이리고	익산시	3	가락고	송파구	4
강동고	강동구	4	청주대성고	청주시	4	익산고	익산시	3	강동고	강동구	4
거창고	거창군	4	춘천여자고	춘천시	4	인창고	서대문구	3	거창고	거창군	4
거창대성고	거창군	4	충남외국어고	아산시	4	인천공항고	중구	3	거창대성고	거창군	4
경남외국어고	양산시	4	총암고	은평구	4	인천대건고	연수구	3	경남외국어고	양산시	4
경일여자고	남구	4	포항영신고	포항시	4	일산대진고	고양시	3	경일여자고	남구	4
경주여자고	경주시	4	강릉고	강릉시	3	일신여자고	청주시	3	경주여자고	경주시	4
공주고	공주시	4	강릉여자고	강릉시	3	장안고	수원시	3	공주고	공주시	4
광양제철고	광양시	4	건국대사대부고	광진구	3	장흥고	장흥군	3	광양제철고	광양시	4
대아고	진주시	4	경북과학고	포항시	3	전북대사대부고	전주시	3	대아고	진주시	4
대원여자고	광진구	4	경북예술고	남구	3	전주한일고	전주시	3	대원여자고	광진구	4
대일고	강서구	4	경인고	안산시	3	정광고	광안구	3	대일고	강서구	4
대전고	중구	4	경원고	달서구	3	동천고	남구	3	대전고	중구	4
대전둔산여자고	서구	4	경주고	경주시	3	미산용마고	미산시	3	대전둔산여자고	서구	4
덕원예술고	강서구	4	경희고	동대문구	3	미산제일고	미산시	3	덕원예술고	강서구	4
동덕여자고	서초구	4	고려대사대부고	성북구	3	미신제일여자고	미산시	3	동덕여자고	서초구	4
동인고	동래구	4	공주금성여자고	공주시	3	목동고	양천구	3	동인고	동래구	4
양명고	안양시	4	광성고	마포구	3	방산고	송파구	3	양명고	안양시	4
양산제일고	양산시	4	광주고	동구	3	백신고	고양시	3	양산제일고	양산시	4
영남고	달서구	4	광주서석고	서구	3	보문고	동구	3	영남고	달서구	4
영신여자고	수원시	4	광주제일고	북구	3	보인고	송파구	3	영신여자고	수원시	4
영일고	강서구	4	광주중앙여자고	북구	3	부광고	부평구	3	영일고	강서구	4
영흥고	목포시	4	국제고	북구	3	부산남일고	수영구	3	영흥고	목포시	4
용산고	용산구	4	권선고	수원시	3	부산예술고	금정구	3	용산고	용산구	4
우신고	남구	4	김포외국어고	김포시	3	부평고	부평구	3	우신고	남구	4
이화여자고	중구	4	남성고	익산시	3	분당대진고	성남시	3	이화여자고	중구	4
저동고	고양시	4	능곡고	고양시	3	불곡고	성남시	3	저동고	고양시	4
전남과학고	나주시	4	능주고	화순군	3	삼천포고	사천시	3	전남과학고	나주시	4
전북과학고	익산시	4	대구남산고	수성구	3	상명고	노원구	3	전북과학고	익산시	4
전일고	전주시	4	대구상원고	달서구	3	서령고	서산시	3	전일고	전주시	4
전주솔내고	전주시	4	대동고	포항시	3	서울대사대부고	성북구	3	전주솔내고	전주시	4
등촌고	강서구	4	대성여자고	남구	3	선유고	영등포구	3	등촌고	강서구	4
배화여자고	종로구	4	대영고	영주시	3	성남고	동작구	3	배화여자고	종로구	4
백영고	안양시	4	대전전민고	유성구	3	성도고	북구	3	백영고	안양시	4
복자여자고	천안시	4	동대전고	대덕구	3	성신고	중구	3	복자여자고	천안시	4
부산국제외국어고	해운대구	4	동암고	전주시	3	세원고	고양시	3	부산국제외국어고	해운대구	4
부천고	부천시	4	동원고	수원시	3	송원여자고	남구	3	부천고	부천시	4
삼성여자고	사하구	4	동작고	동작구	3	수내고	성남시	3	삼성여자고	사하구	4
상계고	노원구	4	야탑고	성남시	3	수성고	수원시	3	상계고	노원구	4
서대전고	서구	4	양천고	양천구	3	수원고	수원시	3	서대전고	서구	4
서울외국어고	도봉구	4	여의도여자고	영등포구	3	송덕여자고	남동구	3	서울외국어고	도봉구	4
서일고	유성구	4	영진고	북구	3	송실고	은평구	3	서일고	유성구	4
성광고	북구	4	영훈고	강북구	3	송의여자고	동작구	3	성광고	북구	4
세일고	부평구	4	용문고	성북구	3	신서고	양천구	3	세일고	부평구	4
수리고	군포시	4	우성고	의왕시	3	신성여자고	제주시	3	수리고	군포시	4
순천매산고	순천시	4	우송고	동구	3	신송고	연수구	3	순천매산고	순천시	4
신목고	양천구	4	울산중앙고	중구	3	신일고	강북구	3	신목고	양천구	4
중경고	용산구	4	원주고	원주시	3	신평고	당진군	3	중경고	용산구	4
창신고	마산시	4	원주여자고	원주시	3	심인고	남구	3	창신고	마산시	4
창원남고	창원시	4	월계고	노원구	3	정발고	고양시	3	창원남고	창원시	4

자료: 국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2011학년도 전국 서울대합격 고등학교 상세(1명 합격 제외)(continued)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가락고	송파구	4	창원문성고	창원시	4	이리고	익산시	3	제주과학고	제주시	3
강동고	강동구	4	청주대성고	청주시	4	익산고	익산시	3	중화고	종량구	3
거창고	거창군	4	춘천여자고	춘천시	4	인창고	서대문구	3	진주중앙고	진주시	3
거창대성고	거창군	4	충남외국어고	아산시	4	인천공항공고	중구	3	창문여자고	강북구	3
경남외국어고	양산시	4	총암고	은평구	4	인천대건고	연수구	3	창원고	창원시	3
경일여자고	남구	4	포항영신고	포항시	4	일산대진고	고양시	3	창평고	담양군	3
경주여자고	경주시	4	강릉고	강릉시	3	일신여자고	청주시	3	천안고	천안시	3
공주고	공주시	4	강릉여자고	강릉시	3	장안고	수원시	3	청석고	청주시	3
광양제철고	광양시	4	건국대사대부고	광진구	3	장흥고	장흥군	3	충남예술고	천안시	3
대이고	진주시	4	경북과학고	포항시	3	전북대사대부고	전주시	3	충북여자고	청주시	3
대원여자고	광진구	4	경북예술고	남구	3	전주한일고	전주시	3	충주여자고	충주시	3
대일고	강서구	4	경안고	안산시	3	정광고	광산구	3	통영고	통영시	3
대전고	중구	4	경원고	달서구	3	동천고	남구	3	평촌고	안양시	3
대전둔산여자고	서구	4	경주고	경주시	3	마산용마고	마산시	3	포항예술고	포항시	3
덕원예술고	강서구	4	경희고	동대문구	3	마산제일고	마산시	3	풍산고	안동시	3
동덕여자고	서초구	4	고려대사대부고	성북구	3	마산제일여자고	마산시	3	학다리고	함평군	3
동인고	동래구	4	공주금성여자고	공주시	3	목동고	양천구	3	한서고	강서구	3
양명고	인양시	4	광성고	마포구	3	방산고	송파구	3	한성고	서대문구	3
양산제일고	양산시	4	광주고	동구	3	백신고	고양시	3	한솔고	성남시	3
영남고	달서구	4	광주서석고	서구	3	보문고	동구	3	한영고	여수시	3
영신여자고	수원시	4	광주제일고	북구	3	보인고	송파구	3	해룡고	영광군	3
영일고	강서구	4	광주중앙여자고	북구	3	부광고	부평구	3	해광고	중구	3
영흥고	목포시	4	국제고	북구	3	부산남일고	수영구	3	해원여자고	종량구	3
용산고	용산구	4	권선고	수원시	3	부산예술고	금정구	3	호남제일고	전주시	3
우신고	남구	4	김포외국어고	김포시	3	부평고	부평구	3	화곡고	강서구	3
이화여자고	중구	4	남성고	익산시	3	분당대진고	성남시	3	효원고	수원시	3
저동고	고양시	4	능곡고	고양시	3	불곡고	성남시	3	기좌고	서구	2
전남과학고	나주시	4	능주고	화순군	3	삼천포고	사천시	3	강북고	북구	2
전북과학고	익산시	4	대구남산고	수성구	3	상명고	노원구	3	가제고	가제시	2
전일고	전주시	4	대구상원고	달서구	3	서명고	서산시	3	건국고	사하구	2
전주술내고	전주시	4	대동고	포항시	3	서울대사대부고	성북구	3	경동고	성북구	2
등촌고	강서구	4	대성여자고	남구	3	선유고	영등포구	3	경북대사대부고	중구	2
배화여자고	종로구	4	대영고	영주시	3	성남고	동작구	3	경북여자고	중구	2
백영고	인양시	4	대전전민고	유성구	3	성도고	북구	3	경산고	경산시	2
복자여자고	천안시	4	동대전고	대덕구	3	성신고	중구	3	경신과학고	경산시	2
부산국제외국어고	해운대구	4	동암고	전주시	3	세원고	고양시	3	경성고	마포구	2
부천고	부천시	4	동원고	수원시	3	송원여자고	남구	3	경원고	부산진구	2
삼성여자고	사하구	4	동작고	동작구	3	수내고	성남시	3	경해여자고	진주시	2
상계고	노원구	4	야탑고	성남시	3	수성고	수원시	3	경해여자고	북구	2
서대전고	서구	4	양천고	양천구	3	수원고	수원시	3	경화여자고	광주시	2
서울외국어고	도봉구	4	여의도여자고	영등포구	3	송덕여자고	남동구	3	계남고	부천시	2
서일고	유성구	4	영진고	북구	3	송실고	은평구	3	계산고	계양구	2
성광고	북구	4	영훈고	강북구	3	송의여자고	동작구	3	계성고	중구	2
세일고	부평구	4	용문고	성북구	3	신서고	양천구	3	고척고	구로구	2
수리고	군포시	4	우성고	의왕시	3	신상여자고	제주시	3	과천중앙고	과천시	2
순천매산고	순천시	4	우송고	동구	3	신송고	연수구	3	광덕고	서구	2
신목고	양천구	4	울산중앙고	중구	3	신일고	강북구	3	광동고	남양주시	2
중경고	용진구	4	원주고	원주시	3	신평고	당진군	3	광문고	강동구	2
창신고	마산시	4	원주여자고	원주시	3	심인고	남구	3	광성고	중구	2
창원남고	창원시	4	월계고	노원구	3	정발고	고양시	3	광영고	양천구	2

자료: 국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16 2011학년도 전국 서울대합격 고등학교 상세(1명 합격 제외)(continued)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출신고교	지역	합격 인원
광영여자고	양천구	2	영덕고	수원시	2	마산중앙고	마산시	2	제주제일고	제주시	2
광주동신고	북구	2	영등포여자고	영등포구	2	매원고	수원시	2	제천고	제천시	2
광주동신여자고	북구	2	영복여자고	수원시	2	목포덕인고	목포시	2	조치원고	연기군	2
광주석산고	남구	2	영생고	수원시	2	목포여자고	목포시	2	주엽고	고양시	2
광주수피아여자고	남구	2	영신고	동구	2	무원고	고양시	2	중원고	부천시	2
광주송일고	북구	2	영주고	영주시	2	무학여자고	성동구	2	중일고	유성구	2
광주예술고	북구	2	예산여자고	예산군	2	문일고	금천구	2	진건고	남양주시	2
광주중앙고	광주시	2	에일여자고	은평구	2	문일여자고	남동구	2	진명여자고	양천구	2
광주진흥고	광산구	2	온양고	이산시	2	문태고	목포시	2	진주고	진주시	2
구리고	구리시	2	온양한울고	이산시	2	문화고	경주시	2	창원명지여자고	창원시	2
구미고	구미시	2	와부고	남양주시	2	반송고	화성시	2	창원봉림고	창원시	2
구암고	북구	2	완산고	전주시	2	백석고	고양시	2	철원고	철원군	2
구일고	구로구	2	용인고	동래구	2	부광여자고	부평구	2	첨단고	광산구	2
군산고	군산시	2	윤천고	오산시	2	부천여자고	부천시	2	청구고	동구	2
군포고	군포시	2	윤호고	청주시	2	부흥고	해운대구	2	청심국제고	가평군	2
금곡고	북구	2	울산경의고	울주군	2	북평고	동해시	2	청원고	청원군	2
금오여자고	구미시	2	웅상고	양산시	2	분당중앙고	성남시	2	청원여자고	노원구	2
기장고	기장군	2	원곡고	안산시	2	브니엘고	금정구	2	청학고	남양주시	2
김해고	김해시	2	원광고	익산시	2	브니엘여자고	금정구	2	충렬여자고	통영시	2
나주고	나주시	2	원화여자고	달서구	2	사천고	사천시	2	충북대시대부고	청주시	2
남강고	관악구	2	유신고	수원시	2	신본고	군포시	2	태장고	수원시	2
남녕고	제주시	2	은혜고	평택시	2	삼산고	남구	2	토평고	구리시	2
남대전고	중구	2	의정부여자고	의정부시	2	상암고	마포구	2	통영여자고	통영시	2
남산고	금정구	2	이리남성여자고	익산시	2	상일여자고	서구	2	평택고	평택시	2
남주고	서귀포시	2	이리여자고	익산시	2	서울세종고	강남구	2	포항고	포항시	2
남해고	남해군	2	이시별고	연제구	2	서원고	청주시	2	풍동고	고양시	2
늘푸른고	성남시	2	이우고	성남시	2	석관고	성북구	2	풍문여자고	종로구	2
달성고	서구	2	인명여자고	남구	2	선덕고	도봉구	2	하남고	하남시	2
대건고	달서구	2	인제고	남동구	2	선인고	남구	2	학남고	북구	2
대광고	동대문구	2	인천고	남구	2	선정고	은평구	2	학산여자고	동래구	2
대구여자고	수성구	2	인천박문여자고	동구	2	선주고	구미시	2	학성고	남구	2
대구제일고	서구	2	인천부흥고	부평구	2	설월여자고	남구	2	학익여자고	남구	2
대구혜화여자고	수성구	2	인천외국어고	부평구	2	성보고	관악구	2	한가람고	양천구	2
대동고	사하구	2	인항고	남구	2	성일고	성남시	2	한국교원대부설고	청원군	2
대신고	여주군	2	일산동고	고양시	2	성일여자고	성남시	2	한양대시대부고	성동구	2
대신고	종로구	2	자양고	광진구	2	세종고	밀양시	2	함창고	상주시	2
대인고	서구	2	자운고	도봉구	2	소사고	부천시	2	합포고	마산시	2
대전노은고	유성구	2	작전고	계양구	2	송도고	연수구	2	해운대여자고	해운대구	2
대전지족고	유성구	2	잠실여자고	송파구	2	수원여자고	수원시	2	해성여자고	노원구	2
동명여자고	은평구	2	장성고	장성군	2	숙지고	수원시	2	해화여자고	강북구	2
동성고	종로구	2	장충고	중구	2	순천매산여자고	순천시	2	홍성고	홍성군	2
동아여자고	남구	2	전곡고	연천군	2	송신여자고	성남시	2	홍익대시대부고	성북구	2
동안고	안양시	2	전남여자고	동구	2	신림고	관악구	2	홍천고	용인시	2
동일여자고	금천구	2	전라고	전주시	2	심석고	남양주시	2	화명고	북구	2
안남고	계양구	2	전북외국어고	군산시	2	심원고	부천시	2	화성고	화성시	2
양정고	부신진구	2	전주고	전주시	2	정의여자고	도봉구	2	화수고	고양시	2
여수고	여수시	2	전주근영여자고	전주시	2	제물포고	중구	2	화정고	고양시	2
여천고	여수시	2	전주신흥고	전주시	2	제주대시대부고	제주시	2	화흥고	수원시	2
연제고	연제구	2	전통예술고	금천구	2	제주여자고	제주시	2	효문고	도봉구	2

자료: 국회, 유진투자증권



외고 입시 어떻게 변했나?

- 외고 갈려면 영어내신 + 입학사정관 준비하세요

Q) 외고 갈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A) 영어내신 160점, 그리고 입학사정관 면접 40점이오니 영어내신에 올인, 그리고 입학사정관 면접은 베타치기가 안되니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접하면 한마디로 ‘열정은 뛰어나나 막연한 한석봉 어머니’들이 여전히 많으시다. 2011학년도 외고입시에서 더 이상 영어 듣기평가, 구술면접이 통용되지 않으나, 여전히 외고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올해 2011학년도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변경되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영어내신성적 중요성 확대와 기존에 당락을 좌우한 각종 영어듣기평가 및 영어 구술면접, 인증시험(TOEIC, TOEFL, TEPS등) 및 경시대회 성적 이용 금지이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내신 5개 과목 성적과 서류(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시험)로 2배수를 뽑은 후 교과지식 구술면접과 영어듣기 평가가 당락을 좌우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2011학년도 입시)부터 각종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형 요소를 일체 금지하고, 학생의 잠재력만으로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했다(도표 17 참조).

도표 17 외고/국제고 입시안 변경: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 영어 내신성적 중요성 확대, 입학사정관 면접 도입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주도학습			
구분	내용	1단계 (160점)		2단계 (200점)	
내신	전과목 혹은 5개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방법	영어 내신 성적 (160점) + 출결 (감점)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160점)	+ 면접 (40점) + 신체검사 (Pass/Fail)
면접	교과지식 구술면접(심층면접)	평가 영역	- 4개 학기 영어 등급 합산 - 중2~3학년 성적 가중치 - 9등급제로 평가	-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 봉사체험활동 - 독서활동 등
듣기 평가	영어 듣기 평가	평가 지표	입학원서 (영어 등급만 기재) 학교생활 기록부	입학원서	- 학습계획서 - 추천서 (교사 및 교장) -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시험 성적	기타	- 학생부 출력 시, 교과성적 제외하고 출력 - 영어성적과 면접 반영 비율은 사도 교육청에서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일체의 인증 시험 및 경시대회 성적 기재 불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각 언론사, 유진투자증권



자기주도학습전형은 1단계에서 영어내신성과 학습계획서(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체험활동서, 독서활동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배수를 뽑은 후, 2차에서 1차 서류를 바탕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입학사정관 면접’을 시행한다. 2차 면접에서는 시, 도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이 면접에 참여해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성적, 영재교육원 수료 등 교과 활동의 부가적 성적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 감점을 한다.

1차에서 입학원서 서류를 제외하고 사실상 영어내신성적만으로 면접 대상인원을 뽑기 때문에, 영어내신 성적은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영어내신성적을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제로 반영하는데,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의 영어 성적이 1등급인 상위 4%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어 내신 성적은 사실상 1등급을 받아야 유리하다.

영어 내신(총 200점 만점에서 160점 차지) 역시 중학교 1학년 내신은 제외한 중학교 2학년 1,2학기 중학교 3학년 1,2학기 총 4학기의 내신만은 반영하기 때문에 외고 입학이 목적이라면 중학교 2, 3학년 영어내신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점 만점에서 40점을 차지하는 입학사정관 면접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15점), 봉사 및 체험활동(15점), 독서활동(10점)으로 3가지 영역에서 고루 점수 배분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입학사정관 면접 대비용 각종 ‘자기주도 학습전형 학습계획서’를 대필해 주는 사례가 나오면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어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표 18 제출 서류 및 내용(자기주도학습전형): 사교육 영향 요소 일체 기재 불가

제출서류		작성주체	기재 항목	
1. 학습계획서		학생 본인	지원동기	- 전공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 온 과정
			학습과정	-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진로계획	- 고등학교 입학 후 학습계획 및 졸업 후 진로계획
			봉사/체험활동	- 2권의 책 선정, 독서 후 느낀 점과 향후 진로에 끼친 영향
2.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장	해당 중학교의 교육 목표와 특징적 교육 내용 및 추천 학생의 부합 여부	
	교사 추천서	담임교사, 영어담당 교사	전공 및 진로 평가	- 학생의 전공 의지 및 진로계획이 추천할 고교의 설립목표, 교육과정 등에 일치 여부
			학습과정 평가	- 학생 학습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봉사/체험활동 평가	- 학생의 봉사 및 체험활동 자세, 경험 평가
3. 학교생활 기록부			독서활동 평가	- 학교 독서활동 지도내용과 지원학생 독서활동 평가
				-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활동 상황, 특별활동 상황, 교외체험학습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 독서활동사항 추가
				- 경시 대회 수상 경력 및 인증 점수는 학생기록부에서 삭제 - 교과성적은 출력 시 제외
제출서류 기재 불가 사항			- TOEFL, TOEIC, TEPS,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및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 입력 불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도표 19 1단계: 학기 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 방식 → 영어내신 등급별 적용(160점)

등급	석차백분율 (대상인원)	환산점수	등급	석차백분율 (대상인원)	환산점수
1	~ 4% 이하(4%)	40	6	60%초과 ~ 77% 이하(17%)	16
2	4% 초과 ~ 11% 이하(7%)	38.4	7	77%초과 ~ 89% 이하(12%)	9.2
3	11% 초과 ~ 23% 이하(12%)	35.6	8	89% 초과 ~ 96% 이하(7%)	4.4
4	23% 초과 ~ 40% 이하(17%)	30.8	9	96% 초과 ~ 100% 이하(4%)	1.6
5	40% 초과 ~ 60% 이하(20%)	24	※ 환산점수 = 40 - 0.4 X 급간 상위 백분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주: 영어성적 환산식: 환산점수 = 40-0.48(급간별 상위 백분율)

도표 20 2단계: 면접 평가 영역-1단계 제출 서류 기반, 진위여부 판단

구분	평가영역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의지: 전공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준비 - 자기주도 학습과정: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과 이를 통해 느낀점 - 관심을 갖게 된 후 지원학과와 관련해 스스로 노력해온 학습 과정 - 고등학교 입학 이후 학습계획
봉사 및 체험활동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중, 방학중 봉사, 체험 활동 결과와 느낀 점 - 고등학교 입학 이후 관심있는 활동
독서활동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동안의 교과, 진로, 교양관련 독서 결과 - 독서를 통해 느낀 점 및 진로에 끼친 영향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추천서의 내용과 확인해가며 일치하는지 면접을 통해 판단 - 기타 교과 지식을 묻는 내용의 질문 일체 금지 - 경시대회 수상 및 인증시험 성적 등 언급 시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도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이 면접에 참여해 상위 내용을 확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도표 21 대원외고 2011학년도 입학원서 사례 (2011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학습계획서)

1. 지원동기	- 본인이 외국어고의 해당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600자 이내)
2. 학습과정 및 진로 계획	-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하고, 평가해 온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이를 통해 느꼈던 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고등학교 입학 후 본인의 학습계획과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600자 이내)
3. 봉사 및 체험활동	- 봉사 및 체험활동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그 활동 경험의 내용과 어떤 점이 가장 인상깊게 느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600자 이내)
4. 독서 경험	- 본인이 읽은 책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2권을 선정하여 내용과 감상을 적어 주십시오.(600자 이내, 대리 작성 혹은 표절시에는 0점 처리함)

자료: 대원외고,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2011학년도 대원외고 신입생 입학원서 사례

접수번호	※	수험번호	※	접수대조필	※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별	남 . 여	연락처	본인	
		우편번호:			보호자	☞
	학력	년 월 중학교 학년 반 [졸업예정(), 졸업(), 검정고시합격()]				
지망학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영어과
전형구분	사회적배려 대상자	체육특기자	일반전형	국가유공자	특례입학 대상자	외국인전형
	전형	전형		전형	전형	
졸결(1~3학년)	무단결석()회, 무단지각,조퇴,결과()회			봉사활동(1,2,3학년)	(/ /)시간	
영성적	학년	2 학년		3 학년		
	등급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담임교사 성적확인	()학년 ()반 담임교사 () □ □					
<p>사 진 (3cm x 4cm) 최근 3개월 이내 인터넷 업로드</p> <p>출신 학교장 직인</p>		<p>위 학생은 2011 학년도 귀교 제 1 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p> <p>2010 년 월 일</p> <p>보호자: (인)</p> <p>지원자: (인)</p> <p>대 원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귀하</p>				
<p>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p> <p>2010 년 월 일</p> <p>() 중 학 교 장 (직인)</p>						

자료: 대원외고, 유진투자증권



Section 2. 과학고/ 과학영재고



과학고등학교 현황(19개교)

도표 23 전국 과학고등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	시/도	학교명
서울	세종과학고	충북	충북과학고
	한성과학고	충남	충남과학고
부산	부산과학고	전북	전북과학고
대구	동대구과학고	전남	전남과학고
인천	인천과학고	경북	경북과학고
광주	광주과학고		경산과학고
대전	대전과학고	경남	경남과학고
울산	울산과학고		창원과학고
경기	경기북과학고	제주	제주과학고
강원	강원과학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주: 동대구과학고, 창원과학고 2011학년도 개교

과학영재고등학교 현황(4개교)

도표 24 전국 과학영재고등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	비고
서울	서울과학영재고	서울과고가 2009학년도 전환
부산	한국과학영재고	
대구	대구과학영재고	대구과고가 2011학년도 전환
경기	경기과학영재고	경기과고가 2010학년도 전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과학고 입시 어떻게 변했나?

- 과학고 갈려면 과학, 수학내신 + 학습계획서 + 과학캠프 준비하세요

Q) 과학고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수학, 과학 내신성적 관리 및 수학, 과학과 관련된 이력 중심으로 학습계획서를 작성한다

A2) 과학영재고와 과학고는 복수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고를 준비한다면 과학영재고 입시에 도전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과학고는 19개, 과학영재고는 4개이다. 과학영재고는 과학고 대비, 무학년 졸업학점제, 학력우수자를 위한 AP, PT제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과고, 외고 등과 복수 지원 가능함에 따라 대부분 과학영재고를 지원한 후 탈락하면 과학고나 외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과학영재고는 평균경쟁률이 20:1 를 넘어서고 있다.

도표 25 과학고 vs 과학영재고

	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고등학교
학교분류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 국제고, 예고, 체육고 등)내에 포함	- 영재학교라는 독립된 분류에 포함
수업방식	- 보통교과 + 전문교과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의 대부분을 보통교과로 학습 + 추가로 수학, 과학 분야의 전문교과 수학) - 대부분 2년 만에 조기 졸업 후 KAIST나 GIST 등 별도 전형으로 진학	- 교육과정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 자율로 정해짐 - 과고나 일반계고와 같이 국민공통교육과정 이수 의무는 없음 - 일반적으로 1학년 필수교과 중심 + 2,3학년 심화과정인 선택교과로 구성 - 한국영재고, 서울영재고는 무학년 졸업학점제 (학년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목 이수 후 필요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 필요학점 이수 후 조기졸업 가능) 실시 - 학력우수자를 위한 AP제도, PT제도 운영(AP제도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도: 대학과정 미리 이수 후 학점 인정, PT제도는 학점인정시험: 고교에서 과목이수 안해도 시험만 통과하면 학점 인정, 조기졸업 가능) - 조기졸업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수업 커리큘럼 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모집시기	- 영재고보다 늦게 전형 시작 - 대부분 8월말~9월초 서류접수 후 10~11월 전형 시작	- 과고보다 일찍 전형 시작 - 대부분 4월말~6월 서류 접수 후 6~7월 전형 시작
모집지역	- 광역시, 도 단위 선발(학생이 다니는 중학교 지역 내 과고에만 지원 가능)	- 전국단위 모집
입학전형	- 자기주도 학습전형 - 과학창의성전형	- 전형방법 다양. 일반적으로 제출 기록물 평가, 영재성 창의적문제해결력 등 여러 전형을 통한 다면평가 + 캠프
복수지원여부	- 기타 전기학교와 복수 지원 불가	- 과고, 외고등과 복수 지원 가능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과학고 전형은 크게 입학사정관전형인 '자기주도학습전형'과 '과학창의성전형'으로 구분된다. 2012학년도 전형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선발비중이 전년 30%에서 50%로 상승되면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이 확대된 점이다. 특히, 과학고와 과학영재고는 복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고를 준비한다면 과학영재학교의 서류준비 과정과 과학캠프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 과학고 입시에 탁월한 도움이 된다. 또한, 과학영재고의 영재성 입증자료로 제출한 실적물을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입학사정관 면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영재학교 입시전형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이다.

도표 26 과학고 입시 변경안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사정관) 50%	1단계	입학사정관 활동	2단계
	중학교장 추천	2~3개월 내외로 자료검증 추가 자료 확보 및 면접 대상자 확정	면접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 면접결과와 내신성적으로 합격자 선발
과학창의성전형 (입학사정관) 50%	1단계	과학캠프 대상자 확정	2단계
	중학교장 추천	과학캠프 1박 2일 이상 다양한 평가도구로 창의성 측정	캠프결과 +내신성적으로 합격자 선발

- 과학캠프는 집단토론 및 실험, 실습 등 학교별로 구성을 다양하게 진행
- 여러 유형의 실험, 실습을 하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해석 능력을 키우고, 토론에 대비,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이 필요
- 학교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불합격한 대상을 자동으로 과학캠프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원서 접수시 두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음
- 단, 과학창의성 전형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의 제한을 두는 학교들이 있으므로 지원 전 희망하는 학교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언론사, 유진투자증권



자기주도학습전형 - 모집인원 50%로 확대

- 1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를 평가해 면접대상자를 선발
- 2단계에서는 방문면접과 개별면접을 통한 종합적인 심사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입학사정관은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의 주변 상황까지 살펴볼 수 있어,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

과학창의성전형 - 선발인원 70% → 50%로 감소, 새로운 평가도구로 난이도 상승

- 지원자격 필수: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수학, 과학 교과 석차 백분율이 상위 10% 이내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최종합격자 결정은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
- 과학캠프: 보통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진행
- 과학창의성전형은 지난해보다 1단계 선발인원수가 줄어들었고, **창의사고력이 요구되는 수학, 과학문제 풀이와 수행평가 등 새로운 유형의 평가도구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돼 난이도 상승 전망
- 과거 과학캠프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를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



도표 27 전국 주요 과학고 입시 변경안(2012학년도)

시/도	학교명	모집 인원 (명) (2012)	모집 지역	전형 유형	자기주도학습전형	과학창의성 전형
서울	세종 과학고	160	서울시	모집인원	80명(50%)	80명(50%)
				지원자격	-서울시 관내 -수학 과학에 높은 열정, 성장가능성, 잠재력 보유자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서울시 관내 -중학교 2학년 1,2학기, 3학년 1학기 수학, 과학 교과 석차 백분율 전체 평균 상위 10%이내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전형방법	-1 단계: 서류평가+ 내신성적(수학, 과학 2학년 1,2,3학년 1학기 성적) -2단계: 방문면접+개별면접	-1 단계: 서류평가+ 내신성적(수학, 과학 2학년 1,2,3학년 1학기 성적) -2단계: 과학 캠프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과제수행능력 등 측정)
서울	한성 과학고	140	서울시	모집인원	70명(50%)	70명(50%)
				지원자격	-서울시 관내 -수학 과학에 높은 열정, 성장가능성, 잠재력 보유자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서울시 관내 -중학교 2학년 1,2학기, 3학년 1학기 수학, 과학 교과 석차 백분율 전체 평균 상위 10%이내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전형방법	-1 단계: 소속학교장 추천 및 면접대상자 선정(2배수) -2단계: 방문면접+개별면접 -내신성적: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수학, 과학	-1 단계: 소속학교장 추천 + 과학캠프 대상자 선정(2배수) -2단계: 과학캠프
부산	부산 과학고	120	부산시	모집인원	70명(50%)	70명(50%)
				지원자격	-부산시 관내 -수학 과학에 높은 열정, 성장가능성, 잠재력 보유자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부산시관내 -중학교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수학, 과학 교과 석차 백분율 전체 평균 상위 10%이내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 비교평가 성적에서 수학, 과학 교과 석차 백분율 각각 상위 10% 이내인자
				전형방법	-1 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1,2차) -내신성적: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수학, 과학	-1 단계: 서류평가 -2단계: 과학캠프 -내신성적: 2학년 1,2학기, 3학년 1,1학기 수학, 과학
경기	경기북 과학고	100	경기도	모집인원	50명(50%)	50명(50%)
				지원자격	-경기도 소재 -수학 과학에 높은 열정, 성장가능성, 잠재력 보유자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경기도 소재 -수학 과학에 높은 열정, 성장가능성, 잠재력 보유자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전형방법	-1 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방문면접과 소집면접) -내신성적: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수학, 과학	-1 단계: 서류평가 -2단계: 과학캠프 -내신성적: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수학, 과학

자료: 각 학교 홈페이지 입시요강,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전국 과학영재고 입시 변경안(2012학년도)

시/도	학교명	모집인원(명) (2012학년도)	모집지역	모집전형	과학영재성 전형(120명)	
서울시	서울과학고 (과학영재학교)	120	전국	지원자격	- 전국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수학 또는 과학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교장, 지도교사, 담임교사 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 지도교사, 담임교사 등의 추천을 받은자	
				전형방법	-1 단계: 학생기록물 평가(추천서/자기소개서/학교생활기록부) -2 단계: 영재성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3 단계: 과학캠프(2박 3일)(과제수행능력 평가, 심층면접, 인성평가) * 2 단계 전형은 창의성 및 영재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중학교 과정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문항으로 평가하며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함	
부산시	한국과학영재학교	150	전국	지원자격	- 전국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수학 또는 과학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교장, 지도교사, 담임교사 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 지도교사, 담임교사 등의 추천을 받은자	
				전형방법	-1 단계: 학생기록물 평가+ 입학담당관의 방문/전화 면접 평가 -2 단계: 영재성 다면 평가	
경기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학교)	120	전국	모집전형	과학영재성 전형(84명)	입학담당관 전형(36명)
				지원자격	- 전국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수학 또는 과학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교장, 지도교사, 담임교사 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 지도교사, 담임교사 등의 추천을 받은자	
				전형방법	-1 단계: 서류평가 및 기초수학능력평가 -2 단계: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3 단계: 창의 영재성 과학캠프(2박 3일)	-1 단계: 서류평가 및 기초수학능력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2 단계: 개인연구주제발표 평가
				*과학영재 전형과 입학담당관 전형 동시 지원 가능		
대구시	대구과학고 (과학영재학교)	90	전국	모집전형	거경 전형(36명)	공리 전형(54명)
				지원자격	- 전국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수학 또는 과학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방법	-1 단계: 서류평가 -2 단계: 소집면접 -3 단계: 최종면접	-1 단계: 서류평가 -2 단계: 기초 소양검사 -3 단계: 과학 창의성 캠프
				*과학영재 전형과 입학담당관 전형 동시 지원 가능		

자료: 각 학교 홈페이지 입시요강, 유진투자증권

주: 교과성적, 성취동기 및 잠재능력 입증자료 제출시 다음은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 외부 경시대회 입상실적
-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여부

**도표 29 서울과학고 2012학년도 추천서 실례(2012학년도 추천서 - 과학영재성 전형)**

1. 지원자의 학습 태도, 탐구력, 창의력 및 특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내)

2. 지원자의 봉사성, 공동체 의식, 리더십 등 개인적 특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내)

자료: 서울과학고, 유진투자증권

도표 30 서울과학고 2012학년도 자기주도서 실례(2012학년도 자기소개서 - 과학영재성 전형)

1.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 동기와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1000자 이내)

2. 수학, 과학 분야에서 지원자가 지닌 뛰어난 능력, 흥미, 특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500자 이내)

3. 지원자가 겪은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500자 이내)

자료: 서울과학고, 유진투자증권



Section 3.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109개교)

도표 31 전국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현황

지역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서울 (44교)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등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휘문고, 동양고, 미림여고, 선덕고, 세화여고, 용문고, 양정고, 장훈고, 하나고	당곡고, 수락고, 등촌고, 성동고, 도봉고, 원목고, 구현고, 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금천고, 면목고, 상암고, 청량고, 대영고, 미양고, 중경고
부산 (11교)	해운대고, 동래여고	부산남고, 경남여고, 낙동고, 사상고, 금정고, 부산중앙고, 부산진고, 영도여고, 주례여고
대구 (12교)	계성고, 경신고, 경일여고, 대건고	강동고, 경북여고, 구암고, 상인고, 대구고, 호산고, 달성고, 학남고
인천(2교)	히늘고	인천신현고
광주(6교)	송원고, 송덕고, 보문고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대전(5교)	대성고, 서대전여고	대전고, 대전송촌고, 동신고
울산(3교)	현대창운고, 성신고	문현고
경기(7교)	안산동산고, 용인외고	와부고, 세마고, 충현고, 함현고, 삼송고
강원(1교)	민족사관고	-
충북(1교)	-	청원고
충남(3교)	북일고	대산고, 용남고
전북(5교)	전주상산고, 남성고, 군산중앙고	군산고, 정읍고
전남(3교)	광양제철고	목포고, 순천고
경북(6교)	포항제철고, 김천고	상주여고, 인동고, 영주제일고, 북삼고
계(109교)	51교	58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자사고라 해서 다 똑 같은 자사고가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지속전망

Q) 자사고는 미달되거나 자사고에 진학했다가 일반고로 전학도 가는 상황인데 대입에 유리한가요?

A) 우후죽순으로 자사고가 많아졌지만, 일부 명문 자사고의 명문대 진학시 유리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자사고 시장 역시 명문 자사고와 아닌 자사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형사립고는 탈규제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대상은 초·중등학교는 물론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장은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서도 국정·검정 교과서 또는 인정교과서 외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보통 일반학교의 3배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취지는 뛰어나나 상당수의 자사고는 2011학년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요인은

- 1) 2009년 13곳에 달했던 자사고는 2011년 51곳으로 급증하며 공급과잉 되었고
- 2) 대부분의 자율고가 전환신청만 했을 뿐이지 일반고와 특별한 차별성 없이 등록금만 일반고 대비 3배 이상 비싼 점
- 3) 입시전형이 아닌 추천제로 선정하다 보니 자사고 '입학생 = 성적우수자' 라는 공식이 깨졌고 이에 자사고 입학이 명문대 입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도표 32 자율형 사립고의 평준화 지역 학생선발 개선 → 자기주도 학습 전형 도입

구분	기존	2012 학년도 개선안
서울시	-선지원 후추첨 -교과성적 50~100%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결정	(중선과 같음)
기타 평준화지역	-선지원 후추첨, 내신+추첨, 면접+추첨 중 선택 -교과성적 30~100%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결정	-학교장에게 입학전형 방법 결정권 부여 (자기주도 학습전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이에, 2012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에 추첨 대신 내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격 도입된다. 이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지역 자사고들은 추첨제 시행으로 제한됐던 학생 선발권을 돌려받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서울지역은 여전히 교과성적 50~100% 범위내에 드는 자 중 추첨제 형식이기에 올해 역시 자율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급증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단, 기존 자립형사립고였던 민족사관고, 전주 상산고 및 일반 명문고였던 중동고 등은 자율형사립고 형태로 통합되면서 자립형사립고 내에서 명문대 진학률은 여전히 독보적으로 높아, 이에 입학경쟁률도 치열하다. 또한, <도표 33>에 거론된 명문 자사고는 SKY를 중심으로 한 명문대 진학률이 70~80%에 육박함에 따라 향후 동 자사고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자사고도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33 전국 명문 자율고 입시요강(2011,12학년도)

구분	시/도	학교명	모집인원(명)	모집지역	전형방법	SKY진학률	SKY+주요명문대 진학률
자율형사립고	서울	하나고	200(2011년)	서울시 및 일부 전국	-1 단계: 내신성적60%(1~3학년 국영수사과 내신성적)+ 학습계획 서 및 교사추천서 20% -2단계: 면접 및 체력검사 20%	2010년 3월 개교	
	울산	현대청운고	180(2011년)	전국	-1 단계: 내신성적 70%(2학년 1,2 3학년 1학기 국영수사과 내신성적)+ 교과 외성적 30%(출결/봉사활동/종합의견)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33.5%	77.2%
	경기	안산동산고	640(2012년)	경기도	-1 단계: 내신성적 250점 만점으로 1.5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18.5%	69.8%
		용인외고	350(2011년)	전국	-1단계 내신성적 70%(2, 3학년 국영수사과 내신성적)+ 서류 -2단계: 1단계 점수 +1차면접 -2-1 단계: 2차면접	48.9%	83.5%
	강원	민족사관고	165(2011년)	전국	-1 단계: 내신성적(국영수사과 중심)중심으로 지역균형 고려 3배수 -2단계: 1단계 점수 +서류심사 -3단계: 2단계 점수+ 면접, 체력검사	32.3%	39.9%
	전북	전주상산고	360(2011년)	전국	-1 단계: 내신성적 100%(2학년 1,2 3학년 1학기 국영수사과 내신성적) -2단계: 1 단계 성적 +입학사정관평가+면접	55.1%	55.1%
	경북	포항제철고	455(2011년)	전국	-1 단계: 내신성적 +출석성적 -2단계 내신성적(160점)+면접(40점)	24.1%	28.2%
자율학교	충남	공주한일고	160(2011년)	전국	-1 단계: 내신성적 100%(1,2,3학년 국영수사과 평균) -2단계: 추천서, 학습계획서의 서류평가와 입학사정관 면접	61.1%	61.1%

자료: 각 학교 홈페이지, 유진투자증권, 대부분의 학교가 2012학년도 전형 미발표, 발표한 안산동산고만 2012학년 전형 기준임

주1: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모집은 시/도 단위 모집이 원칙

주2: 용인외고는 2012년도 외고에서 ->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주3: SKY = 서울대, 고대, 연대 합산임 SKY 제외 명문대학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이대+경희대
진학비율 = 합격자/ 해당년도 졸업생수 *100

주4: 하나고는 정원내 모집정원 200명중 일반전형 120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40명, 하나임직원 자녀로 40명을 선발

이중 일반전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이나 하나임직원 전형은 하나금융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전국 임직원의 자녀 대상임

2011. 05. 16

교육의 정석 I

2012학년도,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제지/유통 김마연
 Tel. 368-6177
 huhu@eugenefn.com

교육/제지/유통 설유진
 Tel. 368-6174
 yoojin.sul@eugenefn.com



Contents

자식, 대학 보낼 준비 되셨나요?	43
Section 1. 주요 대학 입시 전형의 이해	45
1.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	
2. 연세대학교 입시전형	
3. 고려대학교 입시 전형	
Section 2. 2012 학년도,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1
1. 2011 학년도 입시 Trend Overview	
2. 수시 비중 확대 → 수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	
3. 논술 비중 축소, 그러나 여전히 수시에서 큰 변별력 보유	
4. 수능,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5. 입학사정관제 소폭 확대	



자식, 대학 보낼 준비 되셨나요?

1. 대학 입시에서 수시는 수능 전에 선발하는 전형이고, 정시는 수능이후에 선발하는 전형이다. ()
2. 2012학년도에는 정시 선발 비중이 수시 선발 비중보다 낮다. ()
3.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 비중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중요성이 감소한다. ()
4.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전형은 주로 정원외 전형이다. ()
5. 우선선발은 모집전형의 전원을 미리 선발하는 전형이다. ()
6. 수시로 대학을 가기위해서는 수능은 큰 변별력을 갖지 않는다. ()
7.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는 논술이 반드시 중요하다. ()
8. 입학사정관제도에서는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스펙' 이다. ()
9. 2012학년도 수능에서 재수생은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
10. 201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형의 개수는 감소했다. ()

7점 이상: Wow~ 땀모삼천지교 못지 않은 열성 학부모이시네요! 상위권 대학 합격은 따놓은 당상
4점~6점: 그럭 저럭 기본은 아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주세요
3점 이하: 아들, 딸의 인생에서 공부보다 다는 아니죠~

* 정답은 뒷면을 보세요



정답 및 풀이

정답: 1. O / 2. O / 3. X / 4. O / 5. X / 6. X / 7. X / 8. X / 9. X / 10. O

1. 대학 입시에서 수시는 수능 전에 선발하는 전형이고, 정시는 수능이후에 선발하는 전형이다. (O)
 → 수시전형은 일반적으로 8월에 접수가 시작되어 수능 이후에 마감되는 전형이며,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하고, 학생부와 논술 등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정시는 수능을 보고, 점수를 받은 이후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2. 2012학년도에는 정시 선발 비중이 수시 선발 비중보다 낮다. (O)
 → 2012학년도 수시 비중은 대입 총 모집인원의 62.1%로 정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시를 통해 선발합니다.
3.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 비중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중요성이 감소한다. (X)
 → 논술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학생부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고, 논술 반영 비중도 50~100%로 높기 때문에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4.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전형은 주로 정원의 전형이다. (O)
 → 정원내 전형은 허가된 입학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것이고, 정원의 전형은 특별전형 중 대학의 입학정원 외에 일정비율을 선발합니다. 주로 재외국민,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 자녀, 농어촌 학생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5. 우선선발은 모집전형의 전원을 미리 선발하는 전형이다. (X)
 → 우선선발은 일반 선발의 상대적 개념으로 일반선발에 앞서 특정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합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에서 논술 우선선발, 정시모집에서 수능우선선발 등이 있습니다.
 일반선발은 학생부, 수능, 대학별고사 등의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사정하는 전형입니다.
6.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은 큰 변별력을 갖지 않는다. (X)
 → 수시에서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우선선발전형은 3개영역 1등급 이내 등 더 높은 수능 등급을 요구합니다. 수시 합격이후 수능 등급이 부족해 최저 학력 기준 미달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 수이로 수능은 수시에서도 중요합니다.
7.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는 논술이 반드시 중요하다. (X)
 →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에서 논술은 폐지되고 면접과 학생부로 선발한다.
8. 입학사정관제도에서는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스펙'이다. (X)
 → 입학사정관제는 화려한 스펙보다 과정에서의 노력과 학교생활의 성실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꿈과 일관성을 갖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단순한 스펙의 나열로는 합격이 어렵습니다.
9. 2012학년도 수능에서 재수생은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X)
 → 2011학년도 수능에서 재수생은 대폭 증가했고, 2011학년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재수생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10. 201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형의 개수는 감소했다. (O)



Section 1. 주요 대학 입시 전형의 이해



1.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논술을 폐지한 것이다. 논술을 폐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면접의 비중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자들은 심층 면접에 대비해야 한다. 지역균형전형에서는 학교별 추천인원이 전년 3인에서 2인으로 강화되었고, 단계별로 선발하는 것을 서류평가와 면접을 종합해서 선발하는 일괄전형으로 변경되었다.

정시는 타 상위권 대학과 달리 논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심층 준비가 필요하다.

도표 34 서울대학교: 수시/정시 전형(정원 내)별 모집인원 및 평가내용 상세

학교	전형	모집 계열	모집인원		전형 내용	최저학력 적용 여부	
			인원 수 (명)	수시 총 모집인원 대비			
서울대	지역균형	인문계열	251	13.3%	- 서류평가 + 면접 종합평가 100% - 사범대는 교직 인/적성 검사 포함	O	
		자연계열	459	24.4%			
	지역균형 전형 모집인원 합			710	37.7%		
	특기자	인문계열	372	19.8%	- 1단계: 서류평가 100% - 2단계: 1단계 성적 50% + 구술면접 50% - 사범대 2단계: 1단계 성적 50% + 구술면접 30% + 교직 인/적성 검사 20%	O	
		자연계열 (의예과 제외)	685	36.4%		X	
		의예과	32	1.7%		O	
		미대	30	1.6%		- 1단계: 서류평가 50 + 실기고사 120 - 2단계: 1단계 성적 85% + 면접 및 구술고사 30%	O
		체육교육학과	14	0.7%		- 1단계: 서류평가 100% - 2단계: 1단계 성적 50% + 구술면접 50%	O
		음대	40	2.1%		- 1단계: 서류평가 100% - 2단계: 면접 및 구술고사 20% + 실기고사 80%	X
		자유전공 학부	110	5.8%		- 1단계: 서류평가 100% - 2단계: 서류평가 + 면접종합평가 100%	X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 합			1,173	62.3%	* 특기자 전형은 2단계 없이 1단계 전형만으로 일부 일원 선발 가능		
수시 총 모집인원(정원내)			1,883	100%			

학교	전형 구분	모집 단위(계열)	모집인원 (명)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비중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논술	교직적성 인성검사	실기	총계	
					교과(내신)	비교과						
서울대	1, 2단계 분리	1단계에서 수능으로 2배수 선발	-	-								
		인문계열	397	32.7%	30%	10%	30%	30%	-	-	100%	
		자연계열	474	39.1%	30%	10%	30%	30%	-	-	100%	
		사범대학	인문계열	103	8.5%	30%	10%	30%	22%	8%	-	100%
			자연계열	38	3.1%	30%	10%	30%	22%	8%	-	100%
	체육교육과	24	2.0%	16%	4%	20%	12%	8%	40%	100%		
	1, 2단계 통합	미술대학	62	5.1%	8%	2%	40%	15%	-	35%	100%	
		음악대학	성악과	26	2.1%	8%	2%	10%	5%	-	75%	100%
			기악과	47	3.9%	8%	2%	15%	-	-	75%	100%
			작곡과-작곡	12	1.0%	16%	4%	20%	10%	-	50%	100%
국악과			22	1.8%	20%	5%	25%	10%	-	40%	100%	
작곡과-이론	8	0.7%	20%	5%	25%	10%	-	40%	100%			
정시 일반전형 총 모집 인원			1,213	100.0%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2. 연세대학교 입시전형

연세대학교는 수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의 비중 전년 100% 반영에서 70%로 축소했다. 또한, 글로벌리더, 과학인재, 언더우드국제대학, 예체능 인재 전형은 특기자 전형으로 통합됐다.

도표 35 연세대학교: 수시/정시 전형(정원 내)별 모집인원 및 평가내용 상세

학교	전형		모집 계열	모집인원		전형내용	최저학력 적용 여부		
				인원 수 (명)	수시 총 모집인원 대비				
연세대 (서울)	일반 전형	우선선발 (70%)	인문계열	583	24.7%	- 논술 70% + 학생부 30%	O		
			자연계열						
		일반선발 (30%)	인문계열	250	10.6%			- 논술 50% + 학생부 50%	
			자연계열						
	일반전형 모집인원 합				833	35.3%			
	특기자	과학인재			300	12.7%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서류 60% + 구술면접 40% * 선발인원의 30%를 1단계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	X	
		글로벌리더	인문계열	350	14.8%	- 서류평가 60% + 논술 40%	O		
			자연계열						
		언더우드학부(UIC)			107	4.5%	- 1단계: 서류 100%	X	
		아시아학부(ASP)			45	1.9%	- 2단계: 서류 60% + 영어면접 40%		
		테크노아트학부(TAP)			70	3.0%			
		예/체능 인재			77	3.3%	<예능> - 1단계: 실기 100% - 2단계: 실시 100% <체능> - 전국 또는 국제 규모 대회 입상 선수만 지원 자격 - 서류 평가 100%	X	
		특기자전형 모집인원 합				949	40.2%		
		연세 입학 사정관	진리/자유	인문계열	500	21.2%	-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 2단계: 서류 100% - 3단계: 서류 70% + 구술면접 30%	O	
				자연계열					
	사회 기여자		인문계열	30	1.3%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서류 60% + 면접구술시험 40%	O		
			자연계열						
	창의인재			30	1.3%	- 1단계: 우수성 입증 자료 요약서, 창의에세이, 추천서 종합평가 - 2단계: 우선선발- 일반면접 + 서류, 창의에세이 종합평가 일반선발- 구술면접 + 서류 창의에세이 종합평가	X		
	IT명품인재			20	0.8%	- 1단계: 우수성 입증 자료 요약서,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2단계: 우선선발- 일반면접 + 서류, 창의에세이 종합평가 일반선발- 구술면접 + 서류 창의에세이 종합평가	X		
	연세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합				580	24.6%			
수시 총 모집인원(정원내)				2,362	100.0%				

자료: 연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정원내 전형이어도 선발인원이 미미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전형 제외



도표 36 연세대학교: 수시/정시 전형(정원 내)별 모집인원 및 평가내용 상세(cont'd)

학교	전형	모집 단위 (계열)	구분	모집인원 (명)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비중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점,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내신)		비교과	출석	대학수학 능력시험	기본운동 능력	실기	면접
연세대 (서울)	정시 일반 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치/의예과	우선선발 (70%)	미정 (단, 우선선발: 일반선발의 비중은 각 계열별 모집인원의 70% : 30%)	미정	-	-	-	500 (100%)	-	-	-	500 (100%)
			일반선발 (30%)			400 (40%)	50 (5%)	50 (5%)	500 (50%)	-	-	-	1,000 (100%)
		UIC/ASP /TAP	1단계			-	-	-	500 (100%)	-	-	-	500 (100%)
			2단계			-	-	-	500 (50%)	-	-	500 (50%)	1,000 (100%)
		체육교육학과	250 (25%)			50 (5%)	50 (5%)	400 (40%)	100 (10%)	100 (10%)	50 (5%)	1,000 (100%)	
		스포츠레저학과	200 (20%)			30 (3%)	70 (7%)	550 (55%)	-	150 (15%)	-	1,000 (100%)	
		음대/미대	80 (8%)			20 (2%)	-	200 (20%)	-	700 (70%)	-	1,000 (100%)	
정시 일반전형 총 모집 인원				982	100.0%								

자료: 연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정원내 전형이어도 선발인원이 미미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전형 제외



3. 고려대학교 입시 전형

고려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논술비중이 축소되었고, 논술 시험 시간도 축소되었다. 또한, 기존의 세계선도 인재, 국제학부, 과학영재, 체육특기자 전형을 특별전형으로 통합해서 국제1, 국제2, 과학, 체육으로 세분화시켜 선발한다. 기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는 지역우수인재, 사회공헌자, 미래로KU 전형은 추천전형으로 통합되면서, 자기추천과 학교장추천으로 세분화해서 선발한다.

도표 37 고려대학교: 수시/정시 전형(정원 내)별 모집인원 및 평가내용 상세

학교	전형		모집 계열	모집인원		전형내용	최저학력 적용 여부		
				인원 수 (명)	수시 총 모집인원 대비				
고려대 (서울)	수시	일반 전형	우선 선발	인문계열(경영, 정경, 자유전공제외)	832	31.4%	- 논술 80% + 학생부 20%	O	
				경영대, 정경대,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 (의예과 제외)						
			의예과						
		일반 선발	인문계열	554	21.0%	- 논술 50% + 학생부 50%			
			자연계열						
		일반전형 모집인원 합				1,386	52.4%		
		특별 전형	특별 전형	국제1	250	9.4%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X
				국제2	95	3.6%			
				과학	170	6.4%			
체육	45			1.7%					
특별전형 모집인원 합				560	21.2%				
추천 전형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600	22.7%	- 서류 60% + 면접 40%	O			
		자기추천	100	3.8%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추천전형 모집인원 합				700	26.5%				

학교	전형	모집 단위 (계열)	구분	모집인원 (명)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비중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면접	실기	합계				
						교과(내신)								
고려대	정시 일반 전형	인문계열	우선선발	미정 (단, 우선선발 : 일반선발의 비중은 각 계열별 모집인원의 70% : 30%)	미정	-	100%	-	-	100%				
			일반선발			50%	50%	-	-	100%				
		자연계열	우선선발			-	100%	-	-	100%				
			일반선발			50%	50%	-	-	100%				
		의과대학	우선선발			-	100%	-	-	100%				
			일반선발			40%	50%	10%	-	100%				
		사범대 -인문	우선선발			-	100%	-	-	100%				
			일반선발			40%	50%	10%	-	100%				
		사범대 -자연	우선선발			-	100%	-	-	100%				
			일반선발			40%	50%	10%	-	100%				
		예능계				30%	40%	-	30%	100%				
		체능계				25%	35%	10%	30%	100%				
		정시 일반전형 총 모집 인원				1,186	100.0%							

자료: 고려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이 페이지는 편집 상 공백입니다.



Section 2. 2012학년도,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2012학년도,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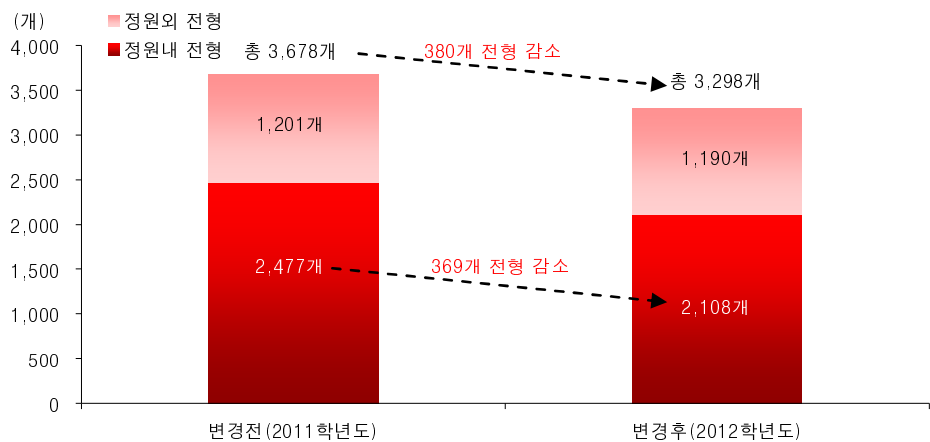
1. 2011학년도 입시 Trend Overview

1) 대입전형의 간소화, 진실인가? → 여전히 복잡하다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외형 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유형의 간소화이다. 전형유형이 복잡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사실 입시업체의 컨설팅 수요를 촉발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201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유사전형들을 통합시켜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 그 결과, 2012학년도 총 전형의 개수는 전년대비 380개 감소했다(도표 38참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전형의 개수는 총 3,298개(정원내: 2,108개, 정원외: 1,190개)로 3,000개를 상회한다. 또한, 전형별로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학생부, 수능, 논술 등)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차별화된 전략 없이는 성공적인 대학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다(도표 39~41참조).

도표 38 2012학년도 전형개수는 전년대비 380개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전형수는 3,298개로 여전히 많아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일반전형/특별전형, 수능우선선발/수능 100% 선발, 논술우선선발, 입학사정관제 등 학교별 다양한 세부 전형이 존재한다. 일례로 특별전형내에서만 대학별 독자 기준으로 각종대회 입상자 및 어학우수자 전형부터 리더십전형, 효행자 전형 등 수십 가지의 전형이 나열되고 있다(도표 39참조).

또한, 동일한 학교내의 입학사정관제도여도 세부 전형요소(논술, 학생부, 수능 등)별 반영 비율에 따라 논술이, 혹은 학생부가, 학생부내에서도 내신성적 위주의 교과 영역이, 또는 비교과 영역등 다양한 요소가 입학결정을 결정지을 수 있다(도표 40참조).

그러나, 知彼知己면 百戰百勝. 최근 변화된 전반적인 대학 입시 경향과 소위 SKY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교의 입시 상세안을 통해 2012학년도 대학입시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도표 39 2012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대학별 독자 기준 특별전형내 다양한 선발 기준별 전형 존재

전형유형	수시		정시		합계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일반전형	167	118,850 (57.0%)	198	133,567 (96.7%)	199	252,417 (72.8%)
특기자 특별전형	117	8,216 (3.9%)	12	194 (0.1%)	121	8,410 (2.4%)
대학별 독자 기준 특별전형	1,874	79,559 (38.1%)	68	4,056 (2.9%)	193	83,615 (24.1%)
특별전형	26	2,032 (1.0%)	8	345 (0.2%)	30	2,377 (0.7%)

주: ()안의 비율은 각 전형(수시, 정시, 합)별 모집인원 총수대비 해당 전형의 비율임

대학별 독자 기준 특별전형 상세					
세부유형	대학수	모집인원	세부유형	대학수	모집인원
각종대회입상자	13	282	간호과남자	3	14
교과상적(내신)우수자	40	13,022	고령자	4	60
국제화관련	17	1,253	군, 읍면고교출신자	3	42
수능성적우수자	14	2,221	농어민후계자및자녀	6	58
수상자	1	34	농어촌학교출신자	1	137
어학우수자	36	2,706	대안학교출신자	12	150
특목고출신자	7	387	대학교정수로졸업자	7	72
특정전공우수자	13	957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등	75	780
학교장, 교사추천자	61	7,930	만학도및주부	30	357
학생회임원, 리더쉽	25	2,216	사회봉사자및자녀	18	283
해외유학생	6	219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60	1,658
기능 우수자(특기, 자격증, 경력)	16	694	소년/소녀가장	8	46
기타추천자(학교장, 교사외의)	52	2,399	종교인, 자녀	26	783
복합유형	29	4,859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출신자	71	7,613
산, 효행자	5	117	항공종사자 자녀	1	10
선원자녀	2	20	검정고시출신자	17	498
의학우수자	1	12	경기실적우수자및지도자	13	605
의학지역우수자	1	5	공무원/교직원/군인/경찰자녀	10	360
일반고교출신자	17	12,472	특성고교출신자	1	10
특성고교졸재직자	4	22	기타	87	16,683
특성고교출신자	21	1,839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주: 2012학년도 전형 기준



도표 40 2011학년도 주요 대학의 학생부/논술/입학사정관 중심 전형
→ 동일 대학의 전형이어도 세부 전형별 중심 요소는 다 달라
→ 전형별 각 중심 전형요소에 맞는 전력적 준비 필요

구분	학생부 중심	논술 중심	입학사정관
건국대(서울)	1차-학생부우수자 2차-수능우선학생부	1차-논술우수자	1차-KU리더십 1차-KU자기추천 1차-KU전공적합 등
경희대(서울)	2차-교과우수자	1차-일반학생	1차-네오르네상스 1차-오토피아
고려대(서울)	1차-지역우수인재* (입학사정관전형)	2차-일반전형* (입학사정관전형)	1차-세계선도인재 1차-과학영재 등
동국대(서울)	2차-학업성적우수자	1차-일반전형	1차-Do Dream 특성화 1차-학교장추천 등
서강대	1차-학교생활우수자* (입학사정관전형)	1차-일반전형 2차-일반전형	1차-글로벌과학인재 1차-특기자 등
서울대	수시-지역균형선발* (입학사정관전형)		수시-특기자 수시-기회균형선발
성균관대	2차-일반학생* (입학사정관전형)	2차-일반학생	1차-동양학인재 1차-리더십특기자 1차-자기추천자 1차-지역리더육성 등
연세대(서울)	1차-일반우수자	2차-진리자유* (입학사정관전형)	2차-사회기여자 2차-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이화여대	2차-학업능력우수자	1차-일반전형	1차-재능우수자 1차-지역우수인재 등
한국외대(서울)	2차-일반전형3	1차-일반전형1 2차-일반전형2	1차-자기추천자 등
한양대(서울)	1차-학업우수자* (입학사정관전형)	2차-일반우수자	1차-공학인재 1차-미래인재 등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주1: 2011학년도 전형 기준

주2: *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또는 논술이 중요한 변별 요소가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중심 혹은 논술 중심 전형으로 분류



도표 41 2012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전형 개수 변화 및 내용

(단위: 개)

대학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차
중앙대	정원내	22	12	-10
연세대	정원내	15	6	-9
		과학인재전형, 글로벌리더전형, 언더우드국제대학전형, 예체능인재전형, 사회기여자전형, 진리/자유전형, 창의인재전형, IT명품인재전형	특기자전형 연세입학사정관전형	
성균관대	정원내	15	8	-7
		동양학인재전형, 사회봉사특기자전형, 과학인재전형, 글로벌리더 I/II전형, 연기예술특기자전형, 영상특기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기존 '학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 통합 기존 '자기추천자전형'으로 통합 특기자전형	
한양대	정원내	16	10	-6
		국제학부, 발명재능우수자, 연기재능우수자, 음악재능우수자, 연기특기자, 체육특기자전형, 글로벌한양 I 전형, 공학인재전형	재능우수자전형 브레인한양전형	
동국대	정원내	14	9	-5
		외국어우수자, World Wide인재, 전공재능우수자, 연기특기자, 체육특기자전형	전공재능우수자전형 정시 다군 일반전형 폐지, 가군과 나군 인원 확대	
고려대	정원내	9	5	-4
		세계선도 인재전형, 국제학부 특별전형, World KU특별전형, 과학영재특별전형, 체육특기자특별전형, 지역우수인재전형, 사회공헌자전형, 미래로 KU전형	특별 전형 I (국제1, 국제2, 과학, 체육) 추천전형	
서울과학기술대	정원내	15	11	-4
경기대	정원내	18	15	-3
경희대	정원내	13	10	-3
		문학 특기자전형, 미술 특기자전형, 음악 특기자전형	문학 및 예능 특기자전형으로 통합 수시 1차: 교과우수자전형 수시 2차: 교과우수자전형	
이화여대	정원내	13	10	-3
		미래과학자전형, 이화글로벌인재전형	이화글로벌리더전형 수시 1차: 국제학부 전형	
국민대	정원내	14	12	-2
서강대	정원내	9	7	-2
		글로벌과학인재 전형, 가톨릭학교장추천전형	기존 '알바트로스국제화전형'으로 통합 기존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으로 통합	
서울시립대	정원내	12	10	-2
한국의국어대	정원내	10	8	-2
		영어우수자, 특수외국어우수자, FLEX외국어우수자전형, U-PEACE국제전문가전형	글로벌리더전형 폐지	
건국대	정원내	18	17	-1
동덕여대	정원내	9	8	-1
숙명여대	정원내	12	11	-1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2) 2012학년도 대학 입시의 Key Point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총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3,515명 증가한 382,730명으로 이 중 62.1%인 237,640명을 수시로 선발하게 된다. 2012학년도 대학 입시의 Key Point는 아래와 같다.

1) 수시모집 비중 확대 → 선택이 아닌 필수!

- 2012학년도 대입 모집 총원 중 62.1%를 수시로 선발
- 수시전형 복수합격에 따른 미등록 인원 총원 기간 최초 선정: 복수합격자의 정시 모집 이월 감소
수시 합격인원 등록률 확대 → 정시 모집 인원 실질적으로 감소

2) 논술 비중 축소, 그러나 여전히 수시에서 논술의 변별력은 큼

3) 수능, 수시와 정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

- 수시 대부분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정시 경쟁률 심화에 따른 수능 중요도 상승

도표 42 참고)2012학년도 전형별 대입 모집인원과 대학교 수

		수시		정시		합계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정원 내	일반학생	167	118,850	198	133,567	199	252,417
	특기자	117	8,216	12	194	121	8,410
	대학별 독자적 기준	184	79,559	68	4,056	193	83,615
	취업자	15	491	5	65	19	556
	산업대학교 우선선발	6	647	3	280	7	927
	특성화고교특별전형	7	894			7	894
정원내 전형 소계			208,657 (60.2%)		138,162 (39.8%)		346,819 (100.0%)
정원 외	재외국민, 외국인	114	4,289	49	291	143	4,580
	농어촌 학생	146	9,744	122	2,974	194	12,718
	산업대학위탁생			1	29	1	29
	특성화고교출신자	132	9,841	95	1,979	161	11,820
	특수교육대상자	47	816	44	394	79	1,210
	기회균형선발제	108	3,778	66	1,084	133	4,862
전문계고교졸 재직자	12	594	7	65	13	659	
정원의외 전형 소계			29,062		6,816		35,878
합계		196	237,734	199	144,996	200	382,730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2. 수시 비중 확대 → 수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수시, 꼭 해야 하는가? → 반드시 해야한다

Q: 저는 학교 내신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꼭 수시에 지원해야할까요?

A: 예, 2012학년도 입시는 정시에서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2학년도 수시는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시에서 가장 큰 오해가 내신이 좋은 학생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수시에서 내신성적이 나빠서 불합격하기보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전형요소(논술 등)에서 감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시 확대로 선발인원의 60% 이상을 수시로 선발하기 때문에 재학생, 재수생 모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수시도 전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형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2학년도의 정시 경쟁 심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1) 수시 비중 확대
- 2) 수시 미등록 충원에 따른 정시 선발인원의 실질적 감소
- 3) 2011학년도 재수생 증가
- 4) 2012학년도 수능 영역별 만점자 1% 수준의 쉬운 수능 출제

→ 2012학년도 수시 응시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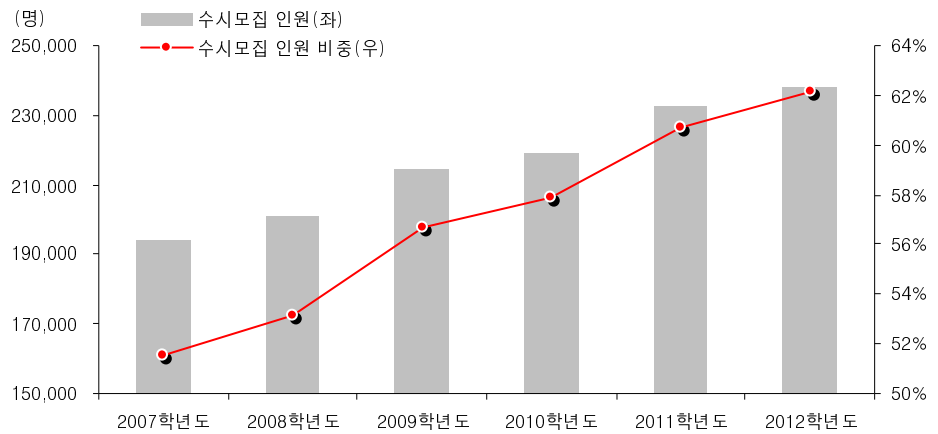


최근 대학입시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수시 모집 비중의 확대이다. 전체 모집 인원 중 수시 모집 비중은 2007학년도: 51.5% → 2011학년도 60.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2.1%를 수시 모집에 배분하고 있다(도표 43참조).

수시 참여 확대 대학 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수시 모집 학교 수는 2007학년도 183개 대학교 → 2012학년도에는 196개교가 수시 모집을 실시한다. 2012학년도 입시 참여 대학 수가 총 200개교임을 감안하면, 98%에 이르는 학교가 수시 모집을 할 정도로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도표 44참조).

그러나, 수시 전형의 합격인원은 실질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 새롭게 수시 전형의 '미등록 충원'을 별도로 선정했기 때문이다(도표 4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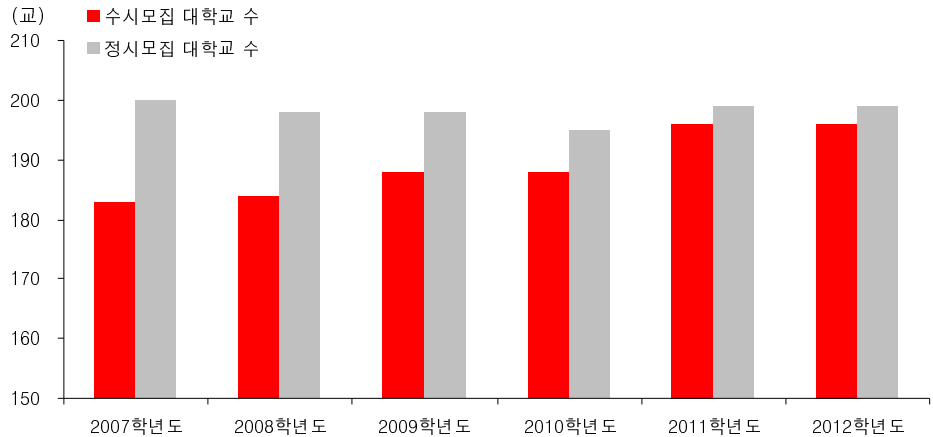
도표 43 수시전형 꾸준히 확대: 2012학년도 총 모집정원의 62.1%가 수시를 통해 선발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44 수시모집 기준이 확대: 수시모집 대학 수도 정시모집 대학 수와 유사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45 2012학년도 주요 입시 일정: 가장 큰 변화는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최초 시행 → 정시 이월 인원 감소 → 정시 선발인원 감소

모집 시기	전형 일정		
수시 (4년제와 전문대동일)	원서접수 및 전형	- 2011.09.08(목) ~ 12.06(화)(90일간) - 입학사정관 전형은 2011.8.1(월)부터 원서 접수 가능	
	합격자 발표	- 2011.12.11(일)까지 - 미등록 총원합격: 2011.12.19(월)까지(5일간)	
	등록기간	- 2011.12.12(월) ~ 14(수)(3일간) - 미등록 총원등록: 2011.12.20(화)(전문대의 경우 21(수) 까지)	
	학생부 작성 기준일	2011.08.31(수)	
수능시험일	2011.11.10(목)		
수능성적통지일	2011.11.30(수)		
정시	4년제 대학	원서 접수	- 가나/가나군: 2011.12.22(목) ~ 27(화)(6일간) -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2011.12.23(금) ~ 28(수)(6일간)
		전형기간	- 가군: 2012.01.02(월) ~ .01.15(월)(14일간) - 나군: 2012.01.16(월) ~ 01.26(목)(11일간) - 다군: 2012.01.27(금) ~ 02.03(화)(8일간)
		합격자 발표	- 최초: 2012.02.03(금)까지 - 미등록 총원 합격: 2012.02.22(수)까지
		등록기간	- 2012.02.08(수) ~ 02.10(금)(3일간) - 미등록 총원 등록: 2012.02.23(목)까지
		학생부 작성 기준일	2011.12.03(토)
전문 대학		-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1.12.22(목) ~ 2011.02.29(수)(70일)까지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가모집	4년제 대학	- 2012.02.24(금) ~ 29(수)(6일간)의 기간 중에 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을 대학 자율 결정해서 시행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46 주요 대학 수시 및 정시 비율 변화

대학명	2012학년도			2011학년도	
	수시	수시 증가율(yoy)	정시	수시	정시
건국대(서울)	57.36%	+3.40%p	42.64%	53.96%	46.04%
경희대(서울)	55.85%	+4.43%p	44.15%	51.42%	48.58%
고려대(서울)	66.46%	+8.63%p	33.54%	57.83%	42.17%
단국대(죽전)	56.21%	-10.96%p	43.79%	67.17%	32.83%
동국대(서울)	56.58%	+3.83%p	43.42%	52.75%	47.25%
서강대	67.90%	+6.84%p	32.10%	61.06%	38.94%
서울대	62.96%	+0.82%p	37.04%	62.14%	37.86%
성균관대	62.46%	-0.17%p	37.54%	62.63%	37.37%
숙명여대	69.32%	+8.22%p	30.68%	61.10%	38.90%
연세대(서울)	75.21%	-0.96%p	24.79%	76.17%	23.83%
울산과학기술대	90.00%	+1.33%p	10.00%	88.67%	11.33%
이화여대	62.01%	+1.48%p	37.99%	60.53%	39.47%
중앙대(서울)	67.18%	+6.43%p	32.82%	60.75%	39.25%
포항공과대	100.00%	0.00%p	0.00%	100.00%	0.00%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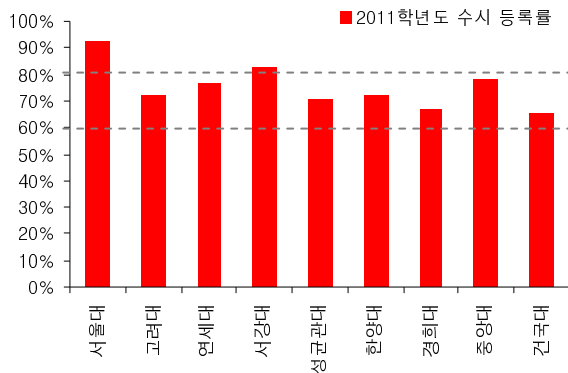


2012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 '미등록 충원'이 생겼다. 미등록 충원은 각 대학이 수시 모집에서 모집인원 수만큼의 합격자를 발표했지만 합격자들이 중복 합격등의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아 생기는 결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수시 합격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수시 모집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결원을 추가로 선발하지 않고, 수시 미등록 인원은 전부 정시로 이월됐다. 이에 따라 수시 합격자의 실제 등록률은 60~80% 내외를 기록했으며, 수시 인원의 30% 내외가 정시로 이월됐다. 수시 모집인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시 등록 인원과 정시 등록 인원 비율은 50:50을 유지했다(도표 47~4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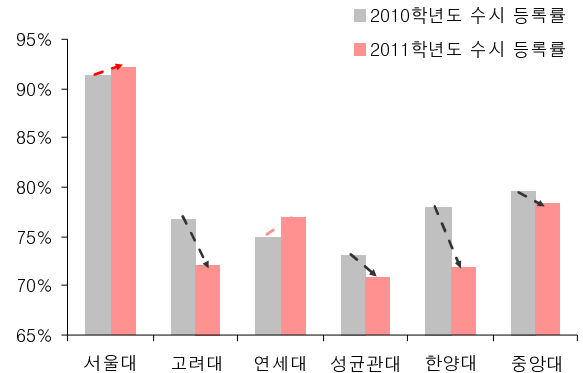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수시 모집에서도 미등록 충원 기간이 5일간 생기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추가 합격자로 충원이 가능해지면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은 대폭 감소할 것이고, 그만큼 정시선발 인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시 합격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정시 선발 인원 감소에 따라 정시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도표 47 주요 대학 2011학년도 수시 등록률 :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70% 내외



자료: 각 언론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48 주요 대학 수시 모집 등록률 변화: 수시전형 확대 → 대부분 학교 수시 등록률은 감소



자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도표 49 수시 합격했으나, 미등록으로 정시로 이월된 인원 비율 : 20%후반~ 30%중반 사이 → 수시 미등록 충원에 따라 정시이월 인원 감소 전망

학교	수시선발 예정 인원(명)	수시 합격 후 등록 인원 (명)	수시 미등록 인원(정시 이월)	
			학생 수(명)	정시이월 비율(%)
건국대	1,592	957	635	39.9%
경희대	1,315	876	439	33.4%
고려대	2,586	1,865	721	27.9%
동국대	1,437	1,104	333	23.2%
서강대	1,075	891	184	17.1%
성균관대	2,401	1,726	675	28.1%
숙명여대	1,440	1,050	390	27.1%
연세대	2,727	2,048	679	24.9%
이화여대	1,913	1,197	716	37.4%
중앙대	1,757	1,366	391	22.3%
한국외대	776	555	221	28.5%
한양대	1,922	1,282	640	33.3%
주요 16개 사립대학 수시모집 미등록으로 인한 정시모집 이월 인원 비율				31.5%

자료: 각 언론사, 유진투자증권

주: 2011학년도 기준임



3. 논술 비중 축소, 그러나 여전히 수시에서 큰 변별력 보유

외형상 수시전형에서 논술의 중요도는 1) 전형요소에서 논술 비중 하락: 우선 선발에서 논술만 100% 반영 폐지(우선선발에서도 학생부 반영), 2) 논술 모집인원 축소, 3) 논술 시간 감소로 하락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논술은 여전히 수시에서 큰 변별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 1)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논술 반영(논술 폐지 대학은 6개 대학뿐)
- 2) 수시 우선선발에서 논술 반영 비중은 최대 80% 여전히 높은 수준: 학생부 점수 편차 높지 않아
- 3) 논술 실시 대학은 최소 2개 전형 이상에서 논술을 전형요소로 반영

1) 외형상 논술 비중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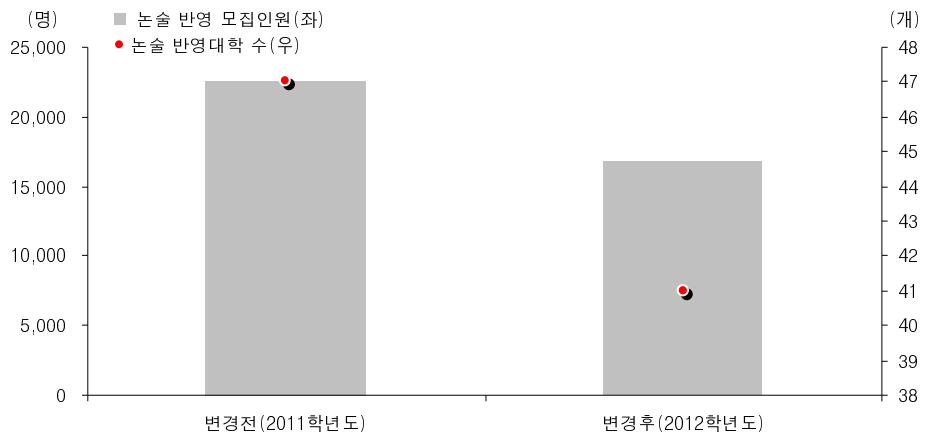
사교육 유발 우려에 따라 201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형 유형 간소화와 함께 외형적으로 논술 비중이 축소되었다. 논술 반영 대학교수는 2011학년도 47개교에서 41개교로 감소했고 논술 반영 모집인원도 2011학년도대비 5,654명(-25.1%yoy) 감소한 16,832명이다(도표 50참조).

논술의 비중 축소는 크게 1) 논술 반영 인원 감소, 2) 전형요소에서 논술 반영 비중 축소로 이뤄졌다. 즉, 수시 모집에서 논술만을 전형요소로 선발하던 논술 100% 전형이 대부분 폐지되고, 논술 우선선발에서도 논술 80%, 학생부 20% 등의 비율로 학생부 반영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

서울대학교는 논술 20%를 반영해 227명을 선발한 수시 2차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다. **고려대학교**는 2011학년도 일반전형에서 50% 내외의 인원을 논술만 100% 반영해서 우선선발했으나, 2012학년도에는 우선선발에서 논술 80%, 학생부 20%를 반영해 논술 반영 비중을 낮췄고, 선발 인원을 일반전형의 60%선까지 확대했다. **연세대학교**는 수시 일반전형 우선선발에서 논술비중 100%를 논술 70%, 학생부 30%로 변경했다.

논술 시험 시간도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각 180분, 150분에서 120분으로 단축시켰다(주요 대학별 논술 변경 사항은 도표 51참조).

도표 50 논술 반영 모집 인원은 전년대비 -25.1% 감소, 논술 반영 대학수는 6개교 감소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주: 전형요소에서 전년대비 논술을 폐지한 대학 6개교는 경북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서울교대, 인천대, 한국외대-웅인임



도표 51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 논술 반영 전형 변경 내용: 논술포함 전형만 정리

대학명	구분	논술 반영 전형 유형	논술 포함 모집인원(명)			전형요소내 논술 반영 비율(%)		
			변경 전	변경 후	감소인원	변경 전	변경 후	감소 비율
서울대	수시	특기자	227	논술 폐지 (면접 반영)	-227	20%	논술 폐지 (면접 반영)	폐지
		수시 총 모집 인원 (논술 미반영 포함)	1,884	1,883	* 서울대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서 논술 반영 하지 않고 학생부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			
	정시	일반전형(인문사회1)	397	397	-	30%	30%	-
		일반전형(인문사회2)	97	97	-	22%	22%	-
		일반전형(자연과학1)	474	474	-	30%	30%	-
		일반전형(자연과학2)	38	38	-	22%	22%	-
		체육교육과	24	24	-	12%	12%	-
		정시 논술 반영 모집인원 합	1,030	1,030				
	정시 총 모집 인원 (논술 미반영 포함)	1,215	1,213					
	논술 반영 모집인원 합계		1,257	1,030 (33.3%)	-227			
총 모집 인원 합계(논술 미반영 포함)		3,099	3,096 (100.0%)					
연세대 (서울)	수시	논술우수자(우선선발)	797	656	-141	80%	70%	-10%p
		논술우수자(일반선발)	342	282	-60	50%	50%	-
		글로벌리더	400	350	-50	40%	40%	-
		과학인재전형	350	폐지	-350	40%	폐지	폐지
	수시 논술 반영 모집인원 합계		1,889	1,288 (54.5%)	-601			
	수시 모집 인원 합계(논술 미반영 포함)		2,827	2,362 (100.0%)				
고려대 (서울)	수시	일반전형(우선선발)	832	832	-	100%	80%	-20%p
		일반전형(일반선발)	554	554	-	60%	50%	-10%p
	수시 논술 반영 모집인원 합계		1,386	1,386 (52.4%)	-			
	수시 모집 인원 합계(논술 미반영 포함)		2,646	2,646 (100.0%)				

자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주1: 세부 전형은 각 대학의 전형 모두가 아닌 논술 포함 전형만 비교/정리



도표 52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 논술 반영 전형 변경 내용: 논술 포함 전형만 정리(continued)

대학명	구분	논술 반영 전형 유형	논술 포함 모집인원(명)			논술 반영 비율(%)		
			변경 전	변경 후	감소인원	변경 전	변경 후	감소 비율
서강대	수시	논술우수자(우선선발)	67	폐지	-67	100%	폐지	폐지
		논술우수자(우선선발)	335	286	-49	100%	70%	-30%p
		논술우수자(일반선발)	268	287	19	70%	50%	-20%p
		가톨릭지도자추천	32	폐지	-32	60%	폐지	폐지
	수시 논술 반영 모집인원 합계		702	573 (52.8%)	-129			
	수시 모집 인원 합계(논술 미반영 포함)		1,108	1,086 (100.0%)				
성균관대	수시	일반전형(우선선발)	593	543	-50	100%	70%	-30%p
		일반전형(일반선발)	593	543	-50	70%	50%	-20%p
	수시 논술 반영 모집인원 합계		1,186	1,086 (53.8%)	-100			
	수시 모집 인원 합계(논술 미반영 포함)		2,401	2,018 (100.0%)				
이화여대	수시	논술우수자(우선선발)	305	224	-81	80%	70%	-10%p
		논술우수자(일반선발)	305	336	31	60%	50%	-10%p
	수시 논술 반영 모집인원 합계		610	560 (29.5%)	-50			
	수시 모집 인원 합계(논술 미반영 포함)		1,913	1,898 (100.0%)				
한양대 (서울)	수시	학업우수자(의예)	7	폐지	-7	60%	폐지	폐지
		한양우수과학인	144	폐지	-144	60%	폐지	폐지
		논술우수자(우선선발)	579	510	-69	100%	70%	-30%p
		논술우수자(일반선발)	386	340	-46	70%	50%	-20%p
		글로벌한양	180	150	-30	50%	50%	-
		사랑의실천	34	폐지	-34	70%	폐지	폐지
	수시 논술 반영 모집인원 합계		1,330	1,000 (53.9%)	-330			
수시 모집 인원 합계(논술 미반영 포함)		1,922	1,857 (100.0%)					

자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주: 각 대학의 전형 모두가 아닌 논술 포함 전형만 비교/정리



2) 그러나 논술은 여전히 수사에서 큰 변별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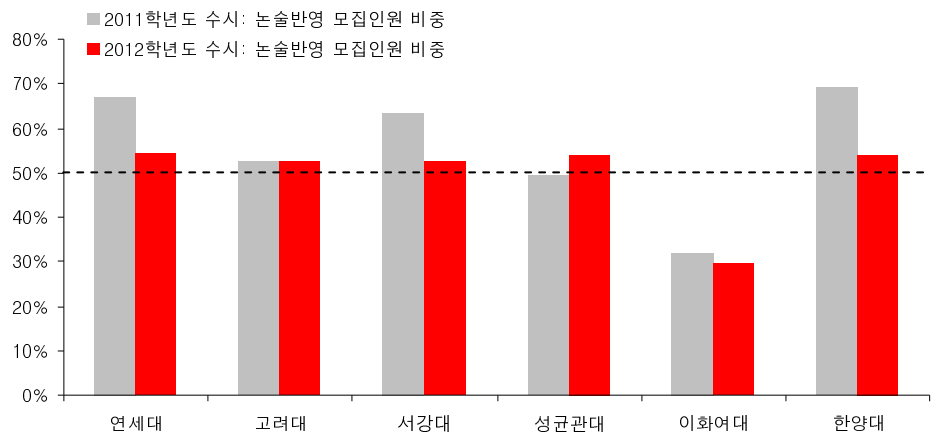
논술 비중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시 선발인원 중 논술 중심 전형의 인원이 여전히 가장 많으며, 논술중심의 전형이 아니더라도 논술 반영 대학들은 최소 2개 이상의 전형에서 논술을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논술 비중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대학 논술 우선선발에서 논술 비중은 70~8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도표 53참조).

특히, 상위권 주요대학은 여전히 논술을 반영하고 있고, 더불어 20~30%까지 반영비율이 확대된 학생부는 석차 등을 활용해 등급제로 적용되고, 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해 점수화되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크지 않지만(실제 주요 대학의 2011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이는 미미), 논술은 0~100점까지 점수 편차가 가능하다. 또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일수록 학생부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권 대학의 수시에서의 변별력은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다(도표 54참조).

또한, 논술은 범위가 넓고 대학별, 영역별 문제 유형이 상이하다. 최근에는 인문계열 논술에까지 수리 문항이 출제되면서, 장기간 독서를 바탕으로 지원 학교의 유형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한 학생이 더욱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논술 반영 비중이 외형상 줄어든 것뿐이지, 여전히 수사에서 논술이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특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할수록, 논술이 수시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53 주요 상위권 대학, 2012학년도 수시에서 논술 반영 모집인원은 50% 상회



자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도표 54 2012학년도 논술 반영 대학: 서울대 제외, 상위권 대학은 모두 수시에서 논술 반영

구분	대학명
수시	건양대, 대전가톨릭대, 연세대(서울), 울산대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경주), 동의대, 상명대(서울), 서울시립대, 선문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고려대(서울), 국민대, 단국대(죽전), 동국대(서울), 명지대(서울),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주대, 연세대(원주), 영산선학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한국외대(서울), 한양대(서울), 한양대(에리카)
가	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정시	나 서울대
	다 영산선학대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주1: 일반전형과 대학독자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만을 대상/ 주2: 1개 전형 또는 모집단위라도 논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모두 포함



도표 55 서울 주요 대학의 논술 반영 내용 상세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방법	최저 학력
서울대	정시 나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자연(사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배수): 수능 100 - 2단계: 학생부 40 + 수능 30 + 논술 30 인문/자연(사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배수): 수능 100 - 2단계: 학생부 40 + 수능 30 + 논술 22 + 교직인적성 8 체육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배수): 수능 100 - 2단계: 학생부 20 + 수능 20 + 논술 12 + 교직인적성 8 + 실기 40 	없음 (수능 전형 요소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예과/치의예과: 학생부 50 + 논술 50 기타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선발(70%): 학생부 30 + 논술 70 - 일반선발(30%): 학생부 50 + 논술 50 	0
연세대(서울)	수시	논술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예과/치의예과: 학생부 50 + 논술 50 기타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선발(70%): 학생부 30 + 논술 70 - 일반선발(30%): 학생부 50 + 논술 50 	0
		글로벌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60 + 논술 40 	0
고려대(서울)	수시2차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선발(60%): 학생부 20 + 논술 80 일반선발(40%): 학생부 50 + 논술 50 	0
서강대	수시2차	논술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선발(50%): 학생부 30 + 논술 70 일반선발(30%): 학생부 50 + 논술 50 	0
이화여대	수시1차	논술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선발(40%): 학생부 30 + 논술 70 일반선발(60%): 학생부 50 + 논술 50 	0
성균관대	수시2차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소프트웨어전공 : 학생부30 + 논술 70 기타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선발(50%): 학생부 30 + 논술 70 - 일반선발(50%): 학생부 50 + 논술 5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선발(60%): 학생부 30 + 논술 70 일반선발(40%): 학생부 50 + 논술 50 	0
한양대(서울)	수시2차	일반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선발(60%): 학생부 30 + 논술 70 일반선발(40%): 학생부 50 + 논술 50 	0
		글로벌한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50 + 논술 50 	없음
홍익대(서울)	수시1차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 40 + 논술 60 	0
경희대(서울)	수시2차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선발(30%): 학생부 40 + 논술 60 일반선발(70%): 학생부 60 + 논술 40 	0
한국의대(서울)	수시1차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선발(50%): 학생부 30 + 논술 70 일반선발(50%): 학생부 50 + 논술 50 	0
숙명여대	수시2차	논술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 40 + 논술 60 	0
중앙대(서울)	수시2차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부: 학생부 30 + 논술 70 기타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선발(50%): 학생부 30 + 논술 70 - 일반선발(50%): 학생부 50 + 논술 5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 20 + 논술 80 	0
건국대	수시1차	국제화(국제학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30 + 어학성적 70 	없음
		국제화(국제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20 + 어학성적 50 + 면접 30 	없음
경기대(서울)	수시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 50 + 논술 50 	없음
동국대(서울)	수시2차	논술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 30 + 논술 70 	없음
국민대	수시1차	논술우수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 40 + 논술 60 	0
	수시2차	논술우수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 30 + 논술 70 	없음
송실대	수시2차	일반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 40 + 논술 60 	0
아주대	수시2차	일반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6배수): 학생부 80 + 논술 20 - 2단계: 학생부 64 + 논술 16 + 면접 20 기타 모집단위: 학생부 60 + 논술 40 	0

자료: 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3) 논술 문제 사례

일부에서는 논술 전형 모집 시기에 맞춰 1개월 정도 짧은 기간, 집중적인 사교육 훈련을 통해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대학별 논술 문제 사례는 단기간에 획득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의 배경 지식과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도표 56 서울대 논술 기출문제 참조).

주요 상위권 대학의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2개 이상의 글, 혹은 자료를 읽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의 양이 워낙 길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이상의 지식과 제한된 시간에 지문을 해석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추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문계열에서 과학적 사고 및 수리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된 과학적 사례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자연계열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문과 수식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배운 기본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 유도과 과학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연계열 논술 또한, 기본 개념위에 수식으로 통합적 추리와 유도 능력이 필요한데, 이 역시 따로 준비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도표 56 서울대학교-정시 일반전형 2011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기출문제(5시간 시험)

*제시문이 너무 방대해 중간 중간 생략

제시문 1

(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과학적 사고를 통한 탐구가 필요하다. 과학 탐구 과정의 구성 요소는 1) 문제를 인식하여 연구 대상을 정하고, 2) 가설을 세운 후, 3)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과 관찰을 수행하고, 4)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해석하여, 5)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탐구 활동의 출발점으로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문제 인식은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현상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생략)

(나) 과학적 주제를 탐구하려면 과학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과학적 사고의 첫째 요소는 기존 지식에 대한 반성이다.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기존 지식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학적 사고의 둘째 요소는 지식의 정량화이다.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면 막연히 '더 빨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배 더 빠르니 정량화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를 같이 붙여서 떨어뜨리면 전체 무게는 더 무거워지므로 무거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무거운 물체의 속도보다 가벼운 물체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늦게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량화해 보면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생각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 지식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과학적 사고의 셋째 요소는 지식에 대한 실증적 검토이다. 지식은 검증되어야 하며, 실험은 그 검증 과정이다.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실제로 떨어뜨려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검증이란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실제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인(變因)이 존재한다. 실험은 이 변인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실험은 관찰과 차이가 있다. 과학적 사고의 넷째 요소는 지식(가설)의 반증 가능성이다. 과학적 명제는 반증이 가능하도록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과학적 사고의 다섯째 요소는 개별지식을 모아 합리적 체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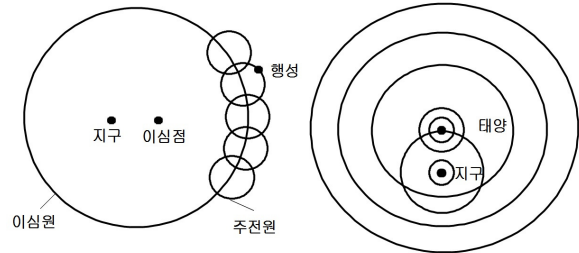
제시문 2.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는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 우주론(천동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하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놓여있고, 가장 바깥에는 우주의 끝인 천구(天球)가 있다. 천구의 안쪽에는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이 차례로 위치하며, 이것들은 행성의 천구를 따라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 반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지배하던 16세기 초 코페르니쿠스는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하늘에 많은 주전원(周轉圓)이 그려져야 하는 복잡한 우주 구조가 신의 섭리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전원, 이심원(離心圓)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행성들이 완벽한 등속 운동을 하는 우주 구조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나서,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따라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체계는 여전히 행성들의 원운동을 강력히 고수하면서 주전원과 이심원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우주가 천체들이 동심원처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고 믿었다. 그런데 왜 그의 우주론은 이후 과학혁명기의 다른 과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을까. 그것은 자연에서 단순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신플라톤주의적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과학혁명기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믿으려 하지는 않았다. 지구의 회전이 물리적으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성서적 믿음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티코의 우주 구조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회전하고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 중심이면서 동시에 태양 중심인 과도기적 우주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훌륭한 천문대를 세우고 20년에 걸쳐 매일 밤 행성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축적했다. 그의 사명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자연에 대해 관측하고 실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론적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처럼 케플러 이전까지 원은 우주 질서의 기초였으며, 사물은 원주 위를 영원히 회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케플러는 어떻게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상상력과 정확한 관찰 자료, 질서와 조화에 대한 깊은 신념을 바탕으로 태양계를 수학적 기초 위에 올려놓은 그의 탐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략)** 그러나 태양 중심 체계를 더욱 자세히 연구하면서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에 불분명한 점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행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특정한 거리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코페르니쿠스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케플러는 공금했다. 왜 행성들은 그렇게 특정 거리로 떨어져 있는가? 왜 행성은 반드시 6개인가? 그리고 왜 신은 태양계를 하필 그런 식으로 설계했을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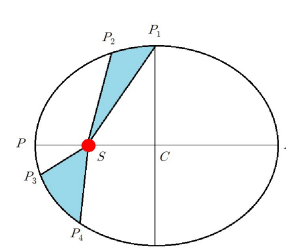
<티코 브라헤의 우주 구조>

1595년 케플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했다. 일 년 전부터 그라츠 대학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친 그는 수업 시간에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작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던 순간 깨달았다. 큰 원과 작은 원의 크기 비례가 토성 궤도와 목성 궤도의 크기 비례와 일치한 것이다. 다시 작은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작도한 다음 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다면, 그 원들 사이의 비례는 토성과 목성 궤도에 대한 화성 궤도의 상대적인 비례와 일치할 것이다. 그는 어렵듯이 깨닫는다. 그와 같은 기하학적 원리가 모든 행성 궤도 사이의 크기에 대해서도 성립하지는 않을까? 신은 기하학을 원형으로 삼아 우주를 창조하지는 않았을까? 평면 기하학으로는 불충분했다. 입체 기하학을 동원해야 했다. 무엇보다 우주는 3차원이었다. 3차원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그는 원 대신 구를, 다각형 대신 정다면체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했다. 예로부터 수학자들에게 알려진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5개뿐이었다. 이전부터 줄곧 케플러는 행성이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공전하는 이유가 행성과 태양 사이의 근접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방식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태양은 행성들을 공전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행성의 공전 주기가 태양과 행성의 거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물리학적 직관에 근거해 수학 공식화를 시도했다. 그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했다. 하나는 바로 기하학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태양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전 궤도는 커지고 공전 주기는 길어진다.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 케플러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태양에서 먼 순서대로 행성의 공전 주기는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의 곱질만큼 길어진다라는 원리를 이끌어 냈다. 태양까지의 거리 차이에 따른 행성의 속도 변화는 행성 운동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이나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에서도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행성의 속도 변화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그의 초기 생각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5개의 다면체가 태양계의 수학적 골격을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수성의 궤도는 정팔면체에 내접해 있고, 그것에 금성의 궤도가 외접해 있는데, 그 궤도는 또 정이십면체에 내접해 있다. 그리고 그것에 지구 궤도가 외접하며 나머지 궤도들도 정십이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에 내접 또는 외접해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케플러의 '우주의 신비'(1596)는 코페르니쿠스적 우주의 짜임새에 관한 견해이며, 나아가서 기독교와 피타고라스적 종교성의 융합이었다. 케플러는 자신의 상상과 추론이 기존에 알려진 관측 자료와 다르고 이론적으로도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식을 통해 얻은 행성 사이의 거리는 그가 다면체 가설에서 설정한 거리와 비슷했다. 즉 우주의 구조에 대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았지만 그는 실패를 통해 나중에 행성 운동의 법칙으로 귀결될 과학적 단서를 얻었다.

실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성의 움직임에서 조화롭고 기하학적인 비율을 찾는 것이 신을 아는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설계한 모형을 사실과 부합시키고 입증할 만한 관측 자료가 없었다. ... **(생략)** 태양 사이의 관계를 나머지 모든 행성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성을 표본 삼아 나머지 행성 전부를 다루고자 합니다"라고 썼다. 케플러는 두 가지 조건을 가정했으며, 이 가정 덕분에 그는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를 뛰어넘어 뉴턴적 사고에 접근했다.

케플러의 첫 번째 가정은 기하학적인 조건으로서, 지구 공전 궤도면과 화성 공전 궤도면이 태양의 중심에서 교차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조건으로서 태양에 행성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케플러는 태양의 힘과 평형을 이루는 다른 힘을 각 행성에 주고, 태양과 행성이 동등한 상태에서 무한히 투쟁하여 행성의 궤도가 결정되게 했다. 이를 통해 태양의 힘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며, 행성의 속도와 힘의 근원으로부터의 거리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했다. 즉,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어 운동하는 것이라면 지구의 공전 운동 역시 다른 행성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구 역시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빨리 움직이고 멀어질수록 느려질 것이다. 행성 궤도를 유추하려는 물리학적 시도는 드디어 상상을 넘어 확신으로 발전했고, 그의 가설은 적중했다.

우주의 신비에서 이미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 가설을 밝힌 바 있지만 그는 자신이 세운 공식에 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행성의 운동 속도는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했다. 그러나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문제였다. 행성은 이심에 중심을 두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는 미세하게 변한다. 케플러는 티코의 수치에 구체적인 몸체를 부여했다. 케플러는 몇 년 동안 이 수치들과 씨름하면서 화성의 비밀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 케플러는 궤도의 기하학적 서술과 물리학적 서술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맨 처음 케플러가 사용한 방법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했다. 그는 이심원... **(생략)** 낼 것인가? 그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케플러는 1604년 한 해를 모두 바쳐야 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공인되기까지의 과정은 오류의 연속이었다. 스무 가지에 이르는 많은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고, 잘못된 계산 방법과 결과도 무수히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발견에 도달했다. 달궤형과 원 사이에 생긴 초승달 모양의 최대 폭은 반지름의 0.00429배였다. 그는 또 이 측정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화성에서 태양과 궤도 중심에 그른 선분이 이루는 최대각이 5도 18분이라는 것을 측정했다. 이 각의 시컨트(코사인의 역수) 값이 1.00429라는 것이 그를 놀라게 했다. 이 값은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러나 안타... **(생략)** 궤도를 도는 동안 태양과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정확히 알아냈다. 그 타원 궤도는 케플러의 오래된 고민, 즉 면적 속도 일정한 법칙에서 근사값의 정밀도를 높이는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었다. 순간 생각의 물줄기가 솟구쳤다. 그는 그 순간을 "마치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빛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썼다. 행성 운동의 제 1법칙이 탄생했던 것이다. 행성의 운동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였던 것이다.

- 제 1법칙(타원 궤도의 법칙): 행성은 태양의 한 초점에 놓여 있는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돈다.
- 제 2법칙(면적 속도 일정한 법칙):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선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 ... **(생략)**

<p>문제</p> <p>문제 1. [제시문 2] 는 행성의 운행 법칙이 밝혀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행성의 운행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과정을 [제시문 1] (가)에서 기술된 '과학 탐구 과정'에 따라 재구성해 보시오.</p> <p>문제 2. [제시문 1] (나)에서 기술된 '과학적 사고의 다섯 요소'를 [제시문 2] 에서 찾아 설명하시오.</p>
--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4. 수능,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201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은 수시로 지원하던 정시로 지원하던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이 되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1)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조건 적용: 논술, 학생부 아무리 좋아도 수능 성적 안 좋으면 수시 불합격
- 2) 정시 전형의 경쟁 격화

1) 수시-수능 최저학력 조건 적용

Q: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가 중요한가요?

A: 예, 상위권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의 60~80%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술 우선선발 등 우선선발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 높습니다.
전국 규모이상 경시대회나 콩쿨 입상,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하지 않는 이상 일정 수준이상의 수능 점수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일반전형, 입학사정관제 등 전형 별로 학생부, 논술, 면접 등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을 달리 하면서도,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내신성적이나 논술실력이 우수해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예, 2개 영역 이상 2등급)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탈락하게 된다(도표 55 최저기준 적용 여부 참조). 또한, 일부 대학의 우선선발 전형은 3개 영역 이상을 1등급을 요구하는 등 우선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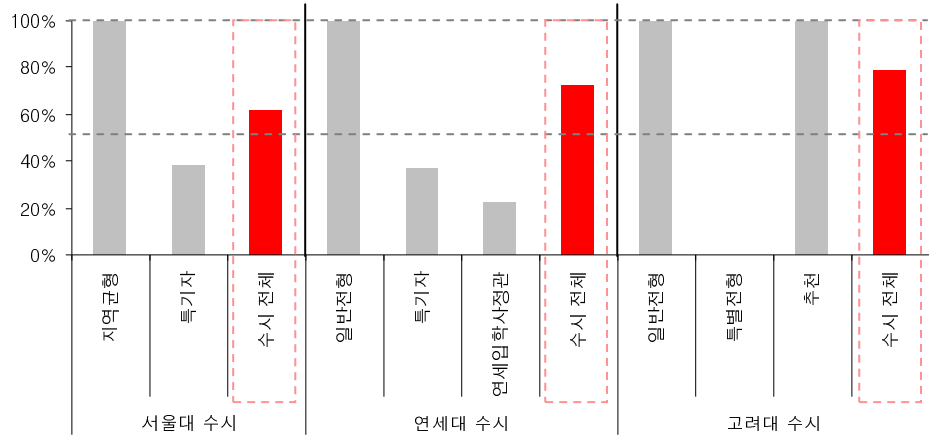
이에 따라, 수시 전형에서도 좋은 수능 성적 없이는 내신성적 한 개만으로, 혹은 논술 하나만 잘해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SKY 3개 대학을 살펴보면, 수시 전체 모집인원의 60~80%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다(도표 57 참조).

학교별로는 서울대는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61.5%를, 연세대는 72.5%를, 고려대는 78.8%를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다. 또한, 논술 등에 비중을 크게 반영해 선발하는 우선선발 전형은 수능 3개 영역에서 1등급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도표 58~60 참조).



도표 57 주요 상위권 대학, 2012학년도 수시 전형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비중
→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모집인원은 50% 상회



자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주: 고려대 특별전형은 내용상 서울대와 연세대의 특기자 전형과 유사

상위 3개 학교를 보면, 수사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가장 적게 적용하는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다(도표 58~60 참조). 서울대는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의 38.2%만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연세대는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의 36.9%, 고려대는 아예 특기자전형(특별전형) 모집인원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기자 전형은 1) 각종 대회(경시, 콩쿨 등) 입상, 혹은 국제적 배경, 아주 높은 외국어 능력 등 말 그대로 특기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2)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모집인원이 전체 수시 인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도표 58 서울대학교: 수시 전체 모집인원 중 61.5%에 수능 최저학력 적용

학교	전형	모집 계열	모집인원			최저학력 적용 여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원 수 (명)	세부 전형 대비	수시 총 모집인원 대비		
서울대	지역 균형	인문계열	251	35.4%	13.3%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459	64.6%	24.4%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지역균형 전형 모집인원 합		710	100.0%	37.7%		→ 지역균형 전형 모집인원의 100%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특기자	인문계열	372	31.7%	19.8%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의예과제외)	685	58.4%	36.4%	X	-
		의예과	32	2.7%	1.7%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미대	30	2.6%	1.6%	O	-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디자인학부는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체육교육 학과	14	1.2%	0.7%	O	- 개인종목/무용: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 단체종목: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 리더십: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음대	40	3.4%	2.1%	X	-
		자유전공 학부	110	9.4%	5.8%	X	-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 합		1,173	100.0%	62.3%		→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의 38.2%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특기자 전형 인문계열은 100% 적용
	수시 총 모집인원		1,883		100%		→ 수시 총 모집인원 중 61.5%가 수능 최저 학력 적용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도표 59 연세대학교: 수시 전체 모집인원 중 72.5%에 수능 최저학력 적용

학교	전형		모집 계열	모집인원			최저학력 적용 여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내용 상세	
				인원 수 (명)	세부 전형 대비	수시 총 모집인원 대비			
연세대 (서울)	일반 전형	우선선발 (70%)	인문계열	583	70.0%	24.7%	O	-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모두 1등급 * 미선발 인원시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합이 4이내	
			자연계열				O	- 2개 영역(수리, 과학탐구) 모두 1등급 * 미선발 인원시 수리, 과학탐구 등급 합이 3이내	
		일반선발 (30%)	인문계열	250	30.0%	10.6%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의예과 제외)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의/치예과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1등급 이내	
		일반전형 모집인원 합				833	100.0%	35.3%	→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00%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특기자	글로벌 리더	과학인재	300	31.6%	12.7%	X	-
				인문계열	350	36.9%	14.8%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의예과 제외)	O
			의/치예과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1등급 이내				
	언더우드학부(UIC)		107	11.3%	4.5%	X	-		
	아시아학부(ASP)		45	4.7%	1.9%	X	-		
	테크노아트학부(TAP)		70	7.4%	3.0%	X	-		
	예/체능 인재		77	8.1%	3.3%	X	-		
	특기자전형 모집인원 합				949	100.0%	40.2%	→ 특기자전형 모집인원의 36.9%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연세 입학 사정관	진리/자유	인문계열	500	86.2%	21.2%	O	- 글로벌 리더-인문계열과 동일	
			자연계열 (의예과 제외)				O	- 글로벌 리더-자연계열(의예과제외)과 동일	
			의/치예과				O	- 글로벌 리더-의/치예과와 동일	
		사회 기여자	인문계열	30	5.2%	1.3%	O	- 글로벌 리더-인문계열과 동일	
			자연계열 (의예과 제외)				O	- 글로벌 리더-자연계열(의예과제외)과 동일	
			의/치예과				O	- 글로벌 리더-의/치예과와 동일	
		창의인재	30	5.2%	1.3%	X	-		
	IT명품인재	20	3.4%	0.8%	X	-			
연세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합				580	100.0%	24.6%	→ 연세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의 22.4%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수시 총 모집인원				2,362	100.0%	72.5%	→ 수시 총 모집인원 중 72.5%가 수능 최저 학력 적용		

자료: 연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도표 60 고려대학교: 수시 전체 모집인원 중 78.8%에 수능 최저학력 적용

학교	전형	모집 계열	모집인원			최저학력 적용 여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내용 상세		
			인원 수 (명)	세부 전형 대비	수시 총 모집인원 대비				
고려대 (서울)	수시	일반 전형	우선 선발	인문계열(경영, 정경, 자유전공제외)	832	60.0%	31.4%	O	- 언어 or 외국어 1등급, 수리 1등급(2개 영역 이상 1등급 이내)
				경영대, 정경대, 자유전공학부					-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모두 1등급 이내
				자연계열 (의예과 제외)					- 수리 1등급, 나머지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1등급
				의예과					- 수리, 외국어, 언어 또는 과탐 모두 1등급 (3개 영역 이상 1등급 이내)
		일반 선발	인문계열	554	40.0%	21.0%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 자연계열은 수리, 과학탐구 중 하나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함	
		일반전형 모집인원 합			1,386	100.0%	52.4%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00%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특별 전형		국제1	250	44.6%	9.4%	X	-
	국제2			95	17.0%	3.6%	X	-	
	과학			170	30.4%	6.4%	X	-	
	체육			45	8.0%	1.7%	X	-	
	특별전형 모집인원 합			560	100.0%	21.2%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음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600	85.7%	22.7%	O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자연계열은 수리, 과학탐구 중 하나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함		
		자기추천	100	14.3%	3.8%				
추천전형 모집인원 합			700	100.0%	26.5%	추천전형 모집인원의 100%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수시 총 모집인원			2,646		100.0%	수시 총 모집인원 중 78.8%가 수능 최저 학력 적용			

자료: 고려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추천전형에 정원의 인원 60명 포함



2) 정시-수능 중요도 확대

Q: 2012학년도 수능이 쉽게 나온다고 하던데, 수능 준비가 중요할까요?

A: 예, 정시에서 여전히 수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 요소입니다. 또한, 수시 결원의 정시 이월 감소와 재수생 증가로 2012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수능이 쉬워지는 만큼 수능 한 문제로 정시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입니다.

2012학년도의 정시 경쟁 심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1) 수시 비중 확대
- 2) 수시 미등록 총원에 따른 정시 선발인원의 실질적 감소
- 3) 2011학년도 재수생 증가
- 4) 2012학년도 수능 영역별 만점자 1% 수준의 쉬운 수능 출제

정시에서 여전히 수능이 중요한 이유는 1)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에서도 수능 우선선발 전형 실시하고, 수도권 대학 다수에서 수능 100% 전형을 실시(도표 61~62참조), 2) 인문, 자연계열(실기비중이 높은 예체능 제외) 정원내 모집에서 전형요소 중 수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도표 63~66참조), 3) 2012학년도 정시 경쟁률 격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능 우선선발이랑 특정 전형(정시-일반전형)의 모집인원 중 일정 비율을 수능만 100% 반영해서 선발하는 것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학생부의 비중이 낮고 수능 비중이 70~100%로 높기 때문에, 수능을 잘 봐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발인원도 우선선발 비율이 인문/자연계열의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7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선발보다 많은 수를 수능 우선선발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선발에서도 실기를 반영하는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수능이 학생부와 동일한 비중이나 더 높은 비중으로 전형요소로서 활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일수록 학생부-교과(내신)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시 일반선발에서도 수능이 당락을 결정 짓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61 정시-수능 우선선발 전형

수능 우선선발		
특정 전형의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수능 성적위주로 사전에 선발		
모집 시기	우선선발 비율	대학명
가군	30%	덕성여대
	50%	가톨릭대, 국민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70%	고려대(서울),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에리카)
나군	30%	덕성여대
	50%	동국대(서울), 상명대(서울), 성균관대 , 울산대, 한국외대(서울)
	70%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서강대 , 서울시립대, 연세대(원주)
다군	50%	상명대(서울), 한국외대(용인)
	60%	차의과학대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62 정시-수능 100% 전형 실시 대학

수능 100% 전형	한 개의 모집군의 모집인원 모두를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
모집 시기	대학명
가군	건국대(서울), 건양대, 경원대, 경희대(서울) , 관동대, 광운대, 대구대(경북), 동국대(경주), 동국대(서울),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상지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영남대, 우석대, 인하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차의과학대, 초당대, 충남대, 충주대, 한경대, 한국외대(서울) , 한국외대(영인), 한려대, 한림대, 호남대
나군	가천의과학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서울), 경북대(대구), 경북대(상주), 고신대, 공주대, 국민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단국대(죽전), 대구한의대, 동덕여대, 동서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부산), 성신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충북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림대, 한양대(서울) , 한양대(에리카) , 한중대, 홍익대(서울) , 홍익대(조치원)
다군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경상대, 경상대, 강원대, 경일대,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계명대, 고신대, 국민대, 그리스도대, 김천대, 남부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상주), 동국대(서울), 동명대, 명지대(서울), 명지대(영인),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공회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우석대, 원광대, 을지대(대전), 을지대(성남),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중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려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에리카) , 호서대, 홍익대(서울) , 홍익대(조치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63 서울대학교 정시-일반전형의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상위권 대학 중 정시-일반전형에서 타교대비 수능 반영 비중 제일 낮고(30%), 유일하게 논술(20~30%) 포함

학교	전형 구분	모집 단위(계열)	모집인원 (명)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비중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논술	교직적성 인성검사	실기	총계	
					교과(내신)	비교과						
서울대	정시 일반 전형	1 단계에서 수능으로 2배수 선발	-	-								
		사범 대학	인문계열	397	32.7%	30%	10%	30%	30%	-	-	100%
			자연계열	474	39.1%	30%	10%	30%	30%	-	-	100%
			인문계열	103	8.5%	30%	10%	30%	22%	8%	-	100%
			자연계열	38	3.1%	30%	10%	30%	22%	8%	-	100%
			체육교육과	24	2.0%	16%	4%	20%	12%	8%	40%	100%
			미술대학	62	5.1%	8%	2%	40%	15%	-	35%	100%
		음악 대학	성악과	26	2.1%	8%	2%	10%	5%	-	75%	100%
			기악과	47	3.9%	8%	2%	15%	-	-	75%	100%
			작곡과-작곡	12	1.0%	16%	4%	20%	10%	-	50%	100%
	국악과		22	1.8%	20%	5%	25%	10%	-	40%	100%	
			작곡과-이론	8	0.7%	20%	5%	25%	10%	-	40%	100%
	정시 일반전형 총 모집 인원			1,213	100.0%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도표 64 연세대학교 정시-일반전형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실기가 있는 예체능 제외하고, 전형 요소중 수능 가장 많이 반영(50~100%)

학교	전형	모집 단위 (계열)	구분	모집인원 (명)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비중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점, %)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기본운동 능력	실기	면접	총점
						교과(내신)	비교과	출석					
연세대 (서울)	정시 일반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치/의예과	우선선발 (70%)	미정 (단, 우선선발 : 일반선발의 비중은 각 계열별 모집인원의 70% : 30%)	미정	-	-	-	500 (100%)	-	-	-	500 (100%)
			일반선발 (30%)			400 (40%)	50 (5%)	50 (5%)	500 (50%)	-	-	-	1,000 (100%)
		UIC/ASP /TAP	1단계			-	-	-	500 (100%)	-	-	-	500 (100%)
			2단계			-	-	-	500 (50%)	-	-	500 (50%)	1,000 (100%)
		체육교육학과	250 (25%)			50 (5%)	50 (5%)	400 (40%)	100 (10%)	100 (10%)	50 (5%)	1,000 (100%)	
		스포츠레저학과	200 (20%)			30 (3%)	70 (7%)	550 (55%)	-	150 (15%)	-	1,000 (100%)	
		음대/미대	80 (8%)			20 (2%)	-	200 (20%)	-	700 (70%)	-	1,000 (100%)	
정시 일반전형 총 모집 인원				982	100.0%								

자료: 연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정원내 전형이외도 선발인원이 미미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전형 제외

도표 65 고려대학교 정시-일반전형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실기가 있는 예체능 제외하고, 전형 요소중 수능 가장 많이 반영(50~100%)

학교	전형	모집 단위 (계열)	구분	모집인원 (명)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비중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면접	실기	합계
						교과(내신)	비교과				
고려대	정시 일반전형	인문계열	우선선발	미정 (단, 우선선발 : 일반선발의 비중은 각 계열별 모집인원의 70% : 30%)	미정	-	-	100%	-	-	100%
			일반선발			50%	50%	-	-	100%	
		자연계열	우선선발			-	100%	-	-	100%	
			일반선발			50%	50%	-	-	100%	
		의과대학	우선선발			-	100%	-	-	100%	
			일반선발			40%	50%	10%	-	100%	
		사범대 -인문	우선선발			-	100%	-	-	100%	
			일반선발			40%	50%	10%	-	100%	
		사범대 -자연	우선선발			-	100%	-	-	100%	
일반선발	40%		50%	10%	-	100%					
예능계	30%	40%	-	30%	100%						
체능계	25%	35%	10%	30%	100%						
정시 일반전형 총 모집 인원				1,186	100.0%						

자료: 고려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정원내 전형이외도 선발인원이 미미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전형 제외



도표 66 서강대, 성균관대 정시-일반전형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실기가 있는 예체능 제외하고, 전형 요소중 수능 가장 많이 반영(70~100%)

학교	전형	모집 단위 (계열)	구분	모집인원 (명)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비중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실기	총계
						교과(내신)	비교과			
서강대	정시 일반 전형	전 계열	우선선발	미정 (단, 우선선발 : 일반선발의 비중은 각 계열별 모집인원의 70% : 30%)	미정	-	-	100%	-	100%
			일반선발			20%	5%	75%	-	100%
	정시 일반전형 총 모집 인원				558	100.0%				
성균관대	정시 일반 전형	인문계열	우선선발	293	22.9%	-	-	100%	-	100%
			일반선발	293	22.9%	30%		70%	-	100%
		자연계열	우선선발	264	20.7%	-	-	100%	-	100%
			일반선발	264	20.7%	30%		70%	-	100%
		예체능계열	미술/디자인 /무용/연출	120	9.4%	40%		20%	40%	100%
			연기	20	1.6%	30%		30%	40%	100%
			스포츠과학부	24	1.9%	30%		50%	20%	100%
정시 일반전형 총 모집 인원				1,278	100.0%					

자료: 각 대학,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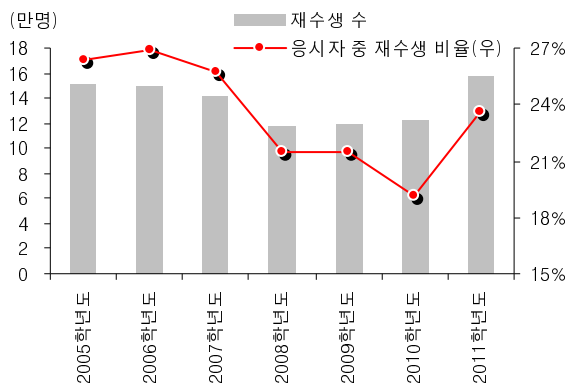
주: 정원내 전형만 포함



201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의 경쟁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1) 전술한 바와 같이 수시전형의 미등록 총원 기간 설정에 따른 정시 모집 인원 감소, 2) 2011학년도 고난이도 수능에 따라 2012학년도 수능은 영역별 만점자를 1%에 맞추는 쉬운 수능 출제 발표, 3) 2011학년도에 이어 2012학년도에도 재수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도표 67~68추정)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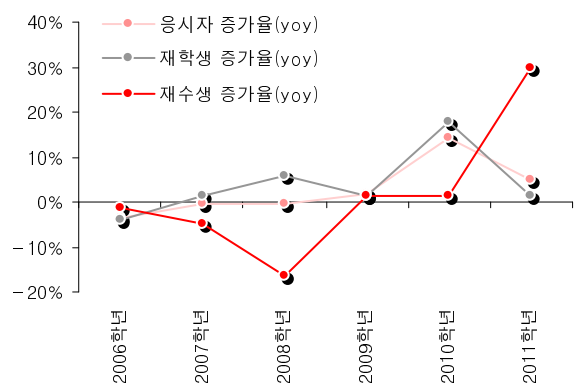
더불어 수능에서 탐구영역 중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최대 선택과목 수가 축소되고, 수리영역의 범위가 심화되면서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도표 69~70추정).

도표 67 재수생 수 추이: 2011학년도 수험생중 재수생 비중은 23.6%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진투자증권

도표 68 재수생 증가율 추이: 1%대 증가율을 기록하던 재수생 수는 2011학년도 + 29.7%yoy 증가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진투자증권

도표 69 수능 변경 내용

영역	2011학년도	2012학년도
탐구영역	사회탐구: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최대 4과목 직업탐구: 최대 3과목	사회탐구: 최대 3과목 과학탐구: 최대 3과목 직업탐구: 최대 3과목
수리영역	<가형> - 필수: 수학 I, 수학 II - 선택: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택 1 <나형> - 필수: 수학 I	<가형> - 필수: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 - 필수: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도표 70 수리영역 출제 문항 및 영역 변경: 심화 내용의 미적분, 벡터 필수로 포함

영역	2011학년도		영역	2012학년도		
	과목	문항수		과목	문항수	
가형	수학 I	12	가형	수학 I	7~8	
	수학 II	13		수학 II	7~8	
	택1	미분과 적분		5	적분과 통계	7~8
		확률과 통계		5	기하와 벡터	7~8
		이산수학		5		
나형	수학 I	30	나형	수학 I	15	
				미적분과 통계 기본	1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진투자증권

주1: '수학 II', '적분과 통계'에서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다루는 내용을 심화하여 다룸

주2: 기하와 벡터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과 공통 내용이 없음



5. 입학사정관제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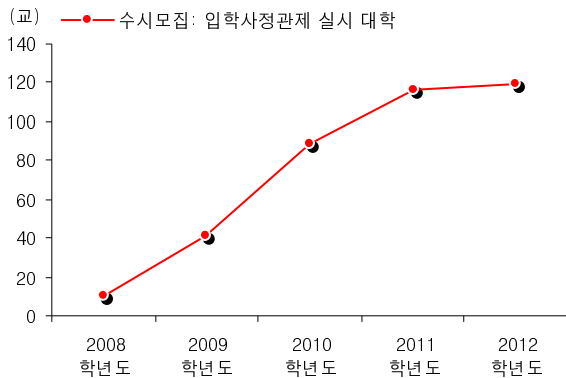
201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총 119개이다. 모집인원 자체는 총 모집 인원 중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10.8%에 불과해 크지 않은 규모이다.

그러나, 2008학년도부터 실시 이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시 모집에서만 주로 시행되는 것을 넘어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 일반전형에서도 서류 평가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하거나, 정시 특별전형 전체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하는 등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도표 71~73참조).

그러나,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도, 혹은 화려한 스펙으로 합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오해들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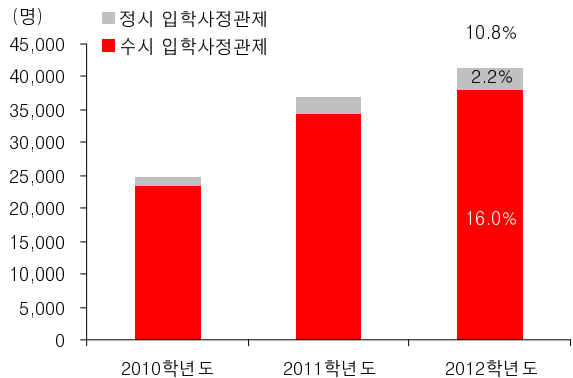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활용될 만큼 입학사정관제는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교육 정책 인만큼 향후 대학입시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입학사정관제와 이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도표 71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72 입학사정관제 전형 모집인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73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구분	대학명
수시 (119개교)	가천의과대학,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서울),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원대, 경인교대, 경일대, 경희대 , 계명대, 고려대(서울) ,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관동대, 광주교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전대, 동국대 ,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포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 서울교대, 서울대 ,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 순천향대, 송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서울) ,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과학기술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을지대, 이화여대 ,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진주산업대, 청운대, 청주교대, 청주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충주대, 평택대, 포항공과대, 한국교원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한양대 , 호서대, 홍익대
정시 (24개교)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건양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 공주대, 나사렛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기독대, 서울대 , 서울시립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 우석대, 이화여대 , 중앙대, 진주교대, 충북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 홍익대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1) 입학사정관제란? – 도입 취지와 Key Point

기존의 입시제도가 ‘학생부 20% + 수능 50% + 면접 20% + 대외수상 10% = 100%’ 등의 정량적 평가만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입학사정관제도는 수능, 학생부-교과(내신석차), 대학별 고사 점수와 같은 정량적 평가 외에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활동 등을 기반으로 학생의 잠재력, 의지, 열정등을 정성적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이유는 결과가 아닌 학생 처한 환경에서의 과정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학생이 IBT 110점의 뛰어난 영어실력을 갖고 있는데, A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오고, 국내에서 과외와 학원을 통해 획득한 실력이고, 다른 B학생은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한 시골에서 매일 영어일기 쓰기, 단어 연습 등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실력을 획득한 경우이다.

기존 전형에서는 IBT 110점이라는 결과에 따라 똑같은 점수로 전형요소에 반영이 되지만,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주변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잠재력이 높은 B학생에게 더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세부 자료별 가중치 없이 종합적으로 판단)와 서류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서류평가에서 활용하는 전형 자료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포트폴리오 등이다(도표 74, 75, 78참조).

도표 74 입학사정관제의 요소별 평가 내용

요소	내용
주요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모집단위, 전형의 인재상에 따라 대학마다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음 - 인지적 측면에서는 교과성적 및 성적 추이와 같은 학업성취도, 교과관련 활동 및 학업적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인성적 측면에서는 비교과 활동(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성실성, 교우관계 등이 고려되고 있음 - 환경적 측면에서는 학교의 특성 및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고난극복의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전형 요소의 활용	<p>가장 많은 것은 '학생부 + 서류 + 면접'의 전형</p>
학생부 반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반영 방법은 ① 통합전형, ② 1단계만 반영, ③ 1단계 성적의 2단계 누적 반영 등 3가지 방법을 활용 - 대학 및 전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단계형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부는 1단계에 일정 비율이 반영되고 2단계에서 1단계 평가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반영
면접의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을 통해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성격, 흥미, 태도, 소질 및 적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대학에 따라 발표면접, 토론면접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예, 건국대 1박 2일면접)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 여러 자료의 일관성, 2) Fact에 근거한 구체성, 3) 학교생활에의 충실성이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관련 계열의 꿈을 갖고 일관되게 다양한 활동(봉사활동 포함)이 학생부,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과정과 사례 없이 일반적으로 높은 점수나 대회 수상능력을 기술하는 스펙위주의 서류는 합격가능성이 낮다(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NG 사례 도표 82~83 참조). 또한, 대학교별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사례를 보면, 학교 동아리 활동, 방과후 심화 학습 등을 활용해 학교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성적 향상을 이뤄낸 게 대부분인만큼 사교육에 의지하는 수상 경력과 활동으로는 합격이 어렵다(입학사정관 합격 사례 도표 76~77참조).



도표 75 입학사정관제 전형 자료

전형 자료	세부 평가 내용 및 활용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 교과 성적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여부 - 학년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 추세 - 비교과 영역: 각종 교내 활동 등
자기소개서	-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자료로 활용 - 학교생활충실도, 인/적성, 학습환경 등
교사추천서	-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자료로 활용 - 학교생활충실도, 인/적성, 학습환경 등
포트폴리오	- 학교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의 증빙자료 -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소명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자료로 활용 - 비교과 영역: 독서, 동아리, 봉사, 특별활동 등
학교 프로파일	- 학습환경 확인 자료로 활용
심층면접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 각종 역량 평가(학업적성, 탐구, 대인, 내적, 특정 역량, 잠재력 등)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76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NG사례 및 수정

NG	2학년 학급 부반장: 저는 리더십과 봉사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학년 부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한 결과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정	<p>→ 결과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 사례와 그 과정에서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해 느낀 점</p> <p>2학년 때 처음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반장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서운하기도 하였지만, 반장을 도와서 학급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학급 친구들과 '하루 한 번씩 칭찬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초계획과는 다소 다르게 되었지만,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생각의 차이가 매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1학년 도덕시간에는 그룹 프로젝트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육아에 대한 주제로 탐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6명의 조원과 함께 지역 어린이집과 여성단체를 방문하고 인터뷰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조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각 조원의 역할 분담과 진행 일정을 세분화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반에서 최우수 조가 되었을 때는 큰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p>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도표 77 서울대학교 추천서 NG사례

NG	지원자의 학업능력은 우수합니다. 지원자는 1학년 1학기 때 국어, 수학, 도덕, 사회, 미술에서 1등급 받았고, 1학년 2학기 때에도 국어, 수학, 미술, 기술가정, 음악,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학년 1학기 때에는 수학, 한국지리, 경제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고 2학년 2학기 때에는 사회문화를 제외하고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NG	지원자는 봉사성이 우수합니다. 3년간 학교에서 50시간이 넘게 봉사활동을 하였고 학교 밖에서도 30시간이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원자는 리더십이 우수합니다. 1학년 2학기 부반장, 3학년 1학기 반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교우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NG	지원자는 봉사성과 리더십이 매우 우수합니다. 비록 학교 공부에 신경을 쓰느라 봉사활동이나 임원활동, 또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지원자의 봉사성과 리더십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례로 들 만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원자의 봉사성과 리더십이 훌륭하다는 점은 제가 보증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수정 사항	<p>추천서에서 지원자에 대해 무조건 칭찬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음, : 현저히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평가하거나, 봉사활동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학생을 봉사성이 우수하다고 평가</p> <p>→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 설명 →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p>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도표 78 입학 사정관제 평가 영역 별 평가 요소와 내용, 전형자료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내용	전형 자료
교과 관련 활동	교과성적	- 과 내신등급 또는 수능 성적	학생부, 수능성적
	학년별 성적 추이	- 학년별 학업성취도의 등락 추이 및 정도	학생부
	학업 관련 탐구 활동	- 활동의 내용 및 기간 - 참여의 적극성	학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교과 관련 교내 수상 실적	- 수상 내용 - 수상의 난이도 등(상의 권위 및 참여자 수)	학생부
	방과후 학교 활동	- 동기와 목적, 소감 - 학습 분야	학생부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 독서량 - 내용 이해도 등	학생부, 자기소개서
	자격증 및 인증	- 자격증 및 인증 획득 목적, 분야, 활용계획 등	학생부
	진로탐색, 체험 활동	- 진로/체험활동의 영역 - 참여의 적극성	학생부, 자기소개서
	동아리 활동	- 동아리 활동에서의 역할 - 참여도 및 성실성	학생부
	봉사 활동	- 봉사활동의 내용 등	학생부
	방과후 학교 활동	- 동기와 목적, 소감 - 참여 분야 및 참여 정도	학생부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적성	공동체 의식	-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 공동목표를 위한 협동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리더십	-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및 내용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학업의지	-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도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특별 활동	- 자치/적응/행사활동의 내용 - 참여도 및 성실성	학생부, 교사추천서
	출결 상황	- 결석 일수 - 결석 사유	학생부, 교사추천서, 면접
	교사의 평가	- 소질과 적성 - 학교생활 충실도 - 평가내용	교사추천서
	교우관계	- 교류활동 및 내용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습 환경	가정 환경과 자기극복 의지	- 사회·경제적 여건 고려	자기소개서
	학교 여건	- 학교의 특성 및 프로그램	학교 프로파일
	지역의 교육 여건	-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관련 자료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진투자증권



2) 입학사정관제 Q&A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이다.

Q. 공부를 못해도(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도)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갈 수 있나요?

A. 아니요. 비교과 영역에서의 관심 분야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하지만, 학업능력은 대학교육을 수학하는데 있어서 기초소양이기 때문에 학생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성적은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 성적과 수능점수가 아예 나쁜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 수준이상의 학업 능력을 보유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다만, 학업 능력을 단순히 학교 성적을 일괄적으로 점수화 시키는 것은 아니며, 학교에서 제공된 심화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에 얼마나 참여했고, 이런 활동을 통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료: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Q. 각종 대회 수상실적이나 화려한 '스펙'이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A. '스펙'보다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실한 학교생활. 성실성, 전공적합성은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영역입니다. 지원자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대회 수상실적이나 화려한 '스펙'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은 교내 수상실적을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어떤 상을 몇 개 받았는가 하는 정량적인 요소보다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이러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기울인 노력, 준비 과정에서 얻은 점, 결과가 다음 계획에 미친 영향 등 내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자료: 고려대학교, 유진투자증권

Q. 어느 한 가지만 잘해도 합격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일반적으로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 합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에서는 비교과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우수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엄청난 봉사 시간을 가진 학생이 합격한 경우가 없으며, 리더십만이 탁월하여 선발된 학생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리더십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돋보이고, 어떤 학생은 봉사 정신이나 협동심, 공동체 의식, 대인관계능력 등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돋보이는 정도는 상대적입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만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리더십은 단지 학교내외의 단체에서 대표를 맡았다고 해서 우수하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서의 능동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문제해결력을 보여야 합니다.

열정과 동기가 필요하지만 그 열정을 표현하고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더불어 살펴 봅니다.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Q.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어떤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자신의 목표와 꿈을 갖고 학업(교과)에 충실하고 비교과 영역에서 자발적인 지속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과 동료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입시를 위해 일시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활동들은 마이너스입니다.

자료: 연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Q. 어떤 봉사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나요?

A. 양보다 질! 학교생활을 하면서 정성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진심 어린 봉사활동이 중요합니다.

일회적인 해외봉사나 수백 시간의 봉사활동보다는 고교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학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대한 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이 의미가 큼니다.

자신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활동 전반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료: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3) 입학사정관제 합격 사례

도표 79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제 합격 사례

화학부 합격

지원자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학력수준이 시지역 최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상승하고 있는 개방형자율학교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학생은 부친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사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선생님들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학교 내에서 좋은 성취 → 매우 긍정적 평가

특히 동아리나 학업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은 교육청 주관의 화학심화반 활동을 하였으며 인근 대학의 실험실에서 R&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화학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원자는 화학을 공부하려는 꿈을 키웠으며 교내 과학경시대회에서 화학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우리대학 화학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원자의 장점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화학심화반 반장 활동과 면학상 수상 등 학교 내에서 주도적인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추천교사도 학생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하고 나서 2명의 사정관이 지원자의 학교와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가 보여주고 있는 지원자의 의지와 열정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본인의 열정과 노력이겠지만, 학생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준 선생님들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0학년도] 기획형전형(정원외)

저의 '스펙'들은 '700점대의 톱스', 서울대학교 '00학과캠프' 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저의 합격비결은 바로 '학교생활에 충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홀로 준비하던 과학고 입시 또한 실패하게 되었고, 지방의 평준화 인문계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는 공부보다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데 더 열중을 했으며, 여러 가지 교과 및 교과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학년 때 특별활동반으로 '영화 속 과학이야기' 반에서 영화 속의 과학에 대해 탐구해보는 활동을 하기도 했고, 2학년 때는 교육청에서 초청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열린교실'이란 프로그램을 학교 게시판에 통해 알게 되어 5일제 수업을 하는 토요일마다 찾아가 여러 강사님들의 인생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타 과목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수학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고2 때 특별활동반으로 들어가 '수학올림피아드반'에서 SAT문제를 일본입시문제를 풀었고, 특히 이때 일본입시문제를 직접 해석하여 모은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3학년 때 방과 후 특별보충반으로 생긴 '수학심화특강반'에 참여했고, 3학년 때는 '수학연구반'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조금 더 수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수학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한 수학 내신 점수를 채워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서울대학교, 유진투자증권

**도표 80 고려대학교-입학사정관제 합격 사례****[2011학년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봄, 백혈병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2년간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느라 정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으나 EBS강의와 자학자습으로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고교 입학 후에도 감염우려로 인해 2학년까지 마스크를 쓰고 학교생활을 하였고 질병결석 5회, 지각 1회, 조퇴 12회에서 보듯이 질병으로 인한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오직 학교수업과 인터넷강의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공부함으로써 중학교 3년의 공백을 완전히 회복하고 소속고교 이과반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예체능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 성적에서 1~2등급을 받을 정도로 학습 열의가 대단하며, 이러한 투병과 학업열의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교육감 표창장(극기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학년 때에는 계발활동으로 과학시사토론반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항암치료분야의 발전을 인생의 포부로 삼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수시모집에도 합격하였으나, 자신의 투병경험을 토대로 갖게 된 질병퇴치의 꿈을 위해 의학 또는 생명공학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 본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에 등록하였다.

[2011학년도] World KU 전형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하여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독서를 통한 배경지식습득과 창의적 글쓰기를 심화시키는 등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4년 만에 영국 중등학교 교육과정 국가고시(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에서 '10과목 A+, 2과목 A'의 성적을 거두어 영국 최상위 1%에 해당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영국 왕립학교 'Royal School of Music'에서 피아노 연주 관련 디플로마와 자격증을 획득한 후 장애와 가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자선 콘서트를 기획 및 개최하여 자선 콘서트에서 얻은 수익을 자선 업체에 기부하는 등 리더십과 공헌사후정신이 돋보였다. 영국 대학입학 시험인 A-Level에서도 전 과목 만점을 받아 영국 옥스퍼드대 생명공학전공,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 생명공학과, 브리스톨 의대에 합격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의학개발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하였다

이에 이 학생은 매우 우수한 학업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과 훌륭한 인성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의사로서 꼭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1학년도] 교육기획군등전형(정원외)

이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소식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아 좌절하였으나, 미래의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자신을 지배하려는 환경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학교 대표 축구선수, 축제 기획단 반장, 밴드부 드럼주자, 외부 수학 경시대회 참가 등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였으며,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비교적 높은 학업 성적을 기록하였다.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정보사회와 컴퓨터 과목에서 모두 교과 우수상을 수상하고 담당교사로부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모집 단위 적합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급 반장 및 학생회 간부로서 통솔력과 책임감이 있는 리더십으로 학우들을 잘 이끌었을 뿐 아니라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늘 열정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 진취적인 자세로 도전해 온 이 학생은 전형의 취지 및 인재상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장실사 시 만난 담임교사로부터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고려대학교, 유진투자증권



이 페이지는 편집 상 공백입니다.



APPENDIX

APPENDIX: 국내 사교육 시장 CHART BOOK

1. 국내 사교육 시장 감소 추세 지속
2. 인구 통계로 본 사교육 시장: 시장규모 축소는 불가피
3. 국내 사교육 시장, 초/중/고 과목별 Breakdown
4. 국내 사교육 시장, 초/중/고 채널별 Brea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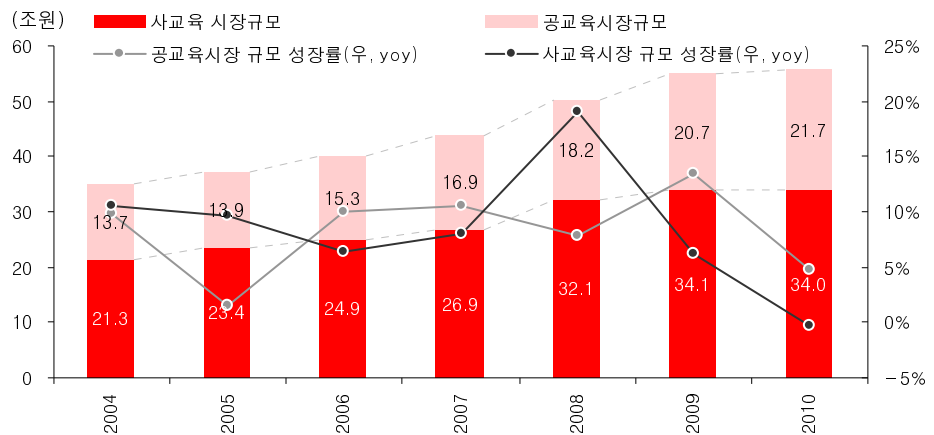


APPENDIX: 국내 사교육 시장 CHART BOOK

1. 국내 사교육 시장 감소 추세 지속

도표 81 국내 교육시장 규모: 사교육 시장 2010년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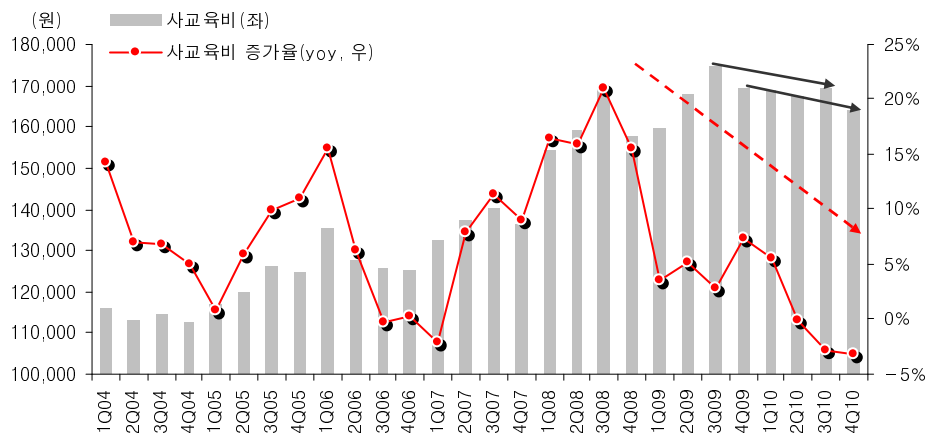
2004년이후 지속 성장하던
국내 사교육 시장은
2010년 감소:
사교육시장 규모는 34조원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82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3Q10 이후 사교육비는 지속적 감소 추세

월평균 사교육비는 3Q10
이후 2분기 연속 감소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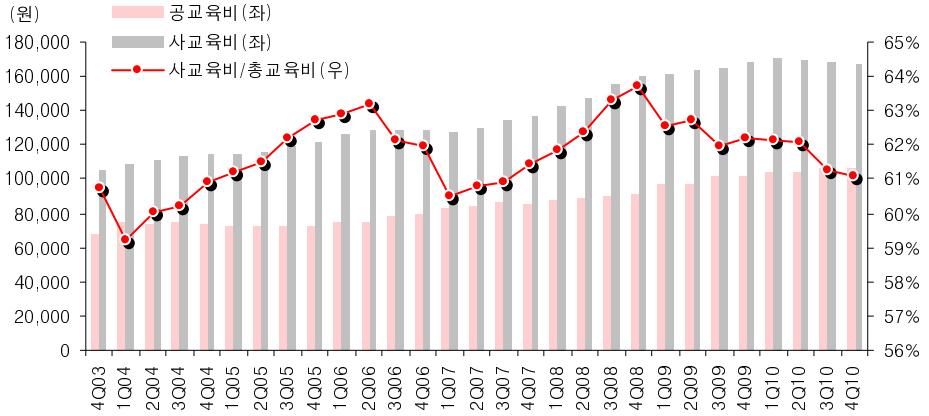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공교육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사교육비는 감소 → 4Q08이후 사교육비 비중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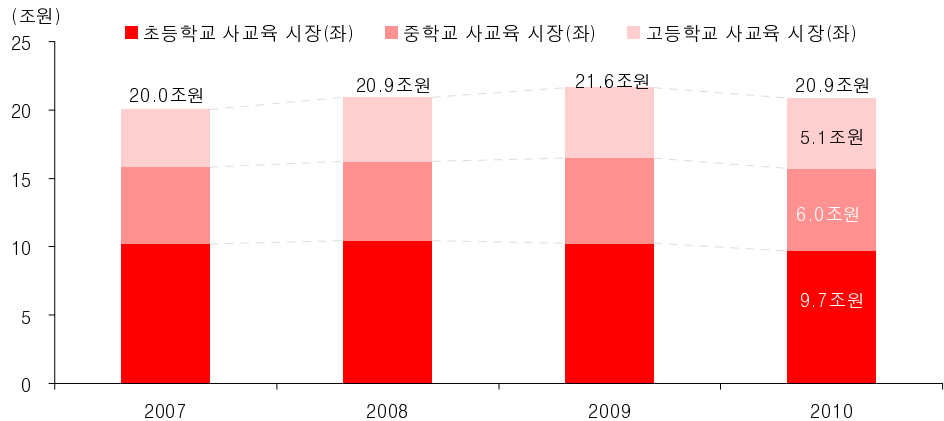
도표 83 총교육비에서 사교육비 차지 비중은 4Q08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기록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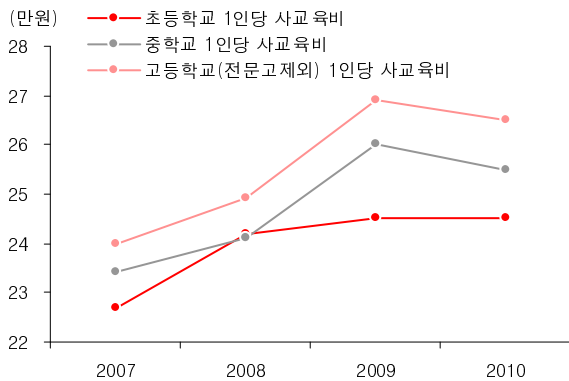
국내 초/중/고 사교육시장에서 초등시장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ASP는 낮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

도표 84 국내 초, 중, 고 사교육 시장: 초등학교가 가장 큰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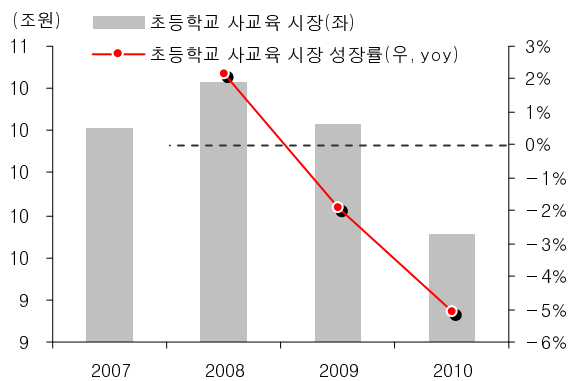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8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 1인당 사교육비 추이: 1인당 지출은 고등학교가 제일 커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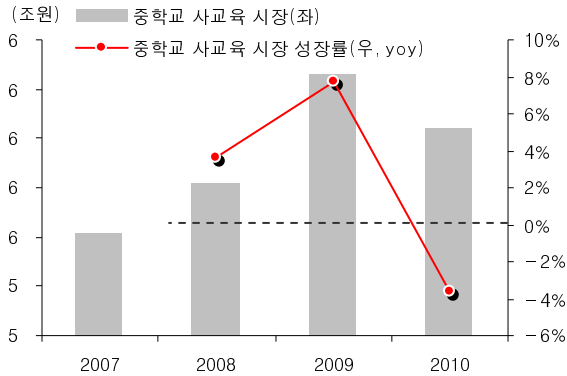
도표 86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증가율: 2009년부터 감소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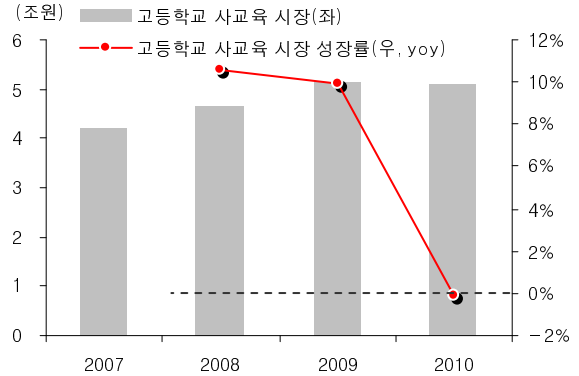


도표 87 중학교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증가율
: 2010년부터 감소(-3.6%yoy)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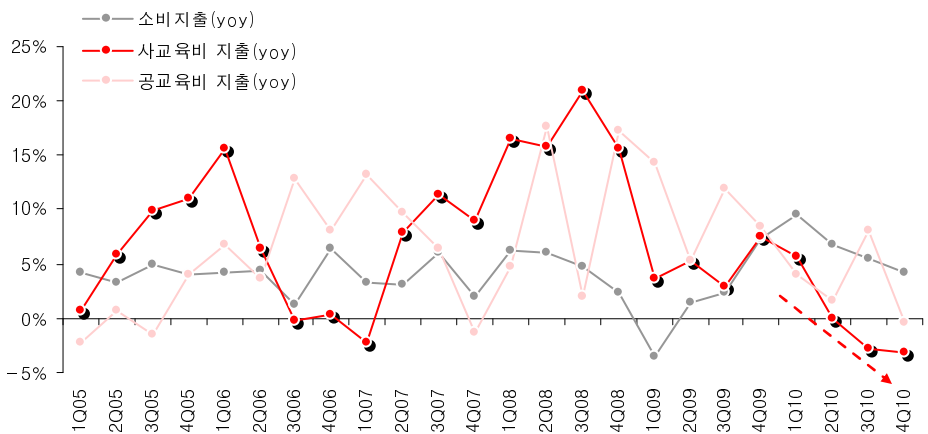
도표 88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증가율
: 2010년부터 감소(-0.1%yoy)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89 가계소비지출을 상회하던 사교육비 지출증가를, 1Q10 이후 소비지출 증가율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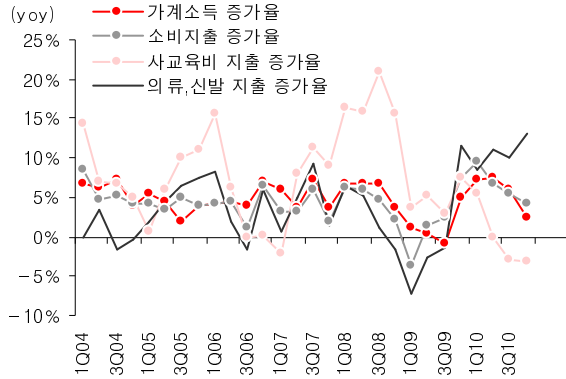
2007년 이후 꾸준히
가계소비지출을 상회하던
사교육비 지출은 1Q10이후
소비지출증가를 하회
→ 반면, 의료와 유형비용
지출이 증가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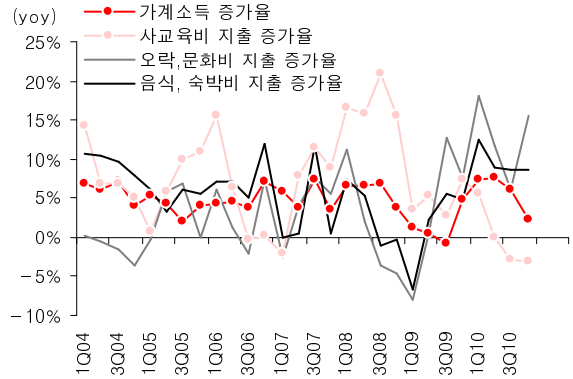


도표 90 사교육비증가를 감소, 의류/신발 지출증가율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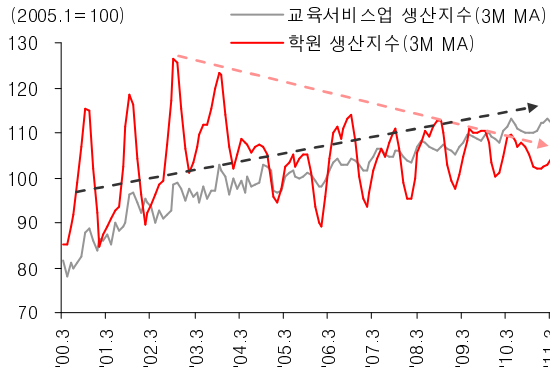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91 사교육비증가를 감소, 오락/문화비, 외식/숙박비 등 유흥비용 지출증가율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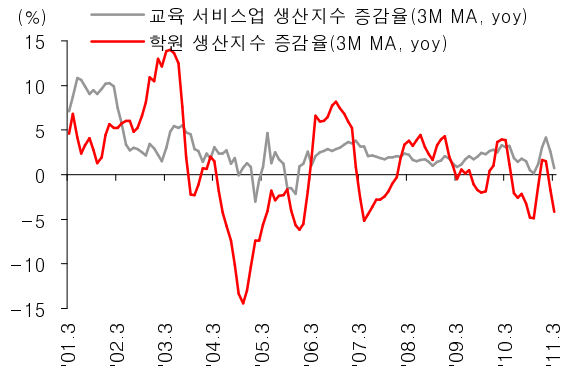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92 교육서비스업생산지수는 꾸준히 증가
그러나, 사교육시장 감소에 따라 학원 생산지수는 꾸준히 감소**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93 2010년 (-) 전환한 학원 생산지수 증가율은 (+) 전환이후 재차 (-) 전환 → 사교육 외형 및 수익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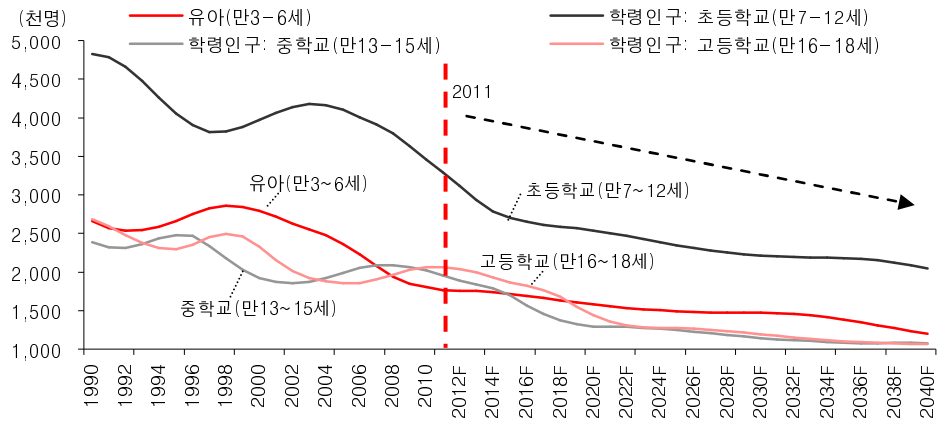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2. 인구 통계로 본 사교육 시장: 시장규모 축소는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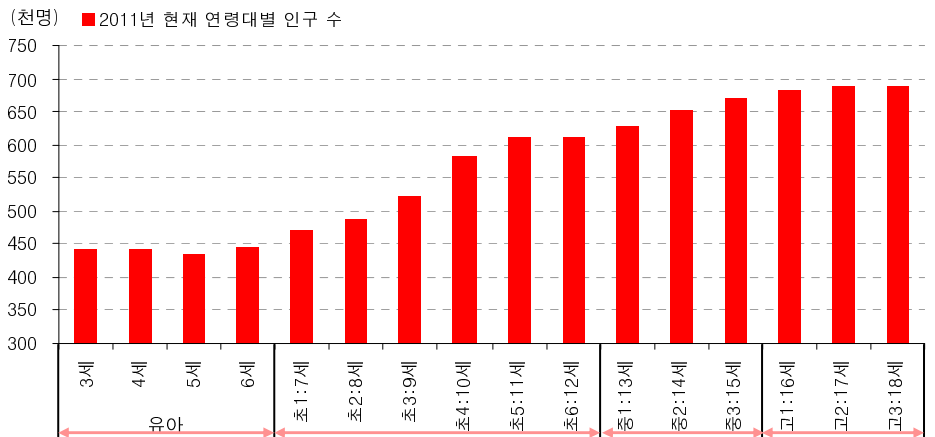
국내 학령인구는 앞으로
기준이 감소 전망
→ ASP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교육시장의 축소는 불가피
→ 교육시장의 양극화 심화
전망

도표 94 국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 추세 기록 전망: 초등학교 인구가 가장 많아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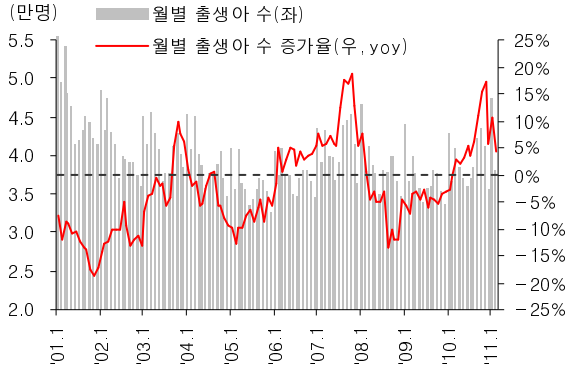
도표 95 2011년 현재 연령대별 학령인구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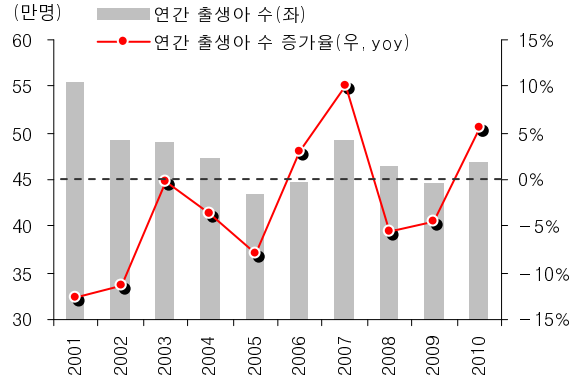


도표 96 월별 출생아수: 2010년 3월이후 12개월 연소 출생아 증가율은 (+) 기록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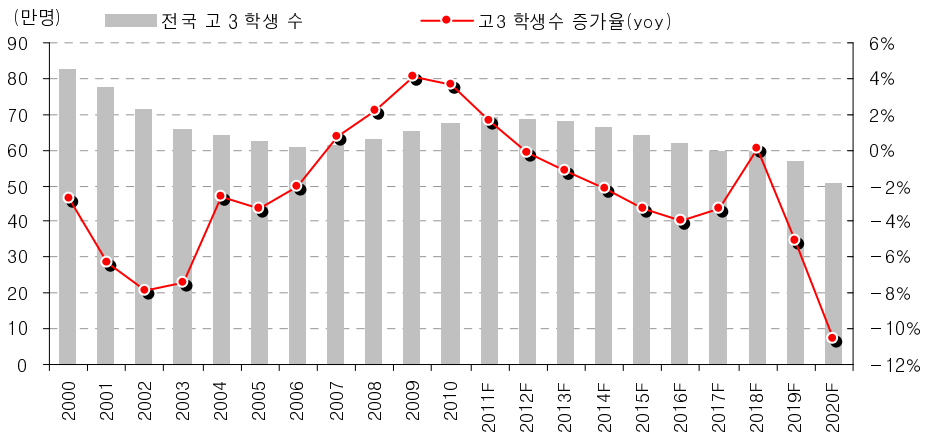
도표 97 연간 출생아수: 2010년 이후 (+) 기록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전국 고3 학생수는 2016년
까지는 60만명 이상 유지,
그러나, 2019년부터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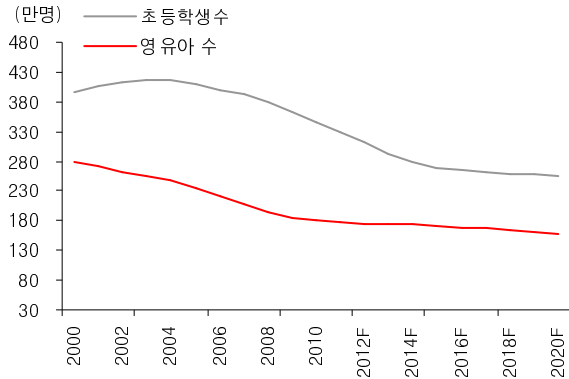
도표 98 연도별 전국 고 3 학생수 전망: 2016년까지는 60만명 유지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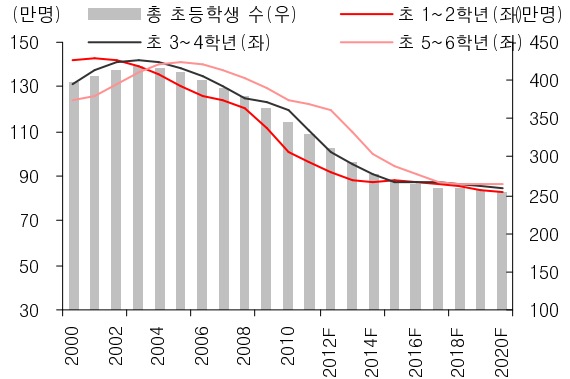


도표 99 초등학생, 영유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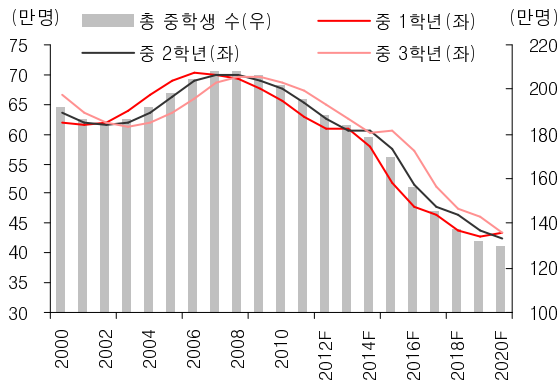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100 초등학생 학년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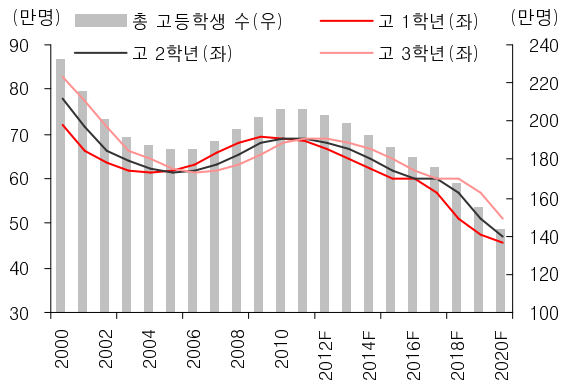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101 중학생 학년별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102 고등학생 학년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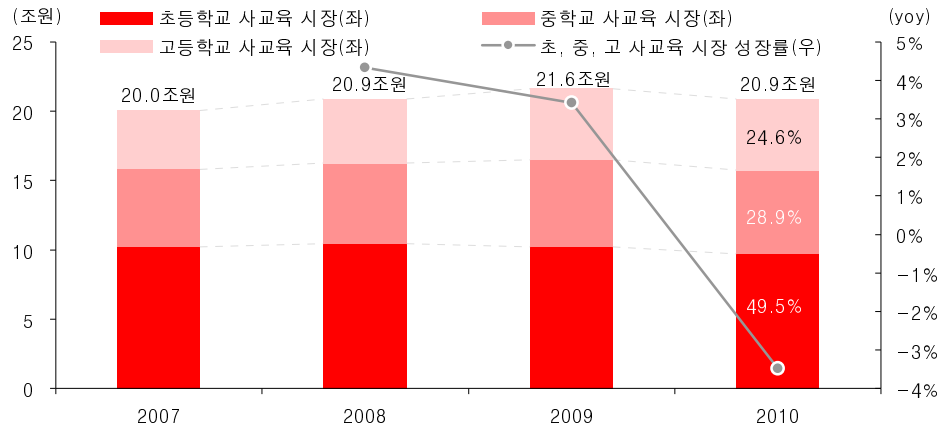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3. 국내 사교육 시장, 초/중/고 과목별 Brea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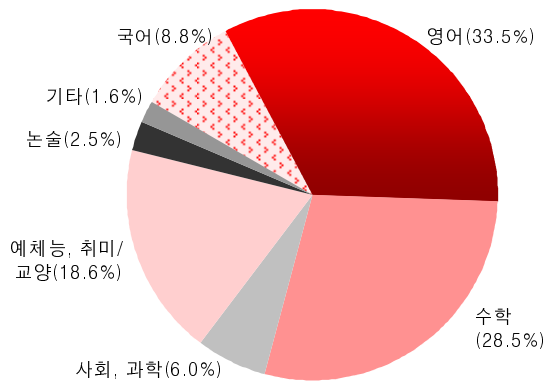
도표 103 2010년 초/중/고 사교육 시장은 20.9조원 기록: 전년대비 -3.8% 감소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초/중/고 사교육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은
영어 시장

도표 104 초/중/고 전체 사교육시장 과목별 Breakdown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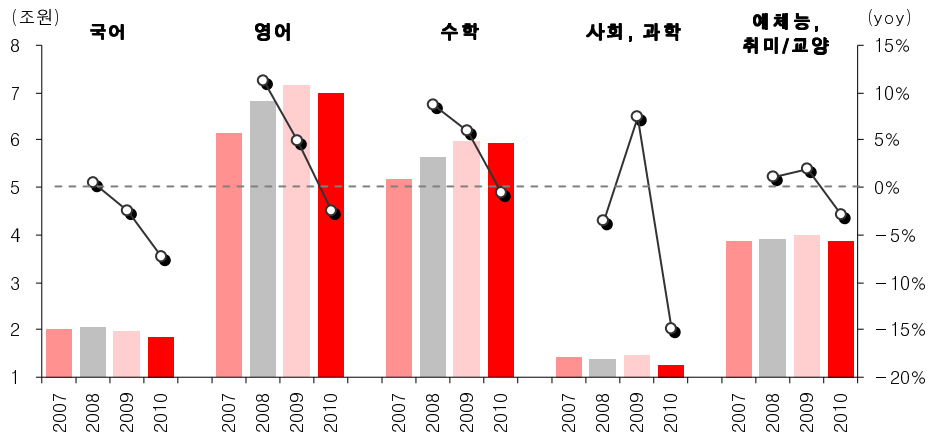
주1: 2010년 기준

주2: 기타는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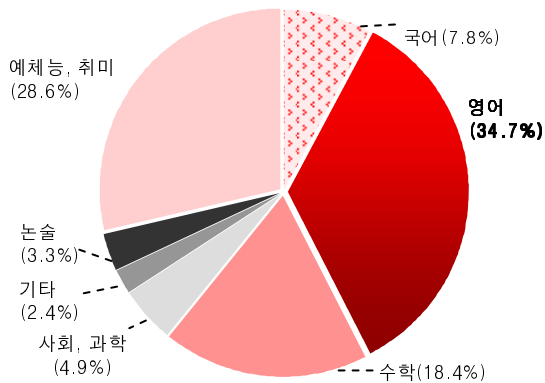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수학 지출 가장 커,
영어/수학은 증가폭도 크고,
감소폭은 적어

도표 105 과목별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영어와 수학이 큰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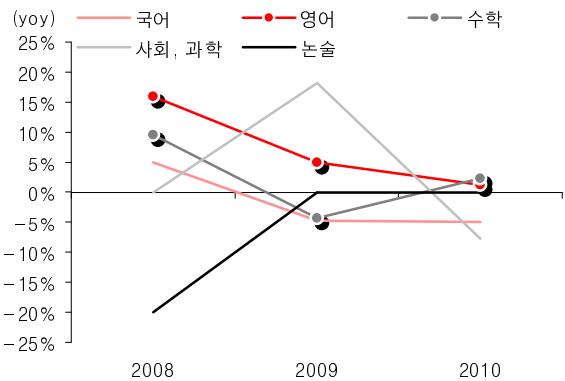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106 초등학교 사교육시장 과목별 Breakdown : 영어가 가장 큰 시장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1: 2010년 기준
주2: 기타는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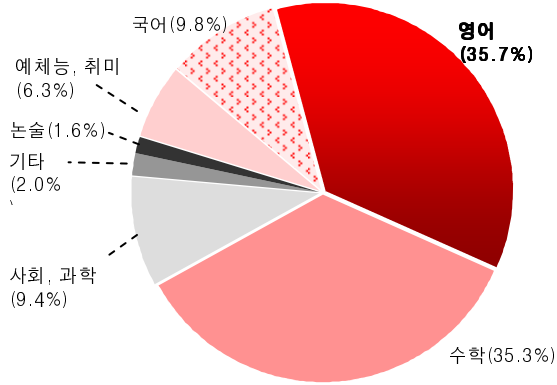
도표 107 초등학교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 영어, 수학 상대적으로 덜 감소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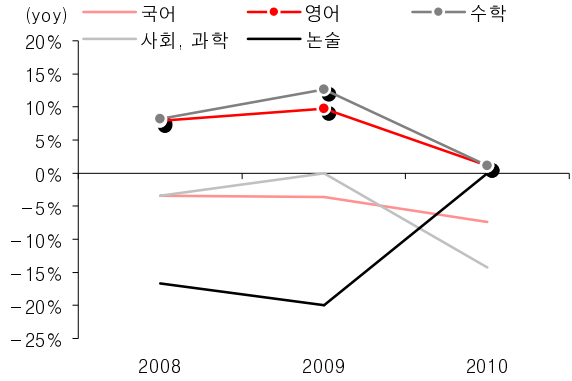


도표 108 중학교 사교육시장 과목별 Breakdown : 영어가 가장 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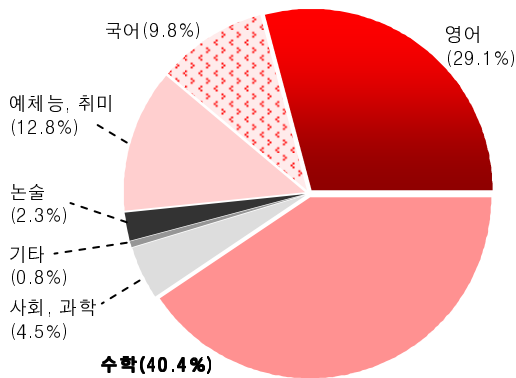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1: 2010년 기준
주2: 기타는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과목

도표 109 중학교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 논술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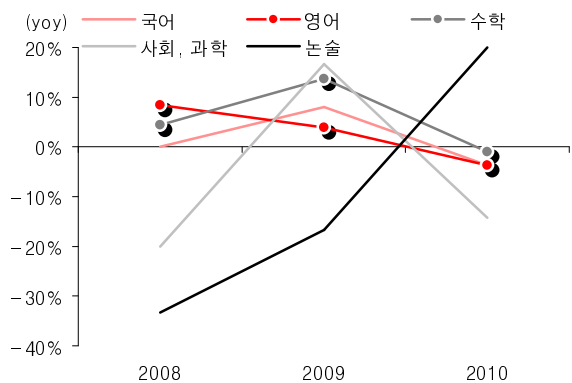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도표 110 고등학교(전문교 제외) 사교육시장 과목별 Breakdown: 수학이 가장 큰 시장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1: 2010년 기준
주2: 기타는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과목

도표 111 고등학교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 논술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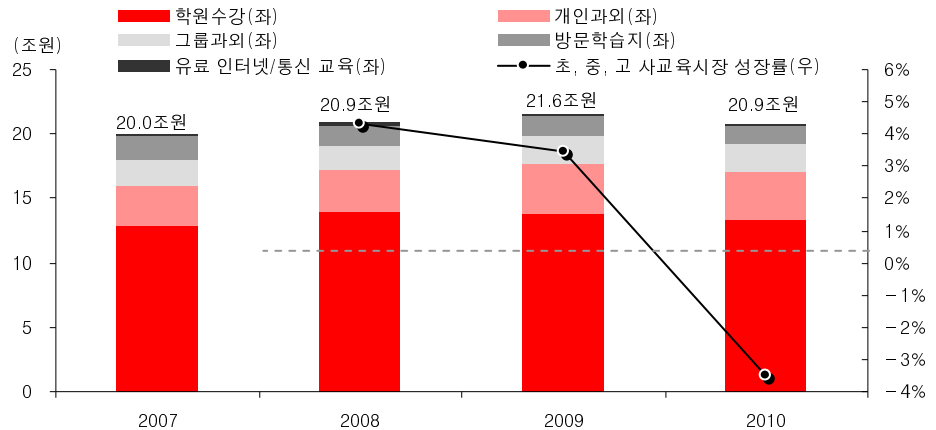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4. 국내 사교육 시장, 초/중/고 채널별 Brea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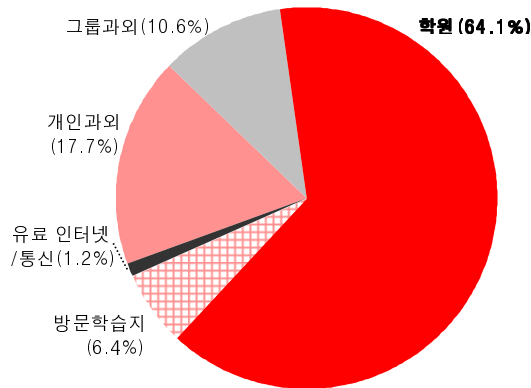
도표 112 사교육 채널별 시장 규모 추이

초/중/고 사교육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채널은 학원. 그러나 2번째로 큰 시장은 초/중/고 별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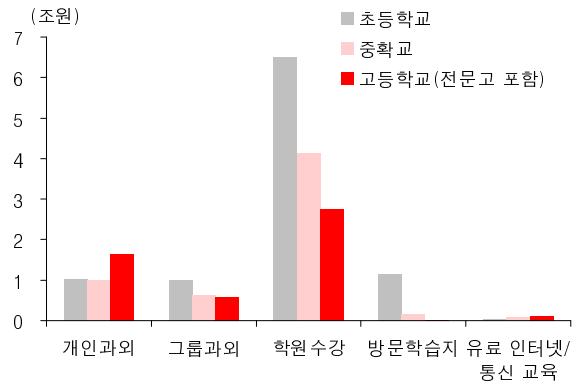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도표 113 초/중/고 전체 사교육시장 채널별 Breakdown: 학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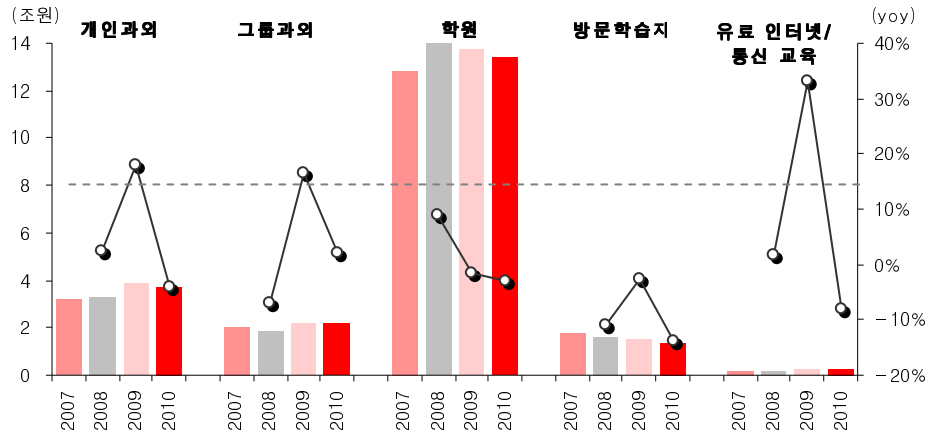
도표 114 개인과외, 인터넷교육-고등시장이 제일 큰 비중,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학원-초등시장 제일 커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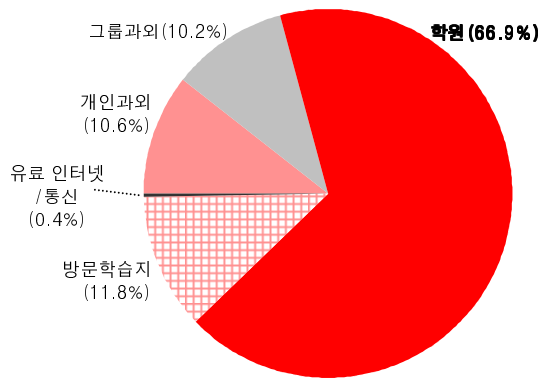


도표 115 채널별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성장률: 학원이 절대적으로 높은 규모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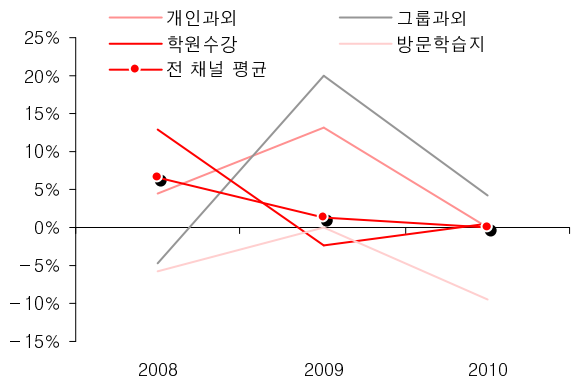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116 초등학교 사교육시장 채널별 Breakdown : 학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방문학습지 시장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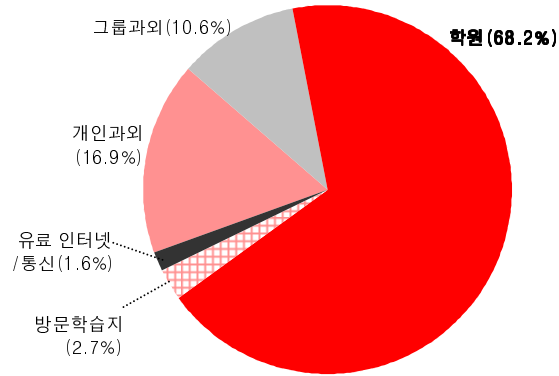
도표 117 초등학교 채널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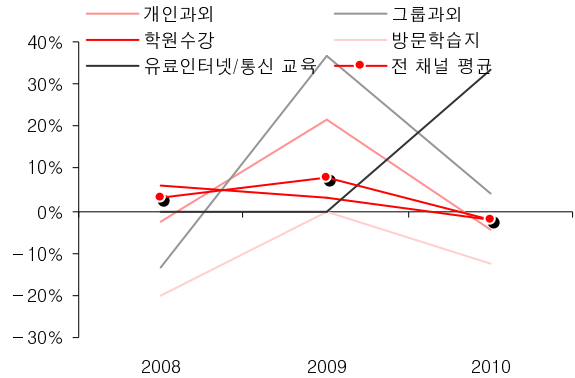


도표 118 중학교 사교육시장 채널별 Breakdown : 학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개인 과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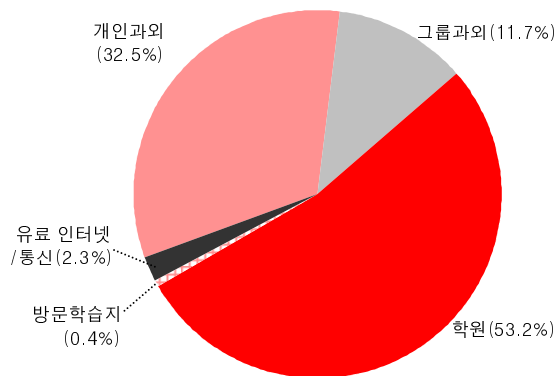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도표 119 중학교 채널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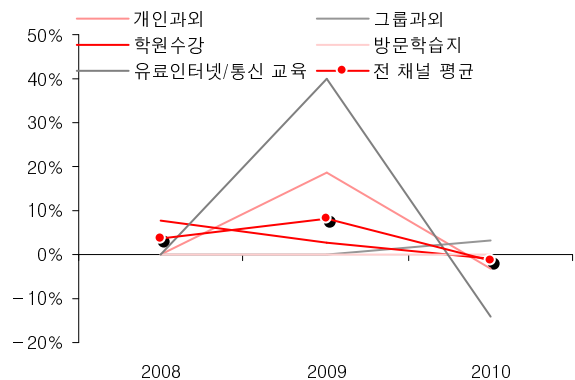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도표 120 고등학교(전문고 제외) 사교육시장 채널별 Breakdown: 학원이 가장 큰 시장, 그 다음은 개인과외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도표 121 고등학교 채널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2010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상기 투자등급은 3월 3일부터 변경 적용함

변경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ONG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20%이상 ~ +50%미만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0%이상 ~ +20%미만 • REDUCE: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0%미만



변경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ONG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이상 ~ +15%미만 • REDUCE: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미만